

法輪大法

美國法會講法

미국법회설법

李洪志

차 례

뉴욕법회설법	1
샌프란시스코법회설법	67
뉴욕좌담회설법	111

紐約法會講法

뉴욕법회설법

李洪志

1997년 3월 23일

뉴욕법회설법

李洪志

(1997년 3월 23일)

바다 멀리 있다 보니 여러분과 한 번 만나기가 몹시 어렵다. 하지만 당신들이 비록 나 본인을 보지 못할지라도, 실제로 오로지 당신이 수련하기만 하면 나는 바로 당신 곁에 있다. 당신이 수련하면 나는 당신을 끝까지 책임질 뿐만 아니라 나는 때 시각 내내 모두 당신을 지켜줄 것이다. (박수) 만약 누가 이렇게 하지 않는다면 곧 사법(邪法)을 전하고 나쁜 짓을 하며 함부로 천기(天機)를 누설하는 것과 같다. 물론 여러분도 실천을 통하여 다 알게 되었으므로 나도 이 방면을 더 많이 설명할 필요가 없다. 나는 할 수 있는 것만 말하고 할 수 없는 것은 말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대법은 줄곧 건강하게 발전하고 있다.

저번에 내가 여러분과 만났을 때, 사람이 이처럼 많지 않았다. 물론 많은 사람이 사업 때문에 몸을 뺄 수가 없어 오지 못했다. 다시 말해서 저번에 여러분과 만난 이

후로 우리는 또 많은 사람이 입도(入道)하여 법을 얻었다. 이 법이 신속하게 발전하고 널리 선양되며 크게 빛나게 됨은, 내가 생각하건대 이것은 대법(大法)의 위력이다. 동시에 우리가 대법의 전파과정 중에서 걸은 길은 모두 옳았다. 우리는 또한 확실하게 수련생을 위해 책임지고 사회에 대해 책임졌기 때문에 비로소 이런 효과를 거둘 수 있었다. 여러분과 만날 기회가 아주 적고 미국에 한 번 오기가 쉽지 않으며 비자가 필요하므로 비교적 좀 번거롭다. 여러분과 한번 만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나는 되도록 여러분을 도와 일부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한다. 무엇인가 문제가 있으면 당신들은 제출해도 좋다, 내가 여러분에게 해답해 주겠다. 우리는 이 한동안 시간을 충분히 이용하여 여러분을 도와 일부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줌으로써 대법이 미국에서 더욱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본래 수련생들과 일부 구체적인 문제를 말하려 하였으나 이 자리에 있는 일부 사람은 어제 이미 ‘특별 대접’을 받았다. 왜냐하면, 그들이 비교적 일찍 왔기 때문인데, 어제 나는 그들에게 일부 문제를 해답해 주었다. 하지만 괜찮다. 오늘 당신은 유감스럽게 생각지 말라. 어제 당신이 듣지 못한 문제를 계속해서 제출할 수 있으며 내가 여러분에게 해답

해 주겠다.

나는 이 시간을 이용하여 여러분에게 수련 중의 일, 즉 법을 말하겠다. 나는 이 한동안 시간에 여러분이 제고되어감이 아주 빠름을, 상당히 빠름을 알고 있다. 내가 지난번에 미국에서 중국으로 돌아간 후, 나는 중국 수련생들에게 이미 말했다. 미국, 이 지방은 아주 특수하며 많은 엘리트(精英), 특히 화인(華人) 엘리트들이 여기에 있다고 말했다. 이 사람들은 비교적 근기가 좋고 대법에 대한 이해가 깊으며, 이해하는 것도 비교적 빠르고 층차의 돌파 역시 비교적 빠르다. 이런 것이 당신들의 좋은 조건이다. 하지만 또 득의양양해하지 말아야 하는바, 역시 부동(不同)한 방식의 일부 집착과 장애가 있으므로 모두 극복해야만 비로소 더욱 빨리 제고할 수 있다.

다음으로 나는 병업(病業) 문제를 좀 말하겠다. 이 역시 줄곧 법을 깊게 배우지 못한 우리 많은 수련생을 곤혹스럽게 하는 문제이다. 하지만 나는 책 속에 이미 써넣었다. 바로 우리 수련하는 사람이 어떻게 병을 대하는가 하는 문제이다. 나는 그것을 다시금 다른 한 측면에서 말하겠다. 사실 우리 연공인은 속인과 함께 섞일 수 없다. 여러분 알다시피 과거 옛날에 그 화상(和尚)

이 출가하기만 하면 사람들은 그를 속인으로 보지 않았는데, 그는 이미 절반은 신(神)이다. 그 사람과 신(神) 사이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사람에게는 정(情)이 있고, 정은 또한 대단히 중요하다. 사람은 곧바로 이 정을 위해 세간에서 살고 있으며 이 정이 없다면 당신은 세간에서 생활할 수도 없다. 당신이 무엇을 즐기거나, 무엇을 애호하거나, 당신이 어떻게 기뻐하거나, 당신이 어떻게 화를 내거나, 육친의 정(親情)이거나, 부부의 정이거나, 자식의 정이거나, 당신이 이것을 하려고 하거나 하려고 하지 않거나, 당신이 이런 일을 즐기거나 즐기지 않거나, 하는 일체 일들, 이것이 모두 사람의 정이다. 이 정 없다면 곧 속인 사회가 없다. 이 정(情)의 상태에서, 사람이 속인에 부합되는 이 상태 중에서 한 일체 일을 당신은 잘못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왜 과거에 역대로 많은 사람이, 사람이 인식한 것은 모두 잘못된 것이라고 하였는가? 이 말을 한 사람은 이미 속인이 아니며 그들은 다른 한 경지 중에서 사람을 보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당신은 속인 중에 있기 때문에 당신은 그가 잘못된 것이라고 말할 수 없다. 나는 어제 속인, 이 사회는 대단히 좋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것 역시 전체 우주가 위에서부터 아래로 관통해 내려온 한 층차

이며 가장 낮은 한 층차로서, 역시 우주의 특성, 대법의 가장 낮은 한 층차의 체현이다. 이 층의 사람이 없어서도 안 되는 것으로, 사람마다 모두 부처로 수련 성취하기는 불가능하다. 인류사회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도 불가능한 것으로 그것은 바로 이렇게 존재하고 있다. 다만 이 환경이 아주 특수하여 그것이 높은 경지 중의 사람을 육성할 수 있다. 그럼 당신이 높은 경지 중에 근거하여 사람을 보면 곧 같지 않다. 그러므로 나는 수련하는 사람인 당신은, 당신이 보고 접촉하고 체험하게 되는 일체 사물을 속인의 관념으로 가늠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당신은 곧 높은 표준으로 자신에게 요구해야 한다.

속인이 병이 있는데 병원에 가지 않고 약을 먹지 않는다면 그것은 속인의 이치에 부합되지 않으며 세간의 도리에 부합되지 않는바, 사람은 받아들일 수 없다. 사람은 병이 있으면 당연히 약을 먹어야 하고, 사람은 병이 있으면 당연히 병원에 가서 치료해야 한다. 사람은 이 문제를 바로 이렇게 대하는 것으로 이것은 잘못이 없다. 그러나 수련하는 사람으로서 당신은 속인과 혼동해서는 안 된다. 좀 심하게 말한다면 당신은 이미 사람이 아니다. 나는 방금 사람은 칠정육욕(七情六慾)이 있으며 정

을 위해 살고 있다고 말했다. 당신은 이러한 것들을 점차 담담하게 보고 이러한 것들을 점차 담담하게 내려놓을 것이며, 수련과정 중에서 당신은 그것을 완전히 버리게 될 것이다. 사람은 이것을 위해 살고 있지만, 당신은 이것을 위해 살지 않는바, 당신이 사람과 같을 수 있는가? 같지 않다. 그럼 기왕 이렇다면 당신은 왜 사람과 같지 않은 그런 높은 층차의 이치로 문제를 가늠하지 않고, 당신 자신과 당신이 부딪히는 일을 가늠하지 않는가? 바로 이런 것이기에 우리 수련인(修煉人)의 몸 어느 곳에 일단 불편함이 나타났다면, 내가 여러분에게 알려주는데, 그것은 병이 아니다. 그러나 속인이 느끼는 이 병의 상태는 수련인이 신체에서 업을 없앨 때에 표현되어 나오는 상태와 같아 속인은 구별하기가 몹시 어렵다. 그러므로 수련은 깨달음을 중시한다. 그것이 만일 같지 않다면 누구도 다 수련할 것인바, 깨달음의 문제가 없다. 그의 이 신체는 모두가 미묘한 일로서 비록 좀 괴로운 일이 나타날지라도 모두 신선처럼 표현된다면 당신이 말해 보라. 누가 또 수련하지 않겠는가. 여러 사람이 다 수련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며 역시 수련으로 치지 않고 또 그로 하여금 이렇게 수련할 수 없게 하는데, 깨달음이 없지 않은가. 그러므로 수련

은 필연적으로 이 진진가가(眞眞假假) 중에서 당신을 검증하며 당신이 이 문제를 어떻게 대하는지를 본다. 당신이 당신을 수련하는 사람으로 여기는지 아니면 자신을 평범하고도 평범한 속인으로 여기는지. 이는 이 사람이 수련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보는 것이 아닌가? 물론 말하자면, 표면적으로는 마치 이 평범하고도 평범한 사람처럼 속인과 다를 것이 없지만, 사실 당신은 수련하는 사람이다.

나는 어제 또 불법수련(佛法修煉) 문제를 말하였다. 수련의 일은 우주 중에서 가장 큰일이다. 사람이 나한(羅漢)·보살(菩薩)·불(佛)·도(道)·신(神)이 되는 그런 경지로 승화해 올라가려 한다. 온몸이 업력으로 가득 찬 사람이 신(神)으로 되려고 생각하는데, 당신이 말해 보라. 그것이 엄숙한 일이 아닌가? 당신은 아주 확고하게 이런 높은 표준으로 이러한 문제를 보아야 하며 정념(正念)으로 자신에게 요구해야 하지 않겠는가? 당신이 여전히 그 속인의 관점으로 이 문제를 본다면 당신은 바로 속인이 아닌가? 이처럼 엄숙한 일, 당신에게 부처가 되라고 하지만, 당신이 여전히 자신을 사람으로 여기며 당신이 여전히 사람의 이치로 이러한 일을 가늠한다면 그것은 안 되며 몹시 엄숙하지 못한 것으로서, 그

러면 수련할 수 없다. 그 불(佛)·도(道)·신(神)은 지
 금의 그 화상(和尚), 지금의 사람이 인식하는 것과 같
 지 않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그 부처나 신(神)은 속인의
 정이 없으며 또 속인의 사유방법과 사물에 대한 속인의
 인식, 그런 개념이 없다. 그는 완전히 다른 경지 중의 사
 유방법으로서, 사물에 대한 사람의 그런 사상개념·관념
 이 그들에게는 다 없다. 지금의 사람은 부처, 보살을 인
 화(人化)하였으며 인정화(人情化)하였고 인미(人味)
 화하였다. 어떤 사람은 절에 가서 부처에게 절을 올리고
 향불을 피우는데, 그는 수련하고자 경의를 드리러 가는
 것이 아니라 구하러 간다. 집착하고 부처에게 빈다. 당
 신이 생각해 보라. 이것은 얼마나 좋지 않은 마음인가!

과거에 사람이 부처에게 절을 함은 다만 숭배하고 공
 경(崇敬)할 따름이었다. 부처님께 경의를 표하러 왔거
 나, 부처님께 절을 올리러 왔거나 혹은 부처수련을 하러
 온 것이다. 부처는 위대하므로, 부처는 거시적으로 인류
 를 보호하는 것이지, 당신 자신이 가서 구하는 무엇을
 겨냥하지 않는다. 그러나 지금의 사람은 그렇지 않다.
 과거의 사람은 부처, 보살을 생각만 해도 모두 정념(正
 念)을 갖고, 숭경(崇敬)한 심리를 갖고서야 비로소 부
 처, 보살 그 글자를 담론하였으며 매우 뛰어나고 위대하

다고 여겼다. 그러나 지금의 사람, 그는 이런 정념이 없으며 그는 제멋대로 입만 벌리면 부처를 논하는데, 마치 부처, 보살이 입에 발린 것처럼 제멋대로 말한다. 심지어 그 불상을 제멋대로 아무 곳이나 마구 새기고 마구 그리며 또한 아무 곳이나 놓아둔다. 아미타불, 성모 마리아의 초상도 무덤에 걸어 놓는다. 정말로 사람이 신(神)에게 그 죽은 사람을 지키게 하는 것과 같게 되어버렸으며 사람이 신(神)을 시켜 어떻게 하라는 것으로 되었다. 그런 마음이 아닌가? 여러분 생각해 보라. 얼마나 신성하고 위대한 신(神)인가. 손을 휘젓는 사이에 전 인류를 행복하게 할 수 있는가 하면, 손을 휘젓는 사이에 전 인류로 하여금 전멸(覆滅)하게 할 수 있는데, 당신이 그를 이렇게 대한단 말인가? 만일 그들이 사람에게 대하여 자비하지 않다면, 사람이 무지하여 나쁜 짓을 할 때 일순간에 사람을 휘멸하여 종적도 없게 했을 것이다. 사람 그는 지금 이런 것을 이해하지 못하므로 그는 감히 이렇게 한다. 사실상 그는 부처를 비방하고 있다. 바로 내가 저번에 말한 것과 같다. 저번에 여러분에게 말했다. 메뉴 속에 무슨 ‘불도장(佛跳牆)’이란 것이 들어있다. 부처는 색미(色味) 집착이 없는데, 이 향기로운 냄새를 맡기만 하면 담 저쪽에서부터 뛰어넘어 와서 먹는

다는 것이다. 이것은 가장 악랄하게 부처를 비방하는 것이 아닌가? 또 무슨 ‘나한재(羅漢齋)’라든가 등등이 있다. 그 나한 역시 속인의 어떠한 색미 집착이 없다. 당신이 그 음식을 나한이 먹는 ‘나한재’라고 말하는데, 당신은 그를 욕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가 속인 중의 음식을 보면 더러운 것이다. 그러므로 그의 관념은 사람과 모두 같지 않다. 지금의 사람은 금전과 욕망을 위해 신(神)과 부처에 대하여 이런 상태를 조성하였다. 불(佛)·도(道)·신(神), 그들은 사람의 관념이 없으며 속인의 이런 사유방법이 없다. 그러나 내가 방금 말한 것처럼 사람이 부처에게 빌 때, 그 숭경(崇敬)하고 수련하려는 마음을 품고 가서 부처에게 절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가서 부처에게 빌고 있다. 나를 보우하여 아들을 낳고, 돈을 벌고, 재난을 없애고, 난(難)을 풀어달라고 하는데, 모두 이런 마음이다. 그러나 부처는 이것을 상관하지 않으며 부처는 근본에서부터 사람을 제도한다. 그럼 당신으로 하여금 다 신선과도 같이 속인 중에서 편안하고도 편안하고 돈이 있을 만큼 있고 어떠한 재액, 어떠한 난(難)도 다 없다면 당신은 정말로 부처 수련을 하려 하지도 않을 것이고, 당신은 신(神)이 되려고 생각하지도 않을 것이다. 당신은 지금 곧 신(神)인데, 얼마나

편안한가. 이럴 수 없다.

사람은 생생세세 모두 업을 짓고 있는바, 자신의 업력이 자신의 다음 일세, 이번 일세의 곤란, 고통, 마난(魔難), 궁핍(缺錢), 다병(多病)을 축성(促成)한다. 당신은 업력을 갚은 후에야 비로소 행복할 수 있으며, 비로소 좋게 변할 수 있다. 나쁜 짓을 하고 갚지 않겠다고 하는 이것은 안 되는 것으로, 우주에는 이런 이치가 존재한다. 저번 일세(一世)의 일과 다음 일세의 일을 당신은 마치 두 사람의 일로 생각하는데, 사실 남이 당신의 생명을 볼 때는 당신 생명의 과정 전반을 본다. 당신이 한숨 자고 나서, 어제 한 일과 오늘 한 일은 별개라며, 어제 일을 자신이 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데, 그것은 다 당신 한 사람이 한 것이다. 그들은 생명을 이렇게 본다. 그래서 방금 나는 확대해서 이런 뜻을 말했는데, 속인의 관념으로 이러한 문제를 대할 수 없다. 속인은 병이 있게 되면 곧 약을 먹어야 하지만, 수련하는 사람이라면, 나 역시 당신에게 꼭 약을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하는 것은 수련이 아닌가? 깨달음을 말하지 않는가? 또 당신으로 하여금 전부 다 깨달으라는 것이 아니고, 당신이 깨달을 수 있는 만큼 그 만큼 깨닫는 것이다. 당신은 안 된다며 “나는 이 마음을

내려놓지 못하겠다. 나는 아직도 약을 먹어야겠으며 연공을 한다 해도 나는 역시 약을 먹어야 하겠다.”라고 한다. 그러나 나는 이 문제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나는 다만 그의 오성(悟性)이 낮음을 매우 애석하게 생각하는데, 그는 이 한고비를 넘기지 못했다. 그는 마땅히 제고해 올라와야 하며 원만을 향해 크게 한 걸음 내디뎌야 했지만, 그는 이 한 걸음을 내딛지 못했다. 나는 다만 이를 애석해할 뿐이지, 이 사람이 안 되겠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며 또 이 사람이 약을 먹었기에 절대로 수련할 수 없다고 말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깨달음은 사람마다 다 같지 않으며 근기도 사람마다 다 같지 않기 때문이다. 당신이 제고하여 올라와야만 당신은 비로소 이 한고비를 지날 수 있으며, 더욱 새로운 인식이 있을 수 있다. 당신은 제고하여 올라오지 못하고, 이 한 가지 일을 투철히 깨닫지 못하는데, 이것은 당신이 이 한 가지 일에서 여전히 속인이라는 것을 설명한다. 하지만 또 이 사람을 완전히 안 된다고 말할 수는 없다.

나는 또 약을 먹는 것과 업을 없애는 것 사이의 관계를 말하겠다. 방금 나는 바로 생생세세(生生世世)에 쌓아 내려온 업력으로 말미암아 병이 축성(促成)된다고 말했다. 그 업이란 어떤 것인가? 다른 공간 속에 존재하

고 있는 그 업, 그것의 미립(微粒)이 더욱 작을수록, 다시 말해서 그 과립(顆粒)이 더욱 작을수록 그것의 힘은 더욱 크다. 만약 그것이 우리 이 공간 중으로 침투해 오면 바로 미생물이며 가장 미시적인 병독이다. 그렇다면 당신이 말해 보라. 그 병, 그것이 우연한 것인가? 지금의 의학, 지금의 과학으로 그것을 인식하려 해도 인식할 수 없고 다만 현존의 분자로 조성(組成)된 가장 큰 층의 입자로 구성(構成)된 이 한 층 표면의 공간 중에서 표현되어 나온 일종 현상이라고 인식할 뿐이며, 그것은 곧 병이고 종양, 염증이나 어떠한 것이라고 여긴다. 그러나 현재의 과학, 그것은 그에게 병을 조성한 근본 원인이 무엇인지 보아내지 못하며 그는 그것을 속인이 인식할 수 있는 이런 이치로 모두 설명한다. 물론 사람이 병을 얻을 때, 흔히 모두 그것으로 하여금 세간 이 한 층의 이치에 부합되게 하며 흔히 세간에서 이 병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외인조건(外因條件)이 모두 있게끔 하므로, 이것은 마치 이 세간의 이치에 아주 부합되는 것 같다. 사실 그것은 다만 그것으로 하여금 이 세간의 이치, 이 세간의 그런 상태에 부합되게 하기 위해 나타난 외적인 조건일 뿐이다. 그러나 병의 근본 원인은 이 공간에서 생겨나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지금 약

을 먹는 것은 바로 이 병, 표면의 병독을 죽이는 것이다. 약은 정말로 표면의 병독을 죽일 수 있다. 하지만 연공인의 공(功)은 자동으로 병독과 업력을 소멸한다. 그러나 이 약, 그것이 이 표면적으로 다른 공간에서부터 침투해 온 병독을 죽일 때, 어떤 물체든 모두 살아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쪽의 병독, 다시 말해서 그쪽의 업력이 곧 알고서, 건너오지 않는데, 당신은 약을 먹어서 나왔다고 여긴다. 그러나 내가 당신에게 알려주겠다. 그것은 도리어 거기에 쌓인다. 사람은 생생세세에 모두 이것을 쌓는(積攢)데, 일정한 정도로 쌓이면 이 사람은 곧 구할 수 없게 되며, 죽을 때는 곧 철저하게 휘멸된다. 생명을 잃되 영원히 잃는다. 바로 이처럼 두렵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이와 같은 관계를 말했다. 사람, 당신에게 약을 먹지 말라는 것이 아니다. 속인은 병에 걸리면 꼭 병원치료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수련하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당신의 신체를 정화(淨化)해야 하지 않는가? 당신의 신체는 마치 나무의 나이테와도 같이 생생세세인데, 그 가장 중심에 업력이 있으며 층층 모두 업력이 있다. 당신이 수련할 때, 나는 바로 이 업력을 줄곧 중심에서부터 밖으로 민다. 밀고, 밀고, 밀고, 밀어 당신

에게서 업력을 철저히 밀어 내보낸다. 전부 우리 신체의 표면으로 갈 수는 없다. 전부 다 신체 표면으로 간다면 당신은 견뎌내지 못한다. 다만 일부분이 신체 표면으로 나가는데 당신은 갑자기 병이 온 것으로 여기며 괴롭고 고통스러워 견디지 못한다. 당신은 견뎌내지 못하고 자신을 속인으로 간주하여 약을 먹는다. 그렇다면 당신은 약을 먹도록 하라. 우리는 또 속인에게 약을 먹을 수 없다고 말하지 않았다. 우리는 다만 당신의 깨달음이 부족하여 이 고비를 잘 넘기지 못했다고 말할 뿐이다. 우리는 또 당신이 수련하므로 약을 먹지 못한다고 규정하여 말하지 않았으며, 이렇게 엄격하게 규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나는 여러분에게 법 중의 이치를 말하겠다. 당신이 이 업력을 내보내려고 생각하면서 당신이 약을 먹어 또 되돌아 짓눌리게 한다면, 어떻게 당신의 신체를 청리해 주겠는가? 물론 우리는 다른 공간에서 당신을 도와 모두 밀어 내보낼 수 있다. 그러나 이 우주의 법 테두리 안에는 한 가지 이치가 있다. 당신에게서 업을 없애 줄 때 당신은 반드시 이 일에서 고통을 감당해야 한다. 당신이 예전에 다른 사람에게 만들어 준 고통을 당신은 마찬가지로 감당해야 한다. 그러나 수련인으로 말하자면 당신으로 하여금 같은 방식으로 전부를 감당하게 할 수 없

다. 왜냐하면, 죽어버릴 수도 있는 것으로, 그러면 수련할 수 없기 때문이다. 수련하는 사람으로서 원만에 이른 후, 침해를 받은 생명에 복으로 보상한다. 하지만 당신은 정신적인 고통, 그 일부분을 감당해야 한다. 남에게 빚진 이 부분을 감당하는 동시에 당신은 이 업을 갚게 된다. 왜냐하면, 당신이 고통스러웠기 때문인데, 문제는 고립되어 있지 않다. 이 업을 갚는 동시에 당신이 고통 속에서 자신을 수련하는 사람으로 간주하고 그것을 병으로 여기지 않을 때, 당신은 이 문제에서 확실히 고층차의 인식이며 속인의 생각이 아니다. 당신의 경지, 사상이 이 문제에서 제고해 올라온 것이 아닌가? 곧바로 이 문제가 아닌가? 동작만 연마하여 사람이 수련하여 올라온다는 그것은 웃음거리이며, 동작은 원만의 보조수단이다.

사람의 마음을 수련하여 올라오지 못하면 영원히 층차를 제고할 수 없다. 또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경만 읽으면 부처로 성취되는 것이 아니다. 또 어떤 사람은 얼마간 좋은 일을 하면 부처로 수련될 수 있다고 여기는데, 그것은 모두 웃음거리이다. 모두 유위(有爲)적인 범으로서 당신이 착실하게 수련하지 않으면 경을 읽어(念經)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수련하지 않으면 전혀 부처

가 될 수 없다. 석가모니 부처가 당시 법을 전할 때 경서가 없었으며, 예수가 당시 그의 법을 전할 때도 역시 경서가 없었고 사람들은 단지 착실하게 수련할 뿐이었다. 당신이 이 마음을 수련하지 않고 당신이 올라올 수 있겠는가? 당신이 그 경지의 요구에 도달하지 못하고 당신이 올라올 수가 있겠는가? 속인의 칠정육욕, 각종 집착심, 돈에 대한 욕망이 부처가 되려는 마음보다 더 중한데, 당신이 하늘로 올라갈 수 있겠는가? 그것은 전혀 불가능하다. 나는 여러분이 다 알아들었으리라 생각한다. 다시 말해 수련하는 사람은 이미 초상(超常)적인 사람이다. 그렇다면 초상적인 사람으로서 신체적인 괴로움 이런 상태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 속인은 병을 가지고 있지만, 당신의 그 신체는 내가 당신을 도와 업을 밖으로 밀어 내보내고 있다. 표면까지 밀었을 때, 사람의 신체 표면의 말초신경은 가장 민감하므로 마치 병에 걸린 것과 같이 곧 신체가 편안하지 않게 느껴질 뿐만 아니라 어떤 것은 아주 심하게 표현되는데, 이럴 수 있다. 기왕 이럴 수 있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라. 당신이 당신을 속인으로 간주하고 당신이 그것을 병이라고 인식한다면 물론 가능한데, 당신은 약을 먹도록 하라. 이 한고비를 당신이 넘기지 못하면, 당신은 최소한 이 한 문제에서 속인이

다. 당신이 어느 때에 이 한고비를 넘기게 되면 이 한 문제에서 당신은 바로 초상(超常)적인 것이다. 그러나 당신이 부처로 수련 성취하려고 생각한다면 당신의 인식은 모든 문제에서 모두 초상적이어야 한다. 당신이 그 한마음을 내려놓지 못하면 당신은 이 한고비를 넘길 수 없으며 당신은 곧 원만에 이를 수 없다. 그러므로 당신이 이 기회를 놓친다면 이 한고비를 곧 넘기지 못할 것이다. 왜 우리의 어떤 보도원, 노수련생은 아주 명백하여 수련생이 약을 먹는 것을 보기만 하면 그는 조금해하는가. 물론 그들은 나처럼 이렇게 대처할 수 없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모두 너무나 잘 알기 때문인데, 그는 곧 “당신은 약을 먹어서는 안 됩니다.”라고 말하며 어떻게 하라고 그에게 알려준다. 물론 그는 또 깨닫지 못하며 “내가 연공하는데 왜 나에게 약을 먹지 말라고 하는 것 입니까?”라고 한다. 그가 깨닫지 못하면 이 일은 곤란하다. 우리는 여러분이 약을 먹지 못한다고 강경하게 규정하지 않았다. 나는 다만 약을 먹는 것과 약을 먹지 않는 것에 대한 수련인으로서의 이치를 말했을 뿐, 속인이 약을 먹지 못한다고 말하지 않았다.

우리 이 법의 유전(流傳)은 바로 세간에서 수련하는 것으로서 수련하는 사람 개개인이 모두 부처가 될 수 있

는 것은 아니다. 어떤 사람은 매우 정진(精進)하며 매우 확고하다. 그렇다면 그가 원만을 향해 나아가는 노정은 빠를 것이다. 어떤 사람은 아마 그리 정진하지 않을 수 있는데, 그가 원만을 향해 나아가는 노정은 아주 느릴 것이다. 어떤 사람은 수련하는 동안 마는 동안, 믿는 동안 마는 동안 하는데, 그렇다면 그는 아마 원만에 이를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수련으로 말한다면 그는 아마 헛되게 수련함은 아닐 것이다. 이 한 세(世)에 수련 성취하지 못해 안 된다면 다음 한 세를 보아야 한다. 어찌면 그는 다음 한 세에 될 수도 있다. 어찌면 그가 수련하려고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렇다면 이 대법 중에서 그는 필경 일부 마음을 내려놓았는가 하면 또 불법(佛法)도 들었고 또 속인보다 수련함이 관찮았으므로 그는 아마 그의 다음 한 세에 복으로 구성될 수 있어 그는 내세에 큰 부자가 되거나 큰 벼슬을 할 수도 있다. 그러한 것은 다만 복으로 바꿀 뿐이다. 왜냐하면, 그가 수련하여 올라가지는 못하지만, 그 역시 수련이 헛될 수는 없기 때문인데, 바로 이 이치이다. 내 생각에 수련인으로서 오늘 법을 들을 수 있게 되었으므로 나는 여러분이 모두 끝까지 수련하기를 희망한다. 불법은 사람마다 모두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사실 내가 여러분에게 말

하겠는데, 미국, 이 지방은 비교적 특수하다. 나는 원래 2년 전에 이미 설법을 그쳤지만, 미국에는 중국 사람이 많고 게다가 미국 사람 역시 선량한 사람이 많기에, 나도 그들이 법을 얻게 하려고 생각하는데, 사실 체계적으로 말하는 것은 아니고 상황에 맞추어 말하고 있다. 왜냐하면, 책이 이미 있으므로 모두 배울 수 있기 때문이다. 보도소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따라서 함께 연마할 수 있다. 한 사람이 불법을 듣고자 한다면 몇천 년 만에 한 번인 것으로 당신에게 또 그런 기회와 인연이 없을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육도윤회로 전생(轉生)할 때 사람은 같지 않은 동물·식물·물질로 전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몇백 년, 천여 년에 사람으로 한 번 전생할 수 있는데, 이 몇백 년, 몇천 년의 전생 중에서 당신은 또 그 한 시기에 마침 사람이 되어야 하고, 그런 다음 당신은 또 그 지방에 전생되어 이 법을 만날 수 있어야 하며, 또 세간의 그 시간에 이런 기회와 인연이 있어 그를 들을 수 있으며 이 수련반에 참가할 수 있어야 한다. 물론 많고도 많은 이러한 기회와 인연이 모아져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당신은 비로소 이 법을 얻을 수 있는 것으로, 그리 쉬운 것이 아니다.

내가 말한 것은 불법으로서, 여러분도 모두 확실히 알

리라 생각한다. 나는 속인 중의 이치를 말한 것이 아니고 또한 내가 말한 많은 문제는 속인 중에서 여태껏 말한 사람이 없었으며 또한 속인 중의 지식이 아니다.

이 약을 먹는 문제를 나는 방금 그것을 또 한 번 말했다. 왜냐하면, 이 문제가 각 지역에서 모두 비교적 두드러지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은 대법을 파괴할 생각으로 약을 먹지 않는 문제에 대하여 무슨 “이 공(功)을 연마하면 우리에게 약을 먹지 못하게 한다.”라고 말한다. 사실 나는 당신에게 약을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 물론 우리 이 자리에 있는 보도원도 사업 방법에 주의해야 하며 사람에게 약을 먹지 말라고 강요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다만 이치를 분명하게 말할 뿐이다. 그가 수련하려고 생각한다면 그는 수련하고, 그가 수련하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독약(毒藥)을 먹는다 해도 모두 속인 중의 일로서, 그의 이 마음이 움직이지 않으면 누구도 방법이 없다. 우리는 단지 연분을 말하며 선(善)을 권할 따름이다. 사람을 억지로 변하게 함은 수련이 아니다.

나는 한 가지 문제를 더 말하겠다. 오늘 오후 시간을 모두 여러분에게 주었기 때문에 내가 말을 마친 다음 여러분은 문제를 제출할 수 있으며 내가 다시 여러분에게

해답해 주겠다. 중국 대륙에서 ‘문화대혁명’을 거친 이후에 태어난 젊은 사람들은 부처라든가, 보살이라든가, 신(神)에 대한 이해가 아주 얕다. 내가 전하는 것은 불법이다. 어떤 사람은 그가 좋은 것을 알고 있지만, 일부 용어는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불가(佛家)의 일부 일에 대하여 아는 것이 너무도 적은 것은 불가에 대한 인식이 명확하지 못해서다.

다음으로 나는 아미타불(阿彌陀佛)과 석가모니 부처에 대해 간단히 말하겠다. 내가 말하는 것은 경서와 같지 않다. 내가 말하는 것은 석가모니 부처도 2,500년 전에 말한 바 있는 것이다. 그러나 당시의 화상(和尚)은 후세사람에게 전하지 않았다. 경서는 석가모니 부처가 세상을 떠난 500년 이후에야 비로소 체계적으로 정리해 내놓은 것이다. 여러분 알다시피 500년 전에, 중국은 바로 원(元)나라 시기였는데, 칭기즈칸이 당시에 무엇을 말했는지 지금 누가 알고 있는가? 그러나 필경은 불법이기에 끊어져 불완전한(斷章不全) 것과 구전(口傳)으로 줄곧 유전되었다. 그러나 그는 흔히 부처가 한 그 말의 시간·지점·상황, 함의를 잃어버릴 수 있으며 각기 다른 사람에 대하여 말한 이런 요소가 모두 존재하지 않는다. 유전과정 중에서 원만에 이르지 못한 사람은 모두

사람의 관념이 존재한다. 사람은 모두 자신의 관념에 부합되는 것을 첨가해 넣기를 즐겨 이 불법을 고치게 되었다.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은 삭제해 버리고, 천천히 또 부처·보살·이러한 신(神)을 인정화(人情化)했다. 그는 자신의 것에 부합되며 이해할 수 있는 것, 그것을 유전시켜 왔다. 자신의 심리요구에 부합되지 않고 자신의 그 관념에 부합되지 않는 것이면 그는 말하기 싫었으므로 곧 유전되어 내려오지 못했다.

먼저 석가모니 부처에 대해 말해 보겠다. 석가모니 부처는 역사적으로 확실히 그러한 사람이 있었다. 2,500여 년 전 고인도(古印度)에서 수련하는 사람에게 그의 그 한 불문(佛門)의 수련방법을 남겨주었는데, 계(戒)·정(定)·혜(慧)라고 한다. 불교라고 말하는 그것은 단지 지금의 사람이 정치하느라 부르게 된 이름이다. 석가모니 부처는 종교를 승인하지 않았으며 그도 자신이 종교라고 말하지 않았는데, 사람들이 그를 종교라고 부른다. 그는 다만 불법(佛法)을 전했으며 그의 그 한 문(門)의 원만에 이르는 방법을 말했는데, 계·정·혜라고 한다. 물론 이 속의 구체적인 일은 경서 중에 모두 기재되어 있기에 나는 더 말하지 않겠다. 여러분이 다 알다시피 아미타불은 극락세계(極樂世界)가 있고, 약사불

(藥師佛)은 유리세계(琉璃世界)가 있으며, 부처마다 모두 각각의 천국세계를 주재하고 있다. 이 부처·보살·여래는 우리 중국 사람의 용어이다. 여래를 하늘에서는 그를 보고 법왕(法王)이라고 부르는데, 바로 그가 이 천국을 주재한다. 그러나 그의 통치방법은 사람처럼 무슨 행정수단, 법률로써 관리하는 것이 아니며 이러한 것들이 없다. 그는 완전히 자비(慈悲)와 선념(善念)으로 한다. 당신들 역시 모두 것처럼 좋고 그 표준에 부합되어야만 당신은 비로소 그 세계에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부처는 모두 자신이 주재하는 세계가 있다. 그러나 종전에는 누구도 석가모니 부처가 어떤 세계를 주재한다는 말을 듣지 못했으며 누구도 석가모니 부처가 원래 누구였는지 모르지 않는가? 누구도 석가모니 부처의 세계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지 않는가? 어떤 화상(和尚)은 석가모니 부처가 사바세계(娑婆世界)에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내가 여러분에게 알려주겠다. 사바세계는 어디인가? 우리 삼계(三界) 내에 있다. 그것이 어찌 부처의 세계가 될 수 있는가? 얼마나 더러운 곳인가! 모두 그곳을 떠나려고 하는데, 어찌 부처의 세계가 될 수 있는가? 이 속을 화상(和尚)도 똑똑히 말하지 못하며 종교 안에도 기재되어 있지 않다. 사실 석가모니 부처가

온 층차는 아주 높다. 이 우주는 굉장히 큰 것으로서 잠시 후 나는 그의 구조, 우주의 구조를 말하겠다. 석가모니 부처가 내려오기 전에 있었던 가장 낮은 층차, 그 층차에서 직접 사람으로 전생된 그 층차는 제6층 우주에 있다. 제6층천(第六層天)이 아니라 제6층 우주이다. 잠시 후 나는 이 우주가 얼마나 큰가를 말하겠다.

제6층 우주에 그의 천국이 있으며 그가 거기에서 천국을 창조하였는데, 대범 세계(大梵世界)라고 부른다. 다시 말해서 석가모니 부처는 대범 세계에서 인간세상으로 전생(轉生)해 온 것이다. 그는 법을 전하고 사람을 제도하며 그의 제자를 제도하기 위해 대범 세계에서 인간으로 전생해 왔다. 석가모니 부처에게 제도되는 제자는 모두 최저한 6층 우주 이상으로 수련해야 했는데, 이처럼 높게 수련해야 했다. 그러므로 석가모니 부처는 내려온 이후 줄곧 제자들이 전생하여 수련함을 지켜보고 있으며 아예 그의 세계로 되돌아가지 않았다. 삼계(三界) 내에 한 곳이 있는데, 대범천(大梵天)이라고 부른다. 그는 바로 이곳에 있다. 대범천 역시 그가 지은 이름이다. 그는 대범 세계에서 왔기 때문에 그는 그것을 대범천이라고 부르며 그는 그 속에서 그의 제자를 지켜보고 있다. 그의 제자에게는 모두 표지를 해 주었는데,

그가 수기한 것은 모두 ‘근(만)’자 부호이다. 모두 수기를 받은 제자에 속한다. 어떤 사람이 석가모니 부처의 제자이고 어떤 사람이 아닌지 고층차에서 보기만 하면 곧 알 수 있다. 그들은 높이 수련해야 하며 석가모니 부처는 그들을 것처럼 높은 경지 중으로 제도하려고 했기 때문에 일세(一世)에 수련 성취할 수 없었다. 이처럼 반복적으로 2,500여 년 수련했는데, 지금은 최후 한 차례 원만에 직면해 있다. 이 일세에서 원만에 이른 후 그는 자기 제자를 모두 데리고 가는데, 모두 사바세계를 떠나게 된다. 법을 얻은 우리 대법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석가의 수기를 받은 제자이다. 하지만 석가의 수기(授記) 제자는 대부분 화상(和尚)이 많은데, 속인 중에도 있다. 속인 중의 많은 사람이 모두 이미 우리 이 법을 얻었다. 사실 여기까지 말한 김에 나는 또 여러분에게 알려주겠다. 내가 전한 이 법 역시 당신으로 하여금 반드시 우리法輪世界(파륜쓰제)로 가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내가 전한 것은 전체 우주의 이치이다. 나는 이처럼 큰 것을 전하므로 그들 역시 모두 이 법을 얻으려고 한다. 왜냐하면, 새로운 우주는 이미 구성되었으며 법이 건곤을 바로잡음(法正乾坤)에, 우주의 법에 동화되어야만 비로소 되돌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석가모니 부처가 체계적으로 일찍이 그의 제자에게 잘 배치해 놓은 것으로 그는 이날을 알고 있다. 나는 또 많은 부동(不同)한 세계와 다른 정법문(正法門)의 제자들이 대법 중에서 법을 얻고 있음을 알고 있다. 석가모니 부처의 제자는 대다수가 한인지역(漢地)에 있다. 인도(印度)에는 없다. 하지만 세계 각지에도 일부분 흩어져 거주하는데, 아주 적다. 대부분은 한인지역에 있는데, 한인지역이란 바로 중국 대륙이다.

나는 방금 석가모니 부처와 그의 제자의 상황을 간단히 소개했다. 다음으로 나는 또 아미타불에 대해 말해보겠다. 사람들은 아미타불을 담론할 때 모두 극락세계가 있음을 알고 있다. 극락세계가 어디에 있는가? 아미타불은 누구인가? 아미타불에 대하여 불교의 경서 중에 소개가 있으므로 이 부분을 나는 역시 말하지 않겠다. 나는 경서 중에 적혀 있지 않은 이 일부분을 말하겠다. 여러분 알다시피 사람들은 부처가 말했던 우주의 부분적 구조, 어떤 지방에서 수미세계(須彌世界)라고 부르는 것을 대대로 전하고 있는데, 다시 말해서 수미산지설(須彌山之說)이다. 우리 현재 지구와 삼계 내외의 천체는 수미산 남부에 있으며 남섬부주(南瞻部洲)라고 부른다. 이 수미산(須彌山)과 지구(地球)는 그것의 남부

에 있다. 어떤 사람은 이해하기를 “이 수미산은 히말라야 산이 아닌가? 당시의 인도가 남섬부주 아닌가?”라고 한다. 그것은 별개의 일이다. 그는 부처이기에 그의 말은 세간의 인식으로 하는 말이 아니며 그의 이치는 신(神)의 각도에 서서 말한 것이다. 그의 사상은 사람의 이 기점에 있는 것이 아니다.

이 수미산(須彌山)은 확실히 존재한다. 그렇다면 왜 사람은 그것을 보지 못하는가? 망원경으로도 그것을 보지 못하는가?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의 가장 큰 층의 분자로 구성된 입자로 구성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내가 여러분에게 알려주겠다. 분자로 구성된 입자, 원자로 구성된 것은 말할 나위도 없이, 바로 분자로 구성된 것도 우리 가장 표면적인 이 입자보다 더 작은 층의 입자로 구성된 물질이라면 사람은 보지 못한다. 그러나 이 수미산은 원자로 구성된 것이다. 그러므로 사람은 전혀 보지 못한다. 하지만 최근에 천문을 연구하고 우주과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한 가지 현상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들은 우주 중에서 볼 수 있는 성계(星系)가 얼마나 있든지 간에 그 한 곳에 가면 더는 성계가 없는 것을 발견했다. 이쪽에는 모두 성계이며 많고도 많은 은하계이다. 그러나 어느 곳에 이르면 일제히 없어져 버리는데

그들은 우주 벽이라고 부르지만, 그는 이것이 무엇 때문
인지를 해석(解釋)하지 못한다. 왜 그곳에는 없는가?
사실 바로 수미산에 의해 막힌 것이다. 이 산이 대단히
크기 때문이다. 얼마나 큰가? 그것의 꼭대기는 제2층 우
주의 중심으로서 우리 이 소우주를 벗어났으며 대단히
크다. 그러므로 그렇게 큰 산을, 사람은 그것을 전혀 상
상할 수 없으며 그것의 다른 몇 개 부위를 보려고 하는
것은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하다. 지구(地球) 이 한 알의
작은 원구(圓球)에서도 당신이 지구의 저쪽에서 북경을
보려고 한다면 전혀 볼 수 없다. 그것은 그렇게 큰 산이
다. 당신은 그것이 얼마나 큰지 전혀 상상할 방법이 없
다. 그 역시 수미산의 다른 몇 개 부위에 또 다른 세계가
있는 것을 말했는데, 이것을 우리도 많이 말하지 않겠
다.

그럼 왜 이런 산이 있는가? 우리 이 수미산을 이야기
해 보자. 내가 여러분에게 알려주겠다. 사실 이 수미산
은 바로 아미타불(阿彌陀佛)과 관음보살(觀音菩薩),
대세지보살(大勢至菩薩)의 한 형상의 표현이다. 또 완
전히 그를 형상이라고도 말할 수 없다. 왜냐하면, 그들
은 부처이며 사람의 형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모여서는 형상을 이루고 흩어져서는 물질로 될 수 있지

만, 그는 형상이 있다. 그가 흩어져 물질이 되는 것은 그의 변화 때문이다. 사람은 부처를 볼 수 없으므로 부처는 신체가 없다고 말한다. 그의 신체는 원자로 구성된 것으로서 물론 당신은 그의 신체를 보지 못하는바, 당신이 그는 신체가 없다고 말하는 것도 맞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수미산, 그것이 원자로 구성된 것이라면 우리 사람의 눈은 그것을 볼 수 없다. 그러나 어떤 의미에서 말한다면 그가 아미타불과 관음보살, 대세지보살을 대표한다. 그러므로 이 수미산은 하나가 아니라 셋이며 그것도 동시에 운동하고 있다. 이 물체가 마치 죽어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우리 이 물질 공간을 제외하고는 어떤 공간의 물체든지 다 운동하고 있다. 여러분 알다시피 분자는 운동하고 있으며 원자도 그러하며 일체는 모두 운동하고 있다. 그 전자는 원자핵을 둘러싸고 운행하고 있으며 일체는 모두 운동하고 있다. 물질은 운동하는 것이다. 그 수미산, 그것은 어떤 때에 한 갈래의 직선을 이루고 어떤 때에는 삼각형을 이루며 그것은 변화한다. 사람들이 부동(不同)한 각도에서 그것을 볼 때, 부동한 상태에서 그것을 볼 때에 그것의 진실한 면모를 보아내지 못할 수도 있다. 만일 그것이 일자형으로 배열되면 당신이 본 것은 하나의 산이다. 어떤 수련하는 사람이

이전에 볼 수 있었는데 말하는 것이 같지 않음은 바로 그가 그것의 구체적인 상태를 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럼 그것이 아미타불과 관음보살, 대세지보살의 상징이라면 그것은 무슨 역할을 하는가? 사실 여러분이 말한 극락세계는 바로 수미산 속에 있다. 그러나 이 산은 우리 사람의 현존 물질에 대한 인식, 이런 개념과 같지 않으며 수미산 이하는 모두 물(水)이다.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에 나는 이만큼 말하겠다.

다음으로 또 우주 공간의 구성에 대해 좀 말해 보겠다. 이 우주가 얼마나 큰지를 사람의 언어로 그것을 말해 내기는 몹시 어렵다. 왜냐하면, 사람의 언어로는 도달하지 못하고 말해도 당신의 머리가 받아들이지 못하며 당신이 이해하지도 못하기 때문이다. 그것은 너무나도 방대한 것이며 크기로는 그야말로 불가사의한 것으로, 신(神)으로서도 불가사의한 것이다. 그러므로 우주가 얼마나 큰지 명확하게 말할 수 있는 불(佛)·도(道)·신(神)은 하나도 없다. 내가 방금 말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식하는 우주는 사실 바로 소우주 범위를 말하는 것이다. 내가 지난번 미국에 왔을 때 말한 바 있다. 27억이 넘는 은하계 이런 성계(星系), 대략 이 숫자인데 30억이 채 못 되는 이런 하나의 범위가 하나의 우주를

구성한다고 말했다. 이 우주는 외각(外殼)이 있고 변두리가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것이 바로 우리가 통상적으로 말하는 우주이다. 그러나 이 우주 밖을 벗어나면 더욱 먼 곳에 또 우주가 있다. 일정한 범위에 이러한 우주가 또 3천 개 있다. 이 3천 개 우주의 밖에는 외각이 있는 것이며 또 제2층 우주를 구성하였다. 제2층 우주 밖에 또 대략 3천 개의 이러한 제2층 우주처럼 이렇게 큰 우주가 있으며 밖에는 외각이 있어 또 제3층 우주를 구성하였다. 마치 작은 입자가 원자핵을 구성하고 원자핵이 원자를 구성하며 원자가 분자를 구성하는 것과 같고, 마치 미시적인 입자가 더욱 큰 입자를 구성하는 시스템 상태와 같다. 내가 말한 이 우주 역시 이런 하나의 시스템 상태에 있다. 이 언어로는 형용할 방법이 없으며 인류의 언어로는 명확하게 표현할 방법이 없다. 이 상태에서는 이런 상태이나, 그것은 많고도 많은 시스템인데, 많고 많기로 마치 무수한 원자가 분자를 구성하는 것처럼 많아, 우주에 널리 분포된 것과 같다. 당신이 말해 보라. 이 우주 중에 우리 이 소우주와 같이 이렇게 큰 우주가 도대체 얼마나 있는가를. 누구도 말할 수 없다. 나는 방금 제2층 우주, 제3층 우주를 말했으며 석가모니 부처는 제6층 우주에서 온 것임을 말했다. 이는 다만 이 한

체계(體系) 중에서, 이런 한 체계 중에서 말했을 뿐이다. 마치 작은 입자가 큰 입자를 구성하며 큰 입자가 더욱 큰 입자를 구성하는 것처럼, 이것은 한 체계이다. 그러나 그것은 다만 이 한 입자의 체계뿐만이 아니며 그것은 많고도 많은 부동한 층차의 입자가 천체에 널리 분포된 것이다.

이 우주는 굉장히 복잡한 것으로 내가 스웨덴에서 수련반을 열 때 좀 구체적으로 말했다. 나는 81층 우주까지 말했는데, 사실 어찌 81층에 그치겠는가. 인류의 숫자로는 계산할 수 없다. 왜냐하면, 사람의 숫자는 가장 큰 것이 바로 조(兆)이지만, 부처가 계산하는 숫자는 가장 큰 것이 겁(劫)이기 때문이다. 그 일 겁(一劫)은 20억 년에 해당하는데 20억 년이 한 겁(劫)을 구성한다. 겁으로도 이 우주에 얼마나 많은 층이 있는지 계산할 수 없다. 얼마나 많은 층천(層天)인가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층의 우주인가이다. 이처럼 방대하다. 사람을 말한다면 그것은 너무나도 보잘것없이 미미하다. 내가 지난번에 말한 적이 있다. 나는 우주는 다만 먼지 한 알에 불과하며 계다가 보잘것없다고 말했다. 이런 한 개 범위에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복잡한 공간구조가 있다. 이 공간구조는 어떤 형태인가? 나는 저번에도 말했다. 우리 인

류는 어느 층 공간에서 생활하고 있는가? 분자가 가장 큰 한 층 입자로 구성된 표면물질 중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분자와 별(星球) 사이에서 생활하고 있다. 별 역시 입자이다. 방대한 우주 중에서 그것 역시 보잘것없는 한 알 먼지이며 은하계 역시 보잘것없는 한 알 먼지에 불과하다. 이 우주에서 내가 방금 말한 소우주 역시 보잘것없는 한 알 먼지에 불과하다. 우리 인류의 눈으로 보는 가장 큰 입자는 바로 별이며 인류가 보는 가장 작은 입자는 바로 분자이다. 우리 사람은 바로 분자와 별 사이의 이 입자 사이, 바로 이 공간 속에서 생존하고 있다. 당신은 그것이 아주 광활하다고 여기는데, 사실 하나의 각도를 바꾸어 말한다면 그것은 몹시 협소하다.

나는 또 각도를 바꾸어 말하겠다. 원자와 분자 사이의 공간은 한층 공간인가 아닌가? 마치 잘 이해하기가 힘든 것 같다. 내가 당신에게 알려주겠다. 지금의 과학자는 원자에서 분자에 이르는 사이의 거리를 원자 20만 개를 배열해야만 비로소 분자란 이런 거리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물체가 더욱 작을 때, 바로 입자가 더욱 작을수록 그것의 전반적인 체적이 더욱 커진다. 왜냐하면, 그것은 한 층차 면이며 고립적인 하나의 점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럼 이 분자는 몹시 큰 것이

며 물질 과립, 입자가 더욱 클수록 그것의 공간 체적은 더욱 작으며 그것의 전체적인 공간 체적은 더욱 작다. 당신이 만일 그 공간으로 들어가게 되면 당신은 그가 더욱 광활한 공간임을 발견할 것이다. 물론 당신은 그 상태에 부합되어야만 그 공간으로 들어갈 수 있다. 당신이 사람의 사유, 사람의 개념, 사람이 현존 물질세계를 대하는 인식, 이런 방법으로 그것을 인식한다면 당신은 어떻게 해도 이해하지 못하며 당신은 또 들어갈 수도 없다. 인류는 자신의 과학이 어떻게 발달하였다, 어떻게 발달하였다고 말하는데, 아주 가련하다! 그것은 분자라는 이 한 층 공간도 돌파하지 못했으며 다른 공간을 보지 못하는데, 사람은 그래도 득의양양해한다. 원자로 구성된 그 공간을 보는 것은 말하지 않더라도, 내가 여러분에게 알려 주겠는데, 이것은 하나의 큰 공간체계의 구획으로서, 원자와 원자핵 사이가 공간이며, 원자핵과 쿼크 사이가 공간인가 하면, 쿼크와 중성미자 사이도 역시 공간이다. 이 물질의 가장 본원(本源)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많은 층이 있는지, 인류의 숫자, 부처가 말하는 겁(劫)의 숫자로도 계산할 수 없다.

인류가 진정으로 물질을 인식하려면 오로지 사람이 현존하는 이 사람의 지식 내에서 이해할 수밖에 없다.

사람은 영원히 이 우주 물질의 가장 기초적인 것이 무엇
인지를 알 수 없으며 영원히 탐측할 수도 없다. 그러므
로 사람으로 말하면 이 우주는 영원한 수수께끼이다. 물
론 고급 생명이 영원히 모르고, 속인이 이 우주를 알 방
법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수련자에게는 방법이
있다. — 오로지 당신이 수련하는 것이다. 인류의 기술수
단을 통하여 부처의 경지, 그렇게 큰 능력에 도달하려
하고, 것처럼 많은 층 공간 우주를 투철히 볼 수 있게
하려 한다면, 인류는 영원히 도달할 수 없다. 사람은 칠
정육욕, 각종 집착심이 있기 때문에 정말로 부처의 경지
에 도달하려 한다면 그것은 바로 성구대전(星球大戰),
우주대전이다. 하지만 신(神)은 인류로 하여금 이렇게
되게 하지 않을 것인바, 인류의 과학이 일정한 정도에
도달하면 인류로서는 정말 위험하다. 왜냐하면, 인류의
도덕이 그렇게 높이 도달하지 못하므로 인류의 문명은
곧 휘멸 당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불공평한 것이
아니다. 사람 자신이 안 되고, 사람의 도덕이 따라 올라
가지 못해서다. 하지만 역으로 말하면, 사람의 도덕이
따라간다면 바로 신(神)이므로, 사람의 수단으로 탐측
할 필요 없이 눈을 뜨고 쳐 보기만 하면 다 보인다. 우주
는 바로 이런 것으로, 당신이 그것을 알고자 한다면 당

신은 이 경지를 벗어나야 한다.

내가 방금 말한 것은 각기 다른 큰 입자로 구성된 세계이다. 사실 어찌 이런 것에만 그치겠는가. 바로 우리가 있는 분자 이 현존의 공간 중에 또 많고도 많은 공간이 있는데, 사람에게에는 보이지 않는다. 내가 방금 말했듯이, 분자로 조성된 가장 큰 층의 과립이 바로 우리 사람의 가장 표면으로 구성된 물질인데, 강(鋼)·철(鐵)·나무·사람의 신체·플라스틱·돌·흙 심지어 종이 등등 등등이다. 인류가 보는 이런 것은 가장 큰 층 입자로 구성된 것으로서, 가장 큰 층의 분자로 만들어진 것이며 능히 볼 수 있다. 만약 분자가 조성한 것이 가장 큰 층의 입자보다 조금이라도 작은 층의 공간 입자라면 당신은 보아내지 못한다. 이 분자는 또 더욱 작은 한 층 입자의 공간을 조성할 수 있는데, 이 분자 그가 조성한 가장 작은 입자와 가장 큰 입자의 표면 사이에는 많고도 많은 층의 공간이 존재한다. 다시 말해서 부동한 분자로 조성된 크고 작은 입자의 존재가 이 대단히 복잡하고 부동(不同)한 분자 공간을 구성하였다. 사람들은 믿지 못하고 ‘이 사람, 그가 어찌 없어졌다가 갑자기 다른 곳에서 나타났는가.’라고 말한다. 그의 신체가 모두 분자로 구성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의 과립이 대단히 세밀하다면(수

련을 통해 도달할 수 있다), 그는 곧 이 공간을 뚫고 나갈 수 있다. 그가 갑자기 없어졌기 때문에 당신은 그를 보지 못한 것이며 그가 갑자기 거기에서 또 나오게 되는데, 아주 간단하다.

방금 이 공간의 구조를 말했는데, 저번에 말한 것보다 좀 더 상세하다. 너무 많이는 사람들에게 말해 줄 수 없으며 사람이 것처럼 많이 알아서는 안 된다. 내가 말한 이러한 것을 사람은 그것을 모두 탐측해 낼 수 없다. 지금의 인류 과학은 실질적으로 그릇된 기점(基點)에서 발전한 것이며 우주에 대한, 인류에 대한, 생명에 대한 인식은 모두 잘못된 것이다. 그러므로 수련계에서 우리 수련하는 사람은 지금의 과학을 아예 승인하지 않으며 그것은 착오라고 생각한다. 물론 속인은 모두 이렇게 배워 온 것이며 이처럼 많은 학과로 나누어 여러 사람은 모두 각 학과 중에서 성취가 있다. 하지만 그것은 기점이 잘못되었다. 그러므로 당신들 인류의 인식은 항상 진상을 몹시 빗나가 있는 것이다.

과학에 대한 인류의 인식은 영원히 모색하고 있을 뿐이다. 맹인이 코끼리를 만지듯 지금의 과학은 바로 이렇다. 그것이 코끼리의 다리나 코를 만졌다면 그것은 과학이 이렇다고 말한다. 사실 그것은 진상(眞相) 전반을

보지 못한다. 무엇 때문에 나는 방금 이렇게 말했는가? 인류는 오늘날 사람의 발전이 진화(進化)에 의한 것이라고 여기지만, 진화론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 수련계에서는 사람이 자신을 짓밟고 있다고 보고, 사람이 자신과 원숭이를 연결하는 것을 보며 모두 아주 가소롭다고 생각한다. 사람은 전혀 진화해 온 것이 아니다. 다윈이 그의 진화론을 내놓을 때 허점투성이였는데, 가장 큰 결함은 바로 원숭이에서 진화하여 사람에 이르고, 고생물(古生物)에서 진화하여 근대 생물에 이르는 중간 과정이 전혀 없다는 점이다. 사람뿐만이 아니라 생물, 동물도 다 없다.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사실 사람에게는 부동(不同)한 역사 시기에 부동한 생존 상태가 있다. 다시 말해서 그의 생활환경은 모두 당시의 사람에 맞추어 생긴 것이다.

이 문제까지 말하게 되어 나는 또 현재 사람의 관념을 말하고자 한다. 도덕이 부패함에 따라 많은 관념에 모두 일부 변화가 일어났다. 과거에 많은 예언가도 말한 적이 있다. 특정한 때가 되면 사람의 차림새는 마치 요괴와도 같을 것이라고. 당신이 말해 보라. 그 머리칼을 붉게 염색하고 중간에 그렇게 한 가닥을 남겨 놓고는 양쪽을 모두 짹짹 깎아버렸다. 특정한 시기에 이르면 사람은 개만

도 못하다. 많은 사람이 개를 아들로, 자식으로 간주하여 그것에게 우유를 먹이고 옷을 입히는데, 모두 고급이고 유명브랜드이며, 수레에 태워 밀고 다니면서 그것을 아들이라고 부른다. 거리에는 거지가 많은데, 나도 이런 사람을 만난 적이 있다. 이는 미국에도 있다. 손을 내밀고 “한 푼만 주십시오.”라고 하는데 그는 정말로 개만도 못하다. 그러나 내가 여러분에게 알려주겠다. 만일 이 지구에 사람이 없다면 아무것도 없다. 바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 지구 중에는 비로소 만사만물이 있게 된 것이다. 일체 동물·생물·식물은 모두 사람을 위해 생겨났고 사람을 위해 없어지며 사람을 위해 이루어진 것이고 사람을 위해 쓰이는 것이다. 사람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으며 육도윤회 하며 전생하는 것 역시 모두 사람을 위한 것이다. 지상의 일체는 모두 사람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지금 이러한 관념이 모두 거꾸로 되는 변화가 일어났다. 동물과 사람이 평등하다면 어찌 되겠는가?! 지금 동물이 인체에 달라붙어 사람의 주인이 되는데 하늘이 용납하지 않는다! 이 어찌 될 수 있겠는가? 사람은 가장 위대한 것으로 가히 신(神)으로 수련 성취되고 부처로 수련 성취될 수 있다. 게다가 사람은 모두 고층차에서 내원하였다. 하지만 이런 생물은 대개가 모두 여기에서

만들어진 것으로서 지구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말이 나온 김에 이 문제를 말했다.

내가 방금 말한 진화론은 우리가 보전대 그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인류는 오랜 역사의 세월 중에서 여러 차례 부동한 시기의 문명을 거쳤다. 매번 인류 도덕이 부패하게 되면 그것의 문명은 곧 훼멸되며 최후에 극소수 사람이 살아남아 사전(史前)의 문화를 조금 계승했으며 다시 석기시대를 거쳐 발전해 왔다. 석기시대 역시 한 번만이 아니라 여러 차례의 석기시대가 있었다. 오늘날 과학자들이 일부 문제를 발견했는데, 고고학(考古)에서 발견한 많은 것이 다 한 시기의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나 진화론의 사상으로 억지로 그 속에 씌운다면 그는 현실 앞에서 설명하지 못한다. 우리가 발견한 바로는, 이 지구의 부동한 역사 시기의 사람이 부동한 시기의 문명을 남겨 놓았다. 고대 이집트의 피라미드를 현대인은 모두 이집트 사람이 만든 것이라고 말한다. 그것은 지금의 이집트 사람과 전혀 관계가 없다. 바로 사람, 민족은 자신의 역사에 대해서조차 잘못 알고 있다. 피라미드와 이집트 사람은 전혀 관계가 없다. 사전의 그런 한 차례 문명 중에서 만든 것이며 나중에 한 차례 대륙판의 변경 중에서 그 피라미드가 물속에 잠기게 되었다. 제2

차 문명이 나타나 새로운 대륙을 만들 때 그것은 또 물 밑에서 올라온 것이다. 그 한 무리의 사람은 일찍이 존재하지 않았으며, 나중에 또 지금의 이집트 사람이 있게 되었다. 이집트 사람들은 피라미드의 이런 공능을 발견한 후 일부 작은 이런 피라미드를 만들었다. 그 속에 관을 넣어두면 아주 좋은 것을 발견하고 그는 거기에 관을 놓았다. 새로 만든 것이 있고 옛적의 것이 있다. 그리하여 지금의 사람 그 역시 도대체 어느 시기의 것인지를 분간하지 못하며 역사는 모두 뒤죽박죽이 되었다.

마야인(瑪雅人)의 문화를 많은 사람이 모두 지금의 멕시코 사람과 관계가 있다고 말한다. 사실 멕시코 사람과 전혀 관계가 없으며 그들은 다만 스페인과 토착인(土著人)의 혼혈아이다. 마야문화는 지난번 문명 역사 시기의 것으로서 그 인류는 이미 멕시코에서 휘멸되었고 오직 소수 사람만 도망쳐 벗어났을 뿐이다. 하지만 이 마야문화와 몽골인(蒙古人)은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 이러한 것을 자세히 말하지는 않겠다. 인류는 그의 역사적 연원(淵源)을 모르고 있는데, 백인 역시 마찬가지다. 저번 한 차례 대홍수(大洪水) 중에, 저번 한 차례 인류 문명은 대홍수로 휘멸되었다. 지구 위의 해발 2,000m 이하 고산(高山)은 모두 침수되었으며 오직

2,000m 이상에 사는 사람만 살아남았다. 노아 방주(方舟)의 일은 정말이다. 서양문화는 이번 차례 대홍수로 완전히 휩멸되었다. 동양문화 역시 휩멸에 처하였다. 그러나 히말라야 산과 곤륜산 일대 그 산 위에 살던 사람, 농촌 사람은 다행히 재난을 면했는데, 곤륜산 속에 살고 있던 중국 사람은 살아남았다. 그때에 동양문화는 아주 발달하였기 때문에 이전의 하도(河圖)·낙서(洛書)·역경(易經)·태극(太極)·팔괘(八卦) 등등을 계승했다. 사람들은 그것을 후세사람 누구누구가 만들어 낸 것이라고 말하는데, 그것은 그가 다시 고쳐 내놓은 것으로 전혀 그가 만들어 낸 것이 아니며 모두 사전문화(史前文化)이다. 중국에 비록 이러한 것들이 남겨졌지만, 역사의 발전 중에서 이러한 것에 그친 것만이 아니다. 고대에 남겨 놓은 것이 더욱 많았으나 유전 중에 갈수록 적어졌다. 그렇다면 그것은 바로 내포가 아주 깊으며 역사의 연원(淵源)이 아주 깊은 이런 민족인바, 바로 중국이다. 백인의 문화는 그 한 차례 대홍수에 전부 침수된 후 아무것도 없게 되었다. 당시 유럽 대륙의 변두리에 또 한 대륙이 있었는데 역시 침수되었다. 가장 발달한 곳이었으나 침수되고 말았다. 그러므로 백인은 아무것도 없으며 어떠한 문명도 없는 이런 상태에서 다시 발

전한 것으로서, 바로 그의 지금 이 과학이다.

중국의 옛 과학과 서양의 이 실증과학은 다르다. 많은 고고학자가 나와 이런 문제를 토론한 적이 있다. 나는 모두 그들에게 말해 주었으며 그들도 이런 문제라고 느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해석하지 못하는 문제가 많았기 때문이다. 나는 방금 우주에 대한 인류의 인식은 근본적으로 더욱 많은 것을 인식할 수 없음을 말하였다. 지금 많은 과학자 그들이 연구하는 기점은 바로 잘못된 것이다. 더욱이 그가 이 한 영역 중에서 성과를 좀 올리면 그는 내려놓지 못하고 자신이 인식한 것에 대해 정의를 내리며 하나의 틀을 만든다. 우리 이 자리에 있는 많은 유학생, 박사, 석사들의 사상은 개방적인 것으로서 당신들은 발견할 수 있다. 그들의 정의가, 그의 이 경지 범위 내에서는 맞지만, 당신이 일단 그의 인식을 벗어나고 그의 경지를 벗어났을 때는 그것이 그릇된 것이며 사람을 속박하는 것임을 발견할 것이다. 진정하게 성취가 있는 과학자라면 과감하게 이런 틀을 깨뜨릴 것이다. 아인슈타인을 포함하여 그가 인식한 이 경지에서 말한 것은 맞는 것이나, 이 경지를 벗어나면 그가 말한 것이 그릇된 것임을 발견할 수 있는데 이런 이치가 아닌가? 사람이 승화하여 올라갈 때, 당신의 사유상태가 높은 층의

진리에 더욱 접근할수록, 더욱 높은 층에 접근할수록 낮은 층의 인식이 그릇된 것임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인데, 바로 이리하다.

사물에 대한 인류의 인식 그것은 그릇된 것이 아닌가? 사람은 현존의 가장 큰 층의 분자 입자로 구성된 표면물질과 별나라 사이의 공간 중에서 있기에 그는 분간하지 못한다. 바로 이 속에서 그가 발전하는 것으로 이것이 절대적인 과학이고 이것이 곧 물질에 대한 유일한 인식이며 이것이 곧 가장 선진적이라고 인식한다. 그것은 다만 이 방대하고 복잡한 우주공간 중에서 극히 작고도 작은 그런 미립자 중에서 물질세계를 인식함에 불과하다. 그뿐만 아니라 또한 작은 공간 속에 국한되어 있다. 내가 방금 말한 별의 구조, 그것 역시 한 체계인데, 당신은 작고도 작은 한 체계, 한 알 먼지와도 같은 체계 중에서, 무수한 억(億) 개의 공간 중에서 그런 한 점의 공간을 인식하는 것이다. 당신이 말해 보라. 바로 작고도 작은 한 공간 중에서 인식한 그것이 맞는 것인가? 그러므로 인류의 과학 그것의 발전, 그것의 인식은 시작하는 기점부터 틀린 것이다. 인류의 기원, 생명을 말한다면 더욱 복잡한 것으로, 말하지 않겠다. 더 많이 말하자면 생명의 기원을 말해야 하는데, 너무나도 복잡하기 때

문이다. 게다가 많이 말하고 높게 말하면 사람은 믿지 않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사람은 필경 사람의 사상이기 때문이다. 내가 여기에서 말하는데 신(神)이 들으면 그는 믿는다. 그는 신(神)의 사상이기 때문이다. 그는 자기 그 경지 중에서 보며 그의 사유방법과 사람의 것은 전혀 같지 않다.

내가 방금 이렇게 말했는데, 이해하겠는가? 내가 여러분에게 물어보자. 내가 말한 것을 여러분은 명백히 알아 들었는가? (박수) 나는 늘 한마디 말을 하는데, 어제 또 재삼 이 문제를 강조하였다. 바로 연분(緣份)이다. 우리 많은 사람이 늘 이 대법을 더 많은 사람에게 소개하고자 한다. 어떤 사람은, 당신이 그에게 소개해 주면 그는 즉시 아주 좋다고 여길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배우려 하는데, 이는 아마 연(緣)이 있는 것이다. 어떤 사람은, 당신의 육친을 포함하여, 당신이 그에게 소개해 주지만, 그는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믿지도 않는다. 당신이 어떻게 말해도 그는 도무지 믿지 않는다. 내가 여러분에게 알려주겠다. 그와는 아마 연이 없다. 물론 이런 상태는 연(緣), 한 가지 형식으로 구성된 것은 아니다. 어떤 사람은 아마 그의 오성(悟性)이 안 되거나 혹은 업력이 커서 조성된 것일 수 있다.

나는 오늘 이 연(緣)에 대해서 말하겠다. 무엇이 연인가? 이전에도 나는 이 문제를 설명한 적이 있다. 수련계에서는 재삼 이 연분, 연분을 강조하는데, 이 연은 어떻게 구성된 것인가? 사실 내가 여러분에게 알려주겠다. 우리 수련계에서 말하는 연, 그것은 짧은 역사 시기에 분명하게 설명할 수는 없다. 그것은 사람의 일생을 초월하여 몇 생, 심지어 더욱 긴 시간을 초월한다. 이 연분, 그것은 끊어지지 않는다. 왜 끊어지지 않는가? 방금 내가 입을 갈는 문제를 말했는데, 사람의 생명을 어떻게 볼 것인가를 말했다. 한 생명을 볼 때 그 생명의 전체를 보아야 하며, 그의 일생만을 볼 수 없다. 마치 당신이 잠을 자는 것처럼 오늘과 어제가 있는데, 당신이 어제는 당신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것은 안 된다! 그러므로 그의 연은 아주 긴 시간에 관련된다. 좋은 것이 계승될 수 있듯이 나쁜 것 역시 계승될 수 있다. 그렇다면 다시 말해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인연관계 이것 역시 끊어지지 않는다. 일반 사람이 말하는 연은 대다수가 이 친인의 연(親緣)을 말하는데, 다시 말해서 곧 부부의 연(緣)을 말한다. 이것을 비교적 많이 말한다. 사실 이 부부의 연도 나는 이전에 말한 적이 있다. 이 속인 중의 일을, 나는 연을 이야기하게 되어 그것을 말했다. 그것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가? 흔히 대다수는 모두 이러하다. 즉, 이 사람이 전 한 세에 그 사람에게서 은덕을 입었는데, 보답할 바가 없었다. 전 한 세에 벼슬이 너무 작거나 몹시 가난할 수도 있다. 그는 그의 은혜를 아주 크게 입어 마음속으로 보답하려고 생각했다. 그것으로 부부의 연이 맺어질 수도 있다. 또 어떤 사람은 전 한 세(世)에 그를 애모(愛慕)하였으며, 두 사람이 서로 애모하였으나 그런 연이 없어 한집안을 이루지 못했다. 그렇다면 곧 다음 한 세에 부부의 연을 맺을 수 있다. 왜냐하면, 사람의 소망은 아주 소중하기 때문이다. 당신이 뭘 가지려고 생각하고 당신이 뭘 하려고 생각하며, 당신이 나는 부처수련을 하려고 생각한다고 말한다면, 그럼 부처는 당신을 도와줄 것이다. 무엇 때문인가? 이 일념(一念)이 너무나도 진귀한데, 이처럼 고생스러운 환경에서도 당신이 부처수련을 하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럼 사람이 마(魔)가 되려고 생각해도 역시 막지 못하는 것으로 그가 줄곧 나쁜 짓을 하는데, 당신이 어찌 막을 수 있겠는가? 당신이 말해도 그것은 역시 듣지 않는다. 그러므로 사람의 이 소망은 매우 소중한 것이다.

그 밖에 또 무슨 친우라든가, 문하생이라든가, 또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은혜와 원한(恩怨)으로 맺어진 이 연

이라든가 하는 것들이 모두 당신과 한 가정 혹은 한 군체(群體)를 이루게 할 수 있으며, 사회에서 사회적인 연계를 이루어 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모순, 은혜와 원한을 되돌아 갚도록 한다. 이것이 모두 연이며 모두 이것을 가리킨다. 그것은 일세에서 온 것이 아니며 몇 세 혹은 전 한 세(世)의 것으로 이것은 이런 상황을 가리킨다. 이런 하나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또 사람이 이 일생 중에서 그의 은혜와 원한이 있고, 그의 친구가 있고, 그의 아내, 자식이 있는 등등 등등이다. 그럼 아마 이 한 군체는 곧 은혜와 원한이 존재할 수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그에게 좋게 대하거나, 좋지 않게 대하거나 하여, 그는 그에게 되돌아 갚으려고 한다. 그렇다면 이러한 것은 곧 다음 일세(一世)의 군체적인 전생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하지만 그는 함께 오는 것이 아니며 여럿이 함께 전생하는 것이 아니다. 세상에 올 때 빠르고 늦음이 같지 않으며 나이가 많은 사람도 있고 나이가 어린 사람도 있는데, 어쨌든 이 사람들 속에서 그는 일부 연계를 이루어 앞뒤로 전생해 오는 것이다. 한 군체가 아니거나 혹은 연이 없는 사람이거나 당신과 관계가 없는 사람이라면, 거리를 가도 마치 딴 세상 사람과 같으며 마치 그와 어떠한 관계도 없는 것을 당신은 발견할

것이다. 당신도 이러한 사람이 있는 것을 발견할 것이며 마치 당신들은 두 갈래 길을 걷는 사람과도 같다. 이는 곧 당신, 이 군체에서 온 것이 아니며 그와는 어떠한 인연관계가 없다. 그러므로 흔히 전생하여 올 때에는 모두 한 군체이며 앞뒤로 부동한 시간에 오는 것이다. 부모가 되는 것도 있고 아들딸이 되는 것도 있으며 친구가 되는 것도 있고 원수가 되는 것도 있으며 은인이 되는 것도 있다. 내가 방금 말한 연이란 바로 이런 것이다.

물론 수련하는 사람도 이런 연을 벗어날 수 없다. 왜냐하면, 당신이 수련하려고 하면, 한 사람이 수련하면, 과거에 말하기를 한 사람이 수련하면 조상도 모두 덕을 쌓고 모두 이득을 얻는다고 했기 때문이다. 당신이 여기에서 수련하고 당신이 부처로 수련 성취되었다고 해서 그들이 죄업(罪業)을 갚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아니며, 모두 부처가 된다고 말하는 이것은 안 된다. 요컨대 당신이 수련할 때에, 당신이 이 일세에 법을 얻음을 알고, 당신의 친인이 당신 주위의 사람으로 전생한 것일 수 있으며, 은혜와 원한이 있는 사람들일 수도 있는데, 당신이 그들로 하여금 법을 얻게 할 수 있는, 이런 관계를 이룰 수 있다. 물론 수련은 육친의 정을 말하지 않는다. 육친의 정을 말하지 않기에 그는 곧 이 국한(局限)을

타파하고 단독수련 혹은 단독으로 전하는데, 그는 자신이 사람을 뽑고 사람을 선정한다. 과거에는 역대로 모두 이렇게 수련하였다. 널리 제도함이란 바로 우리가 오늘날 말하는 이 연이다. 내가 말한 이 연은 우리 이 좌석에 앉은 사람들과 관계가 있다. 당신은 연이 있어 법을 얻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 연은 어떻게 이루어진 것인가? 이 속의 많은 사람이 법을 얻으러 왔고, 목적을 가지고 왔다. 친우나 각 대(各代) 제자로서 또는 다른 연분일 수도 있다. 그러나 수련은 속인의 정을 말하지 않으며 이런 것이 없다. 나는 늘 말한다. 나는 어떤 사람이 법을 얻으러 왔다면 이전에 모두 이러한 소원을 품었을 것인즉, 자신이 와서 이 고생을 겪으며 이 법을 얻고자 하였다. 이러한 요소가 그 속에 있다. 그러므로 나는 늘 말한다. 일시적인 이 일세의 그릇된 관념으로 이번에 법을 얻음에 영향 주지 말아야 한다고. 그럼 당신은 후회해도 영원히 보완할 수 없다. 사실 내가 보건대 이 연분이란 기본적으로 이 갈래의 선이 아주 단단하게 매여 있다. 모두 떨어지지 않았고 모두 법을 얻었다. 다만 정진(精進)하는 정도가 같지 않을 뿐이다.

다음으로 나는 또 한 가지 문제를 말하려는데, 바로 이 수련형식이다. 어제든 내가 간단하게 이 한 점을 말

했기 때문이다. 우리 어떤 수련생은 결혼하고 결혼하지 않는 문제를 말한다. 어떤 사람은 결혼하려 하지 않고 산에 들어가 수련하려고 생각하며, 어떤 사람은 부동한 견해가 있다. 우리 대법 수련 중에서 많고도 많은 제자가 이 생각을 품고 있다. 그러나 누구나 다 알다시피 내가 전한 이 법은 주로 속인 사회 중에서 수련하는 것이며 사람 자신의 主意識(주이스), 主元神(주웬선)을 제고함을 수련의 목적으로 삼는다. 왜냐하면, 당신이 명명 백백하게 고통을 겪고 있으며, 당신이 당신의 이익이 침해받는 것을 분명하게 보면서도 마음을 움직이지 않기 때문인데, 당신이 당신 자신을 수련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 법을 당신이 얻지 않고 누가 얻겠는가? 만약 정말로 산으로 들어가서 수련하여 이 모순을 비켜간다면, 수련이 느려지고, 오랜 세월 속에서 그런 마음이 서서히 닳아 없어질 것인바, 그러면 이 법을 만날 수 없으므로 수련하는 것은 바로 副元神(푸웬선)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당신이, 심산 속에서의 수련에는 이런 조건이 갖춰지지 않는데, 가부좌·입정(入定)을 해야 하고 장기간 입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 상태에서는 당신 자신이 수련했는지, 수련하지 못했는지 당신 자신은 분명하지 않다. 왜냐하면, 당신 자신이 진정하게 이런 복잡한 환

경 중에서 제고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바로 이리하다. 출가한 사람도 主元神(주웬선)을 수련할 수 있지만, 속인 사회야말로 사람의 마음을 연마(魔煉)할 수 있는 최상의 장소이다.

예전에 우리가 들은 수련방법은, 역대로 어떤 종교거나 어떤 수련방법이거나, 사람들이 전해 내려온 것은 모두 산에 들어가고 절에 들어가서 수련하는 것을 말했다. 세상과 연을 단절하고 육친 정도 다 버리는 것으로, 부모가 절에 가서 육친을 찾는 것마저도 인정하지 않았다. “당신은 누구를 찾습니까?” “나는 너를 찾는다. 너는 내 아들이다.” “아, 아미타불, 시주님 당신은 사람을 잘못 보았습니다.” 나는 무엇 무엇이라고 부른다고 한다. 왜냐하면, 그는 이미 법명(法名)으로 고쳤기 때문이다. “나는 불문 제자이며 당신의 아들이 아닙니다.”라고 하며 정말로 세상 연을 단절하였다. 지금의 화상(和尚)은 물론 그 역시 수련할 수 없는 것으로, 또 돈을 벌어서 집으로 부친다. 진짜 수련은 세상 연과 단절하는 것이다. 그러기에 화상(和尚)이 출가하기만 하면 사람으로 볼 수 없었는데, 바로 이 이치이다. 그는 이미 신(神)이며 절반은 신(神)이다. 지금은 비록 수련할 수 없게 되었지만, 흔히 많은 사람이 모두 이 옛적의 수련방법인

이런 형식의 장애를 모두 받고 있으며 역시 이런 방법을 채용하여 대법을 수련하려고 한다. 장래에는 가능하지만, 지금은 이 조건이 갖춰지지 않았다. 내가 오늘날 전하는 이 법은 현재 오로지 이런 형식으로 수련할 수밖에 없으며 나, 이 사부도 역시 산속에 있지 않다. 그러므로 당신은 수련하려고만 하면 늘 산속으로 들어가려 하거나, 수련하려고만 하면 곧 출가하려 하거나, 수련하려고만 하면 결혼하지 않으려 하거나, 수련하려고만 하면 속인의 상태를 개변하려 한다면, 안 되는 것으로서, 이러한 것이 아니다. 수련방법은 아주 많은바, 8만 4천 법문 중에 다만 우리 이 법문만이 이렇게 수련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한 것은 바로 우리가 과거 몇 가지 수련방법과 전통적 관념의 영향을 받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내가 오늘날 당신에게 가르쳐 준 것은 완전히 새롭고 진정하게 당신을 가장 빨리 제도되게 하는 이런 수련형식이다. 장래에는 장래의 수련방법이 있다. 사실 나는 책 속에서 “나는 사람이 수련하려 하지만, 어찌 말처럼 그리 쉽겠는가?!”라고 말했다. 수련하고 수련해도 실체는 당신이 아닌데, 당신은 아직도 모르고 있지 않은가!

내가 여러분에게 알려주겠다. 오랜 과거에 많은 신이

사람의 主元神(주웬선)은 제도하기가 너무나도 어려운 것을 발견하고, 곧 副元神(푸웬선)을 제도하는 방법을 취하였다. 이렇게 사람을 제도하고는 아주 좋다고 느꼈고 그도 이렇게 제도함이 아주 좋다고 느꼈다. 그리하여 그들은 모두 이렇게 제도함으로써 곧 이런 한 가지 인정 받는, 사람을 제도하는 이런 한 가지 형식이 형성되었다. 그러나 그것은 오히려 사람에게 불공평했다. 이 사람이 수련했지만, 제도된 것은 오히려 다른 사람이었다. 바로 그것이 불공평하므로 그는 감히 세상에 공개하지 못했으며 또한 감히 사람에게 알리지 못했다. 나는 그것을 사람에게 털어놓았다. 무엇 때문인가? 나는 바로 사람으로 하여금 진정으로 법을 얻을 수 있게 해주려 하기 때문이다. 이런 상태를 개변하여 당신 자신이 수련할 수 있도록 해준다. 동시에 만약 사람이 이렇게 수련한다면 사회에 대해서 좋은 점이 있는데, 당신 자신이 제고하면 당신은 틀림없이 사회적으로도 좋은 사람인 것으로, 이는 더없이 좋은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바로 이것을 바로잡아 되돌려 놓았다. 그러나 어떤 신(神)은 그가 오랜 세월 속에서 역시 이렇게 수련하여 올라간 것으로, 副元神(푸웬선)을 수련하여 올라간 것과 같으므로 그들은 내가 당신들에게 이것을 전함을 모두 가로막고 있다. 당

신들 모두 생각해 보라. 이 법을 전하기가 참으로 쉽지 않으며 얻기 역시 참으로 쉽지 않다. 최후에 여러 신(神)·불(佛)·도(道)는 내가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는가를 알았으며 효과가 대단히 좋은 것을 보았고 지금은 모두 알고 있다.

내가 애당초 중국에서 법을 전할 때에는 몹시 어려웠다. 물론 지금은 전하기가 비교적 쉽다. 더욱이 미국에 왔기에 당신들이 법을 듣기는 아주 쉬워졌다. 방금 나는 우리 이 수련형식이 과거 그 관념의 영향을 받지 말아야 하며 우리는 곧 이렇게 수련하는 것임을 말했다. 물론 여러분, 이 한 무리 사람들의 수련이 끝난 다음, 장래에는 장래의 사람이 수련하는 상태가 있다. 장래의 사람은 이처럼 많은 법을 알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는 특수한 역사 시기이기 때문인데, 우리는 이것을 전했다. 더 장래의 사람은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며 또 그에게 형상을 남겨주지도 않을 것이다. 그 녹음테이프, 비디오테이프를 당신이 지금 녹음했다고만 보지 말라. 당신은 장래에 모두 남길 수 없으며 모두 지워버릴 것이다. 과거 석가모니 부처가 제자들을 거느리고 수련할 때 제자들이 돈을 남기고 물건을 남기지 못하도록 했는데, 그들이 물질이익에 집착하는 마음이 일어날까 봐 두려워서

였다. 그러므로 무엇이든 다 갖지 못하게 했으며 곧 가사(袈裟) 한 벌, 동냥하는 사발 하나뿐이었다. 그러나 사람은 흔히 많은 마음을 제거하기가 몹시 어렵다. 어느 한 시기에 많은 사람이 이 동냥하는 사발을 모으기 시작하였다.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내 이 사발은 동(銅)으로 만든 것이오, 내 이 사발은 옥으로 만든 것이오, 나의 이 사발은 보기가 좋소, 나의 이 사발은 은(銀)으로 만든 것이오.”라고 하였다. 어떤 화상(和尚)은 사발을 많이 모았다. 석가모니 부처가 말했다. 물질에 집착하는 이런 마음이 있다면 당신들은 집으로 돌아가도록 하라. 집에는 무엇이든 다 있으니 가서 모으고, 가서 보존하도록 하라. 왜 동냥하는 사발조차 내려놓지 못하는가? 출가인은 무엇이든 다 내려놓아야 하는데, 왜 동냥 사발을 보존하려는 이 일념조차도 버리지 못하는가. 재보(財寶)가 없으니 사발마저도 집착하는가? 석가모니 부처가 말한 이 뜻은 바로 이 일념, 조그마한 집착마저도 그에게 남겨둘 수 없으며 제거해 버려야 하는 것으로 그로 하여금 이러한 마음을 갖지 말도록 한 것이다.

과거 석가모니 부처 시대에 화상(和尚)의 그 사발은 아주 작아 다만 한 끼의 밥만 빌 수 있었다. 지금의 화상(和尚)은 그렇게 큰 것을 들고 있다. 과거에는 바리

(鉢)를 들었으나 지금은 경(磬)을 들고, 경을 하나 들고서 동냥한다. 당신이 그에게 밥을 주면 그는 아예 갖지 않으며 그는 돈을 달라고 한다. 물질 이익에 대하여, 돈에 대하여 추구하는 마음이 것처럼 강함이 수련인가? 내가 여러분에게 알려주겠다. 돈은 수련인에게 가장 큰 장애이다. 방금 말한 것은 출가인이다. 하지만 대법수련은 물건을 중시하지 않고 마음을 중시한다. 왜냐하면, 속인 사회에서는 일을 하는 한편 수련하기 때문인데, 당신이 돈이 얼마나 많은 걱정하지 않으며 다만 당신이 돈과 재산에 대한 마음을 제거하지 않을까 걱정이다. 당신의 집을 금(金)으로 지었다 해도 당신의 사상에 없고 그것을 중하게 보지 않으면 된다. 속인 중에서 수련하기에 어떤 직업이든 다 있는데, 장사하여 돈을 벌어도 마음에 어떤 영향이 없고 그것을 중하게 보지 않으며, 있으나 없으나 마찬가지로 당신은 곧 이 한 관(關)을 넘긴 것이다. 당신의 집이 여전히 금으로 지은 것이라도 상관없다. 우리는 이 마음을 제거할 것을 요구하며 수련은 물질상으로 무엇을 버리라는 것이 아니다. 오로지 이래야만 비로소 세간의 수련에 부합된다. 모두 수련하며 사람이 모두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이 사회는 무엇을 먹겠는가? 이것은 안 된다. 우리는 오직 사람의 마음을 중시

하며 사람의 마음을 직접 가리켜 정말로 당신의 心性(心性)으로 하여금 제고되게 하는 것이지 물질 상으로 무엇을 버리는 것이 아니다. 이 한 점을 과거의 전통 수련방법과 분명히 가려야 한다. 하지만 당신이 이 마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보며 오히려 이 면에서 엄숙하게 검증할 것이다.

나는 이 수련인을 말하겠다. 우리 이 대법 중에서 수련함에 우리는 바로 이러한 길이다. 당신은 이러한 마음을 모두 담담하게 내려놓아야 한다. 장래에 전업으로 수련하는 사람을 말하자면 다만 사발 하나를 들고 동냥하며 행각하고 운유(雲遊)해야 한다. 세간의 고통을 겪을 대로 겪고서야 당신은 비로소 원만할 수 있다. 장래의 출가인은 이렇게 수련해야 한다.

고생을 말하게 되어 나는 여러분에게 말하겠다. 사람이 수련할 때는 확실히 고생스러우며 고생에 부닥치게 될 것이다. 대법을 수련함은 역시 복이 있는 것이지만, 수련하자면 마난(魔難)이 있게 마련인데, 이 한 점은 확실하다. 그러나 흔히 사람이 고통을 좀 당하고 고생을 좀 겪으면 그는 나쁜 일이라고 여긴다. “나는 어찌하여 이렇게 불편한가, 저렇게 불편한가.”라고 한다. 내가 당신에게 알려주겠다. 당신이 편안하고도 편안한 일생이라

면, 틀림없이 지옥에 떨어질 것이다. 편안하고도 편안한 일생을 말하지 않더라도, 당신 이 일생에 병에 걸리지 않아도 백 년 후에 반드시 지옥에 떨어진다. 산다는 것이 바로 업을 짓는 것으로, 당신은 업을 짓지 않을 수 없다. 당신이 입을 벌리기만 하면 당신은 아마 다른 사람을 해칠 수 있기 때문이다. 입으로 한 말이 무의식중에 다른 사람을 해칠 수 있다. 당신이 그에게 말하면 그는 개의치 않으나 아마 다른 사람이 들으면 그에게 해가 될 수 있다. 사람이 살면서 먹는 것, 심지어는 길을 걸어도 당신은 생물을 밟아 죽일 수 있다. 물론 우리는 말한다. 사람이 세상에 살기 때문에 당신은 곧 업을 지을 수 있다. 만약 당신이 병에 걸리지 않는다면 당신의 업은 없애버릴 수 없다. 사람은 고통스럽게 병에 걸리는 속에서 정말로 당신의 업을 없애고 있다. 없애 버리면 곧 좋아질 수 있다. 흔히 큰 병에 한번 걸릴 경우, 한동안 지나 당신이 건강을 회복한 후에는 자신의 얼굴색이 불그스레하고 무슨 일이든 순조로운 것을 발견할 것이다. 왜냐하면, 당신의 업이 없어졌기에 그것이 곧 복분 즉 德(덕)으로 전화된 것이다. 당신이 고통스러웠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흔히 무슨 일을 해도 비교적 순조로우며 쉽게 성사되는데, 사람들은 이런 것을 보지 못하므로 사람이

고생을 좀 겪으면 나쁜 일이라고 여긴다. 사실 고생이 뭐 그리 두려울 것이 있는가?! 사람은 바로 좀 고생스러운 것이다. 마음을 단단히 먹고 버틴다면 지난 후에 당신이 무슨 일을 하든지 다 갚지 않음을 볼 것이다. 나는 사람의 수련이란 곧 고생이 아니냐고 말했다. 당신이 내려놓을 수 있다면 보증하고 당신은 원만에 이를 수 있다. 더욱 높이 말한다면 당신이 그 생사지념(生死之念)을 내려놓을 수 있다면 당신은 정말로 신(神)이다!

과거에 아미타불이 말하기를, 나의 불호(佛號)를 외우면 극락세계에 갈 수 있다고 했다. 어찌하여 가능한가? 그의 뜻을 표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불호(佛號)를 외움으로써 극락세계에 갈 수 있다. 그러나 사람들은 모두 표면적으로 부처의 이 말을 이해하고 있다. 불법은 부동한 층차의 내포가 있다. 당신이 그의 불호를 외움은 바로 연공으로서, 외워 머릿속은 아무것도 없고 오로지 아미타불이란 이 몇 개 글자만 있을 뿐, 일념(一念)이 만념(萬念)을 대체한바, 사상이 전부 다 비어 아무것도 없고 오로지 아미타불만 있을 뿐이다. 염불할 때, 무수한 집착심과 각종 교란이 있는데, 당신은 버틸 수 있는가? 모든 집착을 다 내려놓고 생각(心念)이 비워지면 이는 곧 수련의 목적에 도달한 것이다.

당신이 불호를 외우는 것은 또 부처에 대한 일종의 숭경(崇敬)이다. 당신은 극락세계에 가고자 하여 외운 것으로서, 물론 그 극락세계의 부처가 와서 당신을 책임지게 되는데, 당신이 부처수련을 하기 때문이다. 이 속의 내포는 아주 깊다.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죽음이 임박하여 아미타불을 외우면 극락세계에 갈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 일인가? 당신이 정말로 생사의 일념(一念)을 내려놓았을 때 당신은 정말로 갈 수 있다. 사람과 신(神)의 구별은 바로 여기에 있다. 생사를 내려놓는다면 당신은 바로 신(神)이며 생사를 내려놓지 못하면 당신은 바로 사람이다. 바로 이 구별이다. 우리는 수련하고 수련하여 어떠한 집착도 다 내려놓는데, 그럼 그 생사마저도 모두 내려놓은 것이 아닌가? 사람이 단번에 생사를 내려놓을 수 있다고 한다면 또 무엇에 집착하겠는가? 이미 법을 얻었다. 나는 생사마저도 다 두려워하지 않으며 명(命)마저도 가지지 않을 수 있다고 한다면, 어떠한 일을 또 집착하겠는가? 그것은 이런 이치이다. 사람은 죽음이 임박하여 겁이 나서 야단이다. “아이고, 나는 곧 죽게 되고 숨이 끊어지겠구나.”라고 한다. 그는 어떠한 심정인가? 그러나 어떤 사람은 죽음이 임박하여 두려워하지 않으며 입으로 여전히 아미타불을 외우고 있는데, 당

신이 말해 보라. 그가 극락세계로 가지 않겠는가? 무엇이든 다 내려놓았으며 그에게는 생사라는 이 개념이 아예 없다. 사람의 일념(一念)은 장기간의 수련을 기초로 하는 것이다. 속인의 사상은 극히 복잡한 것으로서 어떤 마음이든 다 있는데 생사관두(生死關頭)에 어찌 두려워하지 않겠는가? 나는 대도(大道)는 극히 간단하고 극히 쉽다고 말했다. 많은 일이 아주 간단하다고 말한다. 하지만 그것을 일단 분해하여 자세히 말하려면 곧 많고도 많이 말해야 한다. 하지만 만일 직접 당신에게 알려 준다면 당신은 이해할 수 없으며 사람들 역시 것처럼 깊게 이해하지 못한다. 모두 글자로부터, 표면으로부터 이해한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설법해야 한다.

舊金山法會講法

샌프란시스코법회설법

李洪志

1997년 4월 6일

샌프란시스코법회설법

李洪志

(1997년 4월 6일)

우리는 얼마 전 뉴욕에서 만났는데 며칠 지나서 오늘 여기에서 또 만났다. 원래는 여러분에게 이해할 수 있는 과정을 주려고 생각했다. 왜냐하면, 저번에 말한 것이 아주 높기 때문이다. 사실 내가 최근에 말한 것을 당신이 자세히 되새겨 보면 당신은 아마 말한 것이 무척 높음을 느낄 것인데, 실은 본질을 말한 것이다. 원인인즉 바로 당신들의 문화지식이 높고, 게다가 일부분 사람은 나중에 법을 얻었기 때문이다. 나중에 법을 얻은 이 부분의 사람들은 제고가 아주 빠르기에 그들에 대한 요구 역시 높으며 층차의 제고 역시 빠르다. 여러분은 어려움이 좀 크며 곤란이 좀 많다고 여길 것인데, 시련이 좀 많은 것 같으나 이것은 필연적인 일이다. 오늘 내가 말하는 것은, 많은 것이 이전에는 말한 적이 없었다. 수련 시간이 아주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나는 최대한 빨리 이 법을 모두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하는데, 최대한 빨리 수

련하여 최대한 빨리 원만에 이르기를 희망한다.

나는 어제 또 이런 문제를 말했다. 여러분은 아마 중국의 『서유기』를 알 것이다. 당승(唐僧)이 서천(西天)에 경을 얻으러 갔을 때 간난신고를 수없이 겪는데, 구구팔십일 난이었다. 한 가지 난이라도 모자라면 안 되어 보충해야 했는데, 몹시 어려운 것이었다. 당신들이 오늘날 법을 얻음은 너무나도 쉽다. 미국에 있지 않더라도 비행기 표만 사면 순식간에 도착할 수 있다. 상대적으로 말해서 이 법을 얻기는 확실히 아주 쉬우나, 수련하자면 그리 쉽지 않다. 나 역시 고려하였다. 배울 수 있는지 없는지, 얻을 수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이 법을 대하는지를 우리는 보아야 한다. 이 시간을 마냥 길게 끌 수는 없다. 사람은 이 법을 얻을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인식에서 아직도 재삼 사고하고 고려하면서 배울까 말까? 어쩔까 한다. 우리도 이 문제를 고려하고 있다. 그러므로 나는 시간을 좀 다그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한다. 이 법은 누구나 다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닌바, 우리는 연분을 말한다. 다시 말해서, 시간을 다그치면 아마 법을 얻지 말아야 할 사람은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시간을 연장하면 아마 법을 얻지 말아야 할 사람이 들어오는 이러한 문제가 존재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그는 우리를 교란하

고 파괴할 수 있다. 그는 믿지 않으므로 교란 작용을 할 수 있다. 물론 우리는 이 문을 크게 열어 놓았으므로 당신이 어떤 사람이든지, 오로지 당신이 배우기만 하면 우리는 당신을 책임진다. 하지만 우리는 사람의 마음을 보아야 한다.

불법(佛法)은 박대정심(博大精深)하다. 우리가 오늘 말하는 이 법은 불법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을 뛰어넘는 것으로서, 전체 우주의 이런 법, 전체 우주의 이런 특성을 말한다. 이 방대한 우주, 그것은 매 한 층에 모두 우주의 특성이 있는데, 바로 眞(쩐)·善(싼)·忍(런)이 매 한 층 경지 중에서 체현되어 나오는 법리(法理)이다. 매 한 층차 중의 법리는 모두 매우 방대하며 매우 크고 복잡하다. 당신이 그 한 층의 이치를 푹푹히 말하려고 생각한다면, 아마 일생을 다 보내도 그것을 완전히 다 말해 내지 못할 것이다. 그것은 이처럼 크고 복잡하다. 모두 알다시피 석가모니 부처는 여래 이 한 층차에서 사람과 그의 수련제자에게 설법하였다. 그러나 그가 그의 일생을 다 썼어도 다만 그의 그 한 문(門)의 것을 말했을 뿐이다. 석가모니 부처는 말하기를, 수련에는 8만 4천 법문이 있다고 했는데, 이 속에는 아직 도가(道家)를 포함하지 않았다. 중국 도가에서는 그들에게 역시

3천6백 법문이 있다고 하는데, 아직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식하는 서양 종교의 그런 신(神)의 수련방법을 포함하지 않았다. 또한, 석가모니 부처가 말한 8만 4천 법문 역시 다만 여래 이 층차에서 이 범위 중의 인식을 말한 것이다. 그럼 이 범위를 초월하면 그는 얼마나 많은 수련방법이 있는지 모르고, 그는 얼마나 많은 부동(不同)한 여래불(如來佛)과 기타 증오(證悟)한 법리(法理)가 있는지를 모른다. 그것은 대단히 큰 것이다. 말하자면, 불법은 망망대해로 형용해도 다 형용할 수 없다. 우주가 얼마만큼 크면 이 법도 그만큼 큰 것으로 이와 같은 개념이다.

나는 오늘 다만 사람의 언어로, 오늘날 인류의 가장 알기 쉬운 통속적인 언어로, 개괄적으로 대단히 크고 대단히 높고 깊은 우주 전반의 이런 개황(概況)을 여러분에게 말해 주겠다. 정말 이 법을 완전히 이해할 수 있고 이 법(法) 속에서 수련할 수 있다면, 당신들이 체오(體悟)한 것의 높고 깊음은 언어로 표현하기 어려운바, 당신이 수련하기만 하면 당신은 차츰 체오(體悟)함이 더욱더 많아질 것이다. 당신이 『전법륜(轉法輪)』을 읽으면 읽을수록 명백해짐이 더욱 많을 것이다. 당신의 근기가 아주 좋아 이 대법 중에서 수련한다면 정말로 수련하

기에 충분하다. 당신이 얼마만큼 높이 수련하려고 한다면 그 법, 그는 그만큼 큰 것으로서 이 법은 너무나도 박대(博大)하다. 여러분이 아다시피 나는 『전법륜(轉法輪)』 이 책에서 이미 말했다. 나는 말하기를, 그 속의 법리(法理)는 매우 박대(博大)하며 당신이 매 한 글자의 배후를 본다면 모두 층층 첩첩 무수한 불도신(佛道神)으로, 다 헤아릴 수도 없다고 했다. 왜냐하면, 매 한 층차에는 매 한 층의 이치가 있고, 매 한 층에는 매 한 층의 불(佛)·도(道)·신(神)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당신은 이 법이 얼마나 크겠는가를 생각해 보라. 사실 나는 여전히 다만 그것을 개괄적으로 여러분에게 말했을 뿐이다. 진정한 이해는 당신이 착실하게 수련하는 중에서 스스로 깨닫고 스스로 닦으며 스스로 이해해야 한다. 그러므로 이 이치를 내가 여러분에게 알려주겠다. 절대로 『전법륜(轉法輪)』 이 책을 보았고 동작도 알았으니 됐고, 좋은 줄 알았으니 연마하면 된다고 여기지 말라. 당신이 제고하려고 한다면 전적으로 그 책에 따라야 한다. 그러므로 당신은 반복적으로 보아야 한다. 그 책을 보면 당신은 바로 인식하게 되고, 바로 제고하게 된다. 우리 원만에 이르는 수단 - 연공을 보태면 당신은 끊임 없이 당신의 층차를 제고할 수 있다. 그러므로 절대로

내가 한 번 보았는데 역시 좋다고 느꼈고 여러 사람을 따라 연마하면서 절대 연공도 끊이지 않았다고만 여기지 말아야 한다. 이 법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반드시 법을 배움에 노력을 들여야 한다.

이 우주는 이처럼 크며 구조 또한 이처럼 복잡하다. 내가 여러분에게 공간의 구성을 말한 적이 있다. 예컨대 물질은 분자와 더욱 미세적인 입자로 구성된 것이다. 우리가 인식하는 공간 역시 이러한 입자로 구성된 것이다. 지금 과학이 인식하는 입자는 분자·원자·중성자·원자핵·전자가 있으며, 다음으로는 쿼크·중성미자가 있다. 더 아래로는 무엇인지 현재의 과학은 모른다. 그럼 내가 말한 것은 매 한 층의 이러한 입자가 존재하는 그 경지인데, 우리는 그것을 하나의 층차면(層次面)이라고 부른다. 사실 입자의 분포는 면이 아니며, 그 하나의 층차 중에 어느 곳이든 다 있는 것으로 면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인류에게는 이 용어가 없으므로 그를 면이라고 부르자. 다만 이렇게 형용할 수밖에 없다. 바로 이 경지 중에서, 그 한 층 입자의 경지 중에서 그것은 하나의 공간을 구성한다. 입자와 입자 사이는 공간이며 입자 자체의 속 또한 공간이다. 입자는 또 부동한 크기의 입자를 구성할 수 있으며 그 같은 입자가 조성한 부동한 크기의

입자 사이도 공간이다. 이것이 바로 내가 저번에 여러분에게 말했던 공간의 개념이다.

예전에는 말하기를, 줄곧 원자에서 분자 사이의 그것은 하나의 광활한 공간이며 우리 사람은 분자로 조성된 가장 큰 한 층 입자와 우리가 본 별, 이 층의 입자 사이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사람은 이 공간 중에서 생활하고 있다고 했다. 별 그것 역시 한 입자이다. 더 큰 데로 간다면 그 은하계, 그것 역시 외각(外殼)이 있는 것이다. 그 은하계와 무수한 은하계가 마찬가지로 우주 중에 분포되어 있는데, 그것이 하나의 공간을 구성할 수 있는가 없는가? 그것 역시 연대(連帶)가 있다. 그렇다면 은하계 밖에 또 하나의 우주 범위가 있다. 그럼 이 우주의 범위, 그것은 한 층의 입자가 아닌가? 그것 역시 한 층의 입자이다. 이 우주는 그야말로 큰 것으로, 크기를 말할 방법이 없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거주하고 있는 우주와도 같은 우주 삼천 개가 또 더욱 큰 한 층의 우주를 구성하였으며, 그 바깥에는 외각이 있는 것으로서 그것은 또 더욱 큰 한 층의 우주 입자이다. 내가 방금 말한 입자는 한 점에서부터 전개한 것인데, 사실 매 한 층 입자는 모두 천체(天體) 전반에 널리 분포되어 있다. 그러나 바로 내가 방금 말한 이것도 단지 두 층 우주에 불

과한 것이나 당신들은 이미 불가사의하다고 여긴다. 사실 미래의 인류과학도 인식할 수 없으며 인류는 영원히 것처럼 높이 인식할 수 없다. 여기까지 말한다 해도 이 한 층 입자는 이 넓은 우주 중에서 그것 역시 한 알의 먼지에 불과하며, 또한 한 알의 작고도 작은 먼지이다. 당신이 말해 보라. 이 우주, 그가 얼마나 큰지를! 내가 이전에 줄곧 여러분에게 말한 것이 바로 이런 공간이다.

저번에 나는 또 이 공간의 구성을 말하였다. 그것은 이 원자와 분자 사이, 별과 분자 사이의 이런 공간 외에 또 한 층의 원자 입자는 또 부동한 크기의 입자를 구성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런 부동한 크기의 입자층 중에서 그것은 또 공간이다. 분자를 예를 들어 말한다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분자와 원자 사이는 공간이다. 그럼 원자가 분자를 구성하려면 곧 상당히 많은 원자가 함께 배열되어야만 분자로 조성될 수 있다. 그렇다면 만일 좀 적은 원자 입자로 조성된 이 더욱 큰 한 층의 입자는, 그것과 많은 원자 입자로 조성된 더욱 큰 입자 사이는 곧 또 한 층 공간이다. 내가 말했듯이 분자는 가장 표면적인 형상, 우리 사람이 볼 수 있는 어떤 물체든지 조성할 수 있기 때문인데, 강(鋼)·철(鐵)·물·공기·나무를 포함하며 우리 인체를 포함한다. 이것은 분자로

구성되었으며 가장 큰 한 층 입자로 구성된, 사람이 볼 수 있는 이 층의 표면 물질이다. 그럼 분자, 그것은 또 이 가장 큰 분자 입자보다 약간 작은, 뒤에서부터 세어 제2층이 되는 입자를 조성할 수 있으며 그것은 또 뒤에서부터 세어 제3층 입자를 조성할 수 있는데, 모두 분자로 조성된 것이다. 분자는 부동한 크기의 입자를 조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그들 사이는 또 공간이다. 그러므로 이 우주는 매우 복잡한 것이다. 또 이것에만 그치지 않는다. 매 층 공간 속에 그것은 또 종향(縱向)적인 것이 존재하고 있는데, 바로 부동한 층차의 공간이다. 다시 말해서 그것은 부동한 층차의 마치 그 종교가 인식한 얼마나 많은 층천(層天)이라는 이러한 공간이다. 또한, 부동한 층차의 그 공간 중에는 또 부동한 단원 세계(單元世界)가 존재하고 있으며 매우 복잡한 것이다. 나는 다만 여러분에게 보편적으로 존재하는 이런 한 가지 현상을 말했을 뿐이다.

사실 이런 공간 외에 또 일종 조잡한 공간이 있는데, 바로 가장 표면적인 공간이다. 나는 늘 여러분에게 말했다. 물론 저번에도 어떤 사람이 문제를 제기했는데, 내가 『정진요지』 중에서 말한, “인류사회는 바로 가장 중심에 있고 가장 외층에 있으며 가장 표면에 있다.”라고

한 것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것의 가장 표면적인 함의를 이 우주의 이치에 따라 말한다면, 안팎이 없는 것이며 또 인류가 인식하는 그런 크고 작은 개념이 없는 것으로서, 우리 사람의 개념과는 전혀 다르다. 나는 오늘 이 ‘밖(外)’을 말하겠다. 무엇 때문에 인류는 가장 변두리이며 가장 외면(外面)이라고 하는가? 무슨 뜻인가? 바로 내가 이전에 말했던 이 공간 외에 또 다른 공간이 있다. 이런 공간은 마치 우리 오늘날 인류가 생존하는 이런 공간과 같으며 신(神)이 있는 공간과는 뚜렷이 다르다. 내가 이전에 말한 공간은 모두 더욱 미시적인 고에너지 물질로 조성된 것이다. 내가 오늘 말하는 이 공간은 표면물질로 조성된 것이다. 이런 표면물질 속에 많고도 많은 부동한 원소, 부동한 입자가 존재하고 있다. 이 아주 특수한 표면 공간은 마치 우리 사람과도 같다. 당신 신체 속에 부동한 크기의 세포가 있는데 역시 입자라고 부를 수 있지 않은가. 세포 표면에는 모두 한 층의 껍질(皮)이 있다. 그럼 줄곧 우리 인체 표면 피부(皮)에 피부를 구성하는 입자의 껍질(皮)까지 인체의 표면 입자의 껍질은 사람표면의 살가죽(肉皮)을 구성하였다. 이 껍질은 극미시 하에서 그 역시 하나하나 극히 광활한 공간이다. 신체 속의 그 입자의 껍질로 구

성된 살(肉)의 조직과 표면 이내의 구조는 완전히 다른 것이다. 이 우주 역시 이리하다. 물론 그것은 몹시 복잡한 것이다. 우리 사람이 생존하는 이 공간, 그것은 어떤 형태인가? 예를 들어 말한다면 모두 입자로 구성된 것이며 얼마나 큰 입자에서부터 얼마나 작은 입자가 있든지 간에 입자마다 모두 외각이 있다.

나는 오늘 실질적으로 여러분에게 이 외각을 말했다. 이런 외각은 비록 입자가 입자를 감싸고 입자가 입자를 감싸도 어떤 입자는 마치 속에 있는 것과 같다. 지구는 바로 중간 위치이다. 사실 그것들은 모두 밖에 속한다. 이것이 바로 내가 말한 왜 사람은 가장 밖에 있는가 하는 것이다. 그것들은 모두 가장 밖에 속한다. 그것들은 가장 밖의 피각(皮殼)과 연계를 발생하기 때문이다. 피각(皮殼)은 하나의 독립적인 체계이며 우주는 가장 큰 외각이 있는데, 그것들은 모두 이 가장 큰 외각과 연계를 맺고 있다. 우리 이 인류 육체가 존재하는 공간 역시 이런 형식이다. 이 공간 중에는 이 공간의 특징이 있으며 그것과 그 신(神)의 세계와 내가 이전에 말했던 그 공간은 뚜렷이 다르다. 우주 속의 모든 일체 물질의 내원은 모두 이러한 공간에서부터 온다.

오늘 어떤 사람이 나에게 향을 피우는 문제를 물어 왔

다. 나는 이쪽의 물질이 소실된 후 저쪽의 물체는 곧 해방되며 석방되어 나간다고 말했다. 동시에 이쪽의 물체는 저쪽으로 건너갈 수 있다. 그러므로 이쪽의 물질은 저쪽에 대해 말하면 아주 진귀한 것이다. 이쪽의 물질은 연소를 거쳐 이미 변화가 발생했는데, 물질이 이쪽에 있을 때와는 이미 다르기 때문이다. 나는 이전에 한마디 말을 한 적이 있다. 나는, “당신이 지상에서 수련하여 한 줌의 흙을 갖고 갈 수 있다면 위에서는 모두 당신이 대단하다고 여길 것이다.”라고 했는데, 바로 이 뜻이다. 남들은 극락세계는 어디나 모두 금이라고 한다. 그럼 당신이 극락세계로 가면 돌 하나, 먼지 한 알도 없는 것을 발견할 것이다. 그럼 당신이 이 물질세계에서 그것을 좀 가지고 간다면 바로 극히 진귀한 것이다. 우리 사람은 한마디 말이 있는데, ‘흔치 않을수록 귀하고, 적을수록 기이하다.’는 말이다. 물론 실제로 꼭 이러한 것은 아니지만, 곧 이런 뜻을 말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 속의 일체 물질 내원은 역시 이쪽에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우리 사람이 특별히 이 일을 한다는 것이 아니며, 이 우주 중의 기제(機制)가 작용을 일으키고 있다.

나는 진일보로 이 표면으로 구성된 세계를 말하겠는

데 바로 우리가 눈으로 보는 이 별이다. 별마다 또 그것의 다른 공간이 있으며 많고도 많은 부동한 입자로 구성된 공간이다. 그러나 입자로 구성된 가장 큰 표면의 이 한 층 공간은 즉 바로 그것의 껍질이며 그것의 가장 표면이다. 방금 나는 인체를 놓고 비교하였다. 이 우주를 놓고 비교한다면, 우리 사람이 사는 이 우주는 바로 이 우주의 외각이다.

이 우주는 너무나도 큰 것이며 우리는 또 실제로 이 우주 중간에 있다. 그러나 내가 방금 말했듯이, 입자가 부동한 입자에 포위된 것 같지만, 사실 당신은 역시 밖에 있다. 왜냐하면, 당신이 존재하고 있는 이 공간의 구조, 물질, 연계는 모두 외면 공간의 그러한 체계로서 외면 공간의 제약을 받기 때문인데, 그것은 이러한 상황이다. 아울러 나는 또 말했다. 석가모니 부처는 모래알 하나에 삼천대천세계(三千大千世界)가 들어 있다고 했다. 사실 역시 그 모래의 입자 표면으로 구성된 미시적 공간 속에 많고도 많은 부동한 세계가 존재하고 있음을 말한 것이다. 그러나 나는 오늘 더욱 명확하게 여러분에게 알려주겠다. 바로 이 모래의 외각(外殼) — 껍질(皮)은, 모래를 구성하는 각층 입자의 외각을 포함하여 우리 이쪽의 물질 공간과 같은 체계이다. 분자로 조성된

부동한 크기의 입자 중의 많고도 많은 생명, 생명의 형태와 우리 인류 생명의 형태는 똑같다. 다시 말해서 모래 속에 존재하는 그 사람과 우리 사람은 똑같다. 흑인이 있고 백인이 있으며 황인종이 있다. 또한, 장래에 당신들은 아주 괴상한 것을 볼 수 있을 것인데, 바로 그들의 옷차림이 우리 고대인과 모두 비슷하다는 것이다. 또한, 그들의 이 세계의 더욱 미시적인 데서도 일종 전반적인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 이런 변화는 이전에는 말하지 않았다. 바로 부동한 미시적 세계에도 일정한 천체 범위(天體範圍)가 있다. 방금 말한 것은 모래의 입자로 구성된 그것의 천체 범위이다.

우리가 말하는 그 미시적 세계 속에 존재하는 그런 생명, 그들은 또 다른 체계이며 또 다른 천체 생명의 체계이다. 그 속에도 그들의 불(佛)·도(道)·신(神)과 사람·동물·물질·산(山)·수(水)·천(天)·지(地)·공기와 그들의 그 미시적 우주 중에 존재하는 일체 물질이 있다. 게다가 또 더욱 미시적이고 더더욱 미시적인 이러한 세계가 존재한다. 그러므로 우리 과거에 수련한 많은 사람이 그 미시적인 세계 속에서, 그 작고도 작은 모래·흙·돌에서, 그 미시적 세계에서 나온 부처를 본 적이 있다. 그 부처, 그는 아주 크게 변할 수도 있다. 이 체계보

다 더욱 작은 한 층 체계 속에도 불(佛)·도(道)·신(神)·인(人)이 있으며 그의 그 부처도 변화되어 나와 우리 이 세계 속으로 올 수 있는데, 그가 부처이기 때문이다. 그는 얼마나 크게 변할 수 있는가? 그는 가장 크기로는 은하계만큼 이렇게 크게 변할 수 있다. 그가 작기에는 종적도 없다. 그는 그 미시적 세계 속의 부처이기 때문에 우리 천체 속의 부처와는 완전히 다르다. 그러나 생긴 형상은 같으며 수련하는 요구 역시 모두 같고 마찬가지로 위대하며 역시 마찬가지로眞(眞)·善(善)·忍(忍), 이 법이 위에서 아래로 관통하여 내려온 것이다.

이 우주는 그야말로 너무나도 오묘하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더욱 더욱 작다 해도 여전히 더욱 작은 그 불(佛)·도(道)·신(神)·사람·물질이 존재하는 그런 천체(天體)가 있다. 하지만 단지 모래 한 알 속에만 생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주의 모든 물질, 크고 작은 입자, 내외(內外)의 일체 입자의 껍질(殼)에 널리 퍼져 있다. 그렇다면 나는 방금 미시적인 데로 말했는데, 이 방대한 천체가 일정한 정도로 커졌을 때, 곧 우리 이 천체의 범위를 벗어나게 된다. 이 천체의 범위는 또 이 우주란 용어로 개괄할 수 없으며 이 개념과 완전히 다르다. 우주가 커져서 어느 경계에 이르면 갑자기 우주 사이에 아무

것도 없는 텅 빈 곳에 도착하게 된다. 더욱 멀리 가면 더욱 큰 천체가 존재하는 것을 또 발견한다. 그것은 우리 이 천체와 전혀 다르다. 내가 말하는 이 천체는 우리 이 우주 개념을 완전히 벗어났다. 그럼 그 더욱 큰 천체 중의 그 불(佛)·도(道)·신(神)은 특별히 크며, 그가 우리를 보면 마치 우리가 미시적인 세계, 미시적인 천체 속의 불(佛)·도(道)·신(神)·사람·물질을 보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그들은 다른 또 하나의 체계이며 그 크기란 대단하다. 그들은 우리 사람들을 볼 뿐만 아니라, 그는 우리 이 천체도 보는데, 마치 우리 사람이 출토된 문물을 보는 것과 같다. 그는 아주 이상하고 또 아주 오묘하며 또 참으로 좋고 참으로 재미있다고 생각한다. 그도 이 생명이 오묘하기 그지없다고 생각한다. 이 작디작은 천체 속도 생기가 충만하다고 그 역시 이렇게 본다. 하지만 그는 우리와 같은 생명이 존재하는 그런 천체 범위 내의 개념이 없으며 전혀 없다. 그가 볼 때 당신은 바로 그 미생물의 생명이며 그들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 그러므로 우리 수련하는 많은 사람이 늘 그 돌·모래 속, 심지어는 더욱 작은 미시적인 입자 속에서 그런 광경을 보고 느끼는 감수와 같은 것이다.

우리 어떤 수련생이 천목이 열렸을 때, 자신의 천목

속에 산이 있고 물이 있으며 자신이 밖으로 달리는 것을 볼 수 있다. 나는 듯이 밖으로 달리며 많고도 많은 산하(山河)를 지나고 심지어 많고도 많은 도시를 지나며 줄곧 천목 안에서부터 밖으로 내달린다. 당신이 본 광경을 내가 당신에게 알려주겠다. 그것은 밖에서 온 것이 아니며 그것은 진실하고도 진실하게 바로 당신, 이 머릿속의 이 세포이며 더욱 미시적인 이 입자가 조성한 그것의 그 세계의 존재형식이다. 나는 늘 말했다. 만약 당신이 볼 수 있다면 하나의 솜털에도 많은 도시가 있으며 또 그 속에서 기차가 달리고 자동차가 달리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고. 듣기에는 허황하고도 허황하다고 느낄 것이다. 이 세계는 바로 이처럼 방대하고 복잡한 세계이다. 우리 지금의 과학 인식과는 완전히 다르다. 나는 늘 말했다. 지금의 과학, 그것은 건립되기 시작할 때부터 불완전한 인식, 그릇된 기점에 서서 발전해 온 것이다. 그러므로 그는 오직 이 틀 속에 국한될 뿐이다. 진정한 과학을 말한다면, 우리가 이 우주 생명 물질을 진정하게 요해(了解)한 정황에 근거하여 말한다면, 지금의 이 과학은 과학으로 여길 수도 없다. 이 과학의 이 한 갈래 길로서는 이 우주의 오묘함을 영원히 탐측해 내지 못하기 때문이다. 인류는 다만 사람 자신이 우주 중의 유일한 생명이다.

라고 믿는데, 그는 너무나도 가련하며 이런 정도로 가련하다. 외계인의 존재, 확실하고도 확실하게 외계인이 우리 지구에 왔던 것이며 일부 사진까지도 찍었지만, 그는 도무지 믿지 않는다. 그는 바로 이 과학에 의해 속박당하였다. 감정으로 처사하는 사람 역시 연구하지 않아 이지가 분명치 않다. 그는 다만 사람에게 이미 접수된 것만 믿으려고 하며 그것이 진정으로 맞거나 맞지 않거나 다만 책에서 배운 것만 믿으려고 한다. 이것이 내가 말한 이런 공간형식이다. 인류의 언어는 아주 제한되었기 때문에 표현하려면 나머지도 몹시 곤란하다고 느끼는데, 나는 여러분이 알아들었는지 모르겠다. (박수)

우리가 인식하는 불(佛)·도(道)·신(神), 우리 사람을 포함하여 우리가 본 일체 물질이 존재하는 공간, 이 속에는 무수한 우주, 헤아릴 수 없는 우주를 포함하고 있는데, 조(兆)로 계산해도 다 계산하지 못한다. 이처럼 큰 하나의 천체 범위, 그것은 하나의 독립적인 체계이다. 그럼 이 체계 밖을 초월하면 또 더욱 큰 천체의 존재가 있으며 그것은 또 하나의 독립적인 체계이다. 그럼 그것을 초월한다면 또 더욱 크고, 더욱 크고, 더욱 큰 천체가 존재하는데, 이 우주는 바로 이처럼 방대하다. 미시적 세계 중에서 그것은 또 극히 미시적이고, 극히 미

시적이다. 우리 사람이 생존하고 있는 이 경지는 거의 중심위치에 있으며 거시적으로 보나 미시적으로 보나 인류 세계는 거의 중심위치에 놓여 있다. 부동한 입자가 부동한 공간을 조성하였지만, 이것 외에 또 특수하게 부동한 입자로 조성된 표면 세계가 있다. 여러분 알다시피 내가 중국에 있을 때 어떤 수련생은 말하기를, 어떤 제자의 元神(웬선)이 신체를 떠나 우리 이 물질공간의 태공(太空) 속으로 떠돌아다녔다고 한다. 하지만 그는 왜 부처의 세계를 보지 못했고 신(神)의 세계를 보지 못했는가? 그가 본 것은 완전히 우리 이 물질공간의 진실한 광경인데, 오히려 신(神)이 없는가? 그는 사람의 생존 공간인 피각(皮殼), 이 공간 속으로 왔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러한 물질 공간 형식이기 때문에 그가 보는 것은 이런 정황이다. 이것이 내가 말한 이런 공간의 존재 형식이다.

우리 어떤 수련생이 나에게 이런 말을 물었다. “사람의 생명은 어떻게 온 것입니까?” 내가 물질의 본원(本源)을 말했기 때문에 나도 이 문제를 말하겠다. 여러분은 내가 과학을 말한다고 여기지 말라. 불법(佛法)은 일체를 포함한다. 나는 이전에 물질 본원을 말한 적이 있다. 본원은 무엇인가? 나는 줄곧 여러분에게 이 물질

의 본원 그것이 무엇인지를 말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내가 방금 말한, 이처럼 부동한 큰 천체의 본원은 말할 수 없다. 하지만 나는 당신들에게 우리 이 천체 내의 부동한 경지 중에 존재하는 물질과 생명의 본원이 무엇인지 말해 줄 수 있다. 사실 물질의 본원은 바로 물이다. 우주 본원의 물이지, 속인 지구의 물이 아니다. 왜 물질의 본원, 그것을 물이라고 말하는가. 부동한 층차의 가장 미시적인 물질은 일정한 때가 되면 물질이 없어진다. 물질이 없어진 후에는 물질의 과립이 존재하지 않는다. 더 보면 곧 한 가지 문제를 발견한다. 물질 입자의 존재를 볼 수 없는 그 조용하고도 조용한, 통상적으로 나는 그것을 보통 사수(死水)라고 부르며 또 본원이라고 부르는데, 생명이 없는 물임을 발견한다. 그것은 당신이 한 덩이 물건을 던져도 잔물결이 일어날 수 없으며 소리가 진동해도 파동이 생길 수 없는바, 완전히 정지되어 있다. 물질의 가장 기본적인 조성은 바로 이런 물에서부터 온다.

어떻게 조성되는 것인가? 이 우주 중에는 법이 있다. 이 법은 바로 우리가 말하는 眞(쩨)·善(싼)·忍(런)이며, 이런 우주의 특성이 이 물을 가장 초기적이며 가장 미시적이고 가장 원시적인 물질의 단일입자로 조성하는

데, 그것을 최고원시입자(最原始粒子)라고 부르기도 한다. 그러나 그것은 단일한 것이며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즉 마치 하나의 수포(水泡)와도 같다. 그럼 다시 두 개의 원시적인 입자를 한데로 합쳐 다시 더 큰 원시 입자를 조성하고 그다음 또 두 세트의 양위일체(兩位一體)의 입자로 좀 더 큰 입자를 합성한다. 이렇게 끊임없이 조합하여 내려간다. 줄곧 부동한 층차의 입자가 각종 물질의 외형·생명·물질·공기와 생존에 필요한 빛·물·시간 등등 등등을 조합하는데, 입자는 부동한 조합 방식이 있을 수 있는바, 우리는 오늘날 배열순서라고 부른다.

입자의 배열순서, 그것은 부동(不同)한 것으로, 그렇다면 그 한 경지 중의 표면적 물질도 부동하게 구성되는 것이다. 이렇게 끊임없이 미시적인 데에서 거시적인 데로 더욱 큰 입자, 더욱 큰 입자로 조합을 이루어 최후에는 우리 오늘날 인류가 인식하는 중성미자·쿼크·전자·중성자·원자핵·원자·분자로 조합을 이루었다. 우리가 인식하는 표면물질에서부터 더욱 큰 천체에 이르기까지 조성한다. 이 표면물질이 이 일보까지 조합되었을 때 그것의 배열순서 변화가 다양함으로 말미암아 이 표면물질의 차이는 곧 상당히 크다. 그러나 우리 여러분이 다

알다시피 이 나무, 그것은 분자로 구성된 것이며 이 철, 그것 역시 분자로 구성된 것이고 플라스틱 역시 분자로 구성된 것이다. 우리 이 공간의 물을 포함하여 그것 역시 더욱 미세적인 물이 조합되어 더욱 큰 입자로 구성된 물 분자를 이룬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말한다. 그것이 기왕 더욱 미세적인 데에서 표면물질을 조성하였다고 한다면, 내가 여러분에게 알려주겠는데, 전반적으로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이 우주는 바로 물로 구성된 것이다. 그런 물은 밀도가 극히 큰 것이며 전혀 움직이지 않는 물로서, 그것으로 구성된 것이다.

여러분은 아마 고대의 어떤 사람이 말한 신화를 들었을 것이다. 어떤 수도인(修道人)이 돌에서도 물을 짜냈다는 것이다. 내가 여러분에게 알려주겠다. 들어보면 우리 지금 사람의 사유 관념, 지금의 과학으로는 설명할 수 없을 것 같다. 그는 당신이 신화(神話)를 이야기하며 아라비안나이트를 이야기한다고 생각할 것이다. 내가 여러분에게 알려주겠다. 그것은 확실하고도 확실한 것이다. 왜냐하면, 일체 물질은 모두 물로 구성되었기 때문이다. 강철에서도 물을 짜낼 수 있으며 심지어는 녹여 물이 되게 할 수 있는데, 더 단단한 물질의 기본 입자도 모두 물에서 내원(來源)한다. 만약 이 각도에서 불법

신통을 이해한다면, 내 생각에 이해하기 어렵지 않은 것으로, 그는 그렇게 큰 위력이 있으며 그는 그것을 원시 물질로 되돌릴 수 있다. 방금 내가 말한 이런 형식, 그것은 단계적이며 부동한 큰 층차 중에는 부동한 이런 물이 있다.

우리는 또 한 문제를 발견하였다. 방금 내가 말했듯이, 우리 이 물 역시 아주 미시적인 그 물로 조성된 더욱 큰 한 층의 입자이며, 최후에 물 분자로 조성되었고 우리 이 세계의 물이 되었다. 그렇다면 그 부동한 층차의 본원적인 물은 또 인류 물질세계보다 더욱 큰 한 층 입자를 조성할 수 있는가 없는가? 그런 다음 또 그것의 그 물을 조성하는 것이 아닌가? 사실 내가 방금 말했듯이 우주로 말하면 우주의 최종이 무엇인지를 나는 말할 수 없다. 하지만 나는 여러분에게 알려줄 수 있다. 부동한 층차 중에는 부동한 물질의 본원이 존재한다. 다시 말해서 부동한 물질 본원의 물이 존재한다. 더욱 위로 올라갈수록 그 물의 밀도는 더욱 크다. 그것은 가히 부동한 공간의 부동한 입자, 부동한 물, 부동한 생명을 조성할 수 있다. 여러분이 아다시피 인체, 강철, 일체는 모두 우리 이 공간의 생명과 물체이다. 바로 우리가 인식하고 사람이 접촉할 수 있는 생명,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생명은 사실 역시 이 물에서 온 것인데, 다만 속인 세계의 물에 불과할 뿐이다. 우리 가장 표면적이며 그 움직이지 않는 본원의 물로 인류의 이 물을 조합했다. 이 차이는 아주 크다. 우리 사람의 눈으로 보는 생명물질 역시 이 물로 조성된 것이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채소를 손으로 짊 쥐고 비틀고 비틀면 최후에 아무것도 남지 않으며 모두 물이다. 과일도 역시 마찬가지다. 지금의 과학자는 인체의 70%는 모두 물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그는 뼈, 머리카락마저도 모두 물 분자로 조성되었음을 여전히 모른다. 다만 이러한 것은 더욱 미시적인 물로 조합된 입자로 구성되었을 뿐, 사실은 모두 물이다. 더욱 미시적인 입자로 구성된 우리 이 물질공간의 일체는 모두 물로 조성된 것이다.

이 미시적인 물질은 표면적으로 부동한 물질을 조성할 수 있는데, 바로 그것의 입자 배열순서가 부동하게 조성된 것이기 때문이다. 만약 당신이 마술(魔術)을 할 수 있다면, 물론 과거 많은 사람은 마술을 할 줄 알았는데, 그 물을 얼음으로 변화시키거나 한 물체를 다른 물체로 변화시킬 수 있었다. 듣기에는 아주 허황하나 사실 조금도 허황하지 않다. 당신이 만일 그것의 분자 배열순서를 바꿀 수 있다면 그것은 바로 다른 물건이 된다. 그

렇다면 어떻게 물질 표면의 형상을 바꾸는가? 물론 형상은 바꾸기가 더욱 쉬운 것으로, 형상이 바뀌기만 하면 곧 다른 물건으로 된다. 층차가 더욱 높은 불(佛)·도(道)·신(神)일수록 그는 이러한 위력을 더욱 갖춘다. 여러분 알다시피 사람은 몹시 저능(低能)한 것인데, 어떤 정도로 저능한가? 사람이 한 가지 일을 완성하려고 하면, 한 가지 일을 하는데 직접 손발을 움직여야 하며 당신의 육체노동을 거쳐 그것을 이루어야 한다. 그러나 부처는 그럴 필요가 없다. 부처는 오로지 사상으로 생각만 하면 된다. 부처는 많은 신통이 있고 많은 공능이 있으며 그 자신은 또 강대한 공이 있기 때문이다. 그 공의 때 미립은 모두 그 본인의 형상이며 그 미립은 또 더욱 더 작은 미립으로 조성된 것으로서 모두 그의 형상이다. 당신이 생각해 보라. 그가 척 생각할 때에 그 공은 곧 나간다. 극히 미세적인 데서 그 부동한 층차의 입자 구조를 바꾸며 시간 또한 가장 빠른 공간의 시간이기에 순간적으로 이루어진다. 부처가 일함은 대단히 빠르며 우리 이 공간과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 일순간에 그는 가장 기초적인 데서부터 그 물체를 다른 물건으로 바꾼다. 이것이 바로 불법 신통이 작용을 일으키는 원리이다. 왜 부처는 생각만 해도 그것이 곧 변할 수 있는가?

부처가 생각하면 공(功)의 무수한 입자와 무량(無量)한 지혜는 곧바로 각 층차에서 동시에 개변시키고, 정체(整體)적으로도 하고자 하는 일체로 개변시키며, 그의 공의 더욱 큰 과립 또한 그것의 표면을 개변시킨다. 한 물체, 그것의 가장 기본적인 입자에서 표면 입자에 이르기까지, 모두 그의 공이 미시적인 데서 표면에까지 동시에 개변시킨다. 그는 그 한 가지 일을 일순간에 변화시키며 일순간에 이루어낸다. 없던 데에서 있는 데까지, 그는 가히 공기 중에 존재하는 분자, 입자로 당신이 볼 수 있는 물체를 조성하는데, 이것이 없던 데에서 있는 데까지이다. 왜 불법 신통은 이처럼 큰 힘이 있는가? 인류의 과학기술은 영원히 여기에 도달할 수 없다.

인류가 과학기술을 통해서도 불법의 역량에 도달할 수 없다. 왜냐하면, 사람은, 과학기술의 발전 중에서 도덕도 따라 승화되지 않기 때문인데, 이것은 불가능하다. 게다가 사람은 이 과학기술이 발전할 때 모두 한 가지 일을 완성하려 아주 강한 집착심을 가지게 되고 또 이 우주의 법리에 어긋나므로, 心性(썩썩)이 그런 높이에 도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뿐만 아니라 사람에게에는 또 칠정육욕·각종 집착심·쟁투심·질투심·환희심·탐욕심 등등 많고도 많은 것이 있다. 만일 정말로 그런 높은

과학기술 수단이 있다면 이 우주는 곧 성구대전(星球大戰)이 일어난다. 정말 우주대전(宇宙大戰)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나 불(佛)·도(道)·신(神) 역시 허용하지 않는바, 절대 사람이 우주에 화란(禍亂)을 일으킬 수 없도록 한다. 그러니까 신(神)이 인류를 제약하고 있다. 인류도덕이 제고되지 않고서는 과학기술이 것처럼 높게 도달함을 허용하지 않는바, 절대 불가능하다.

내가 늘 말했듯이 인류는 부동한 역사 시기를 거쳐 오늘까지 발전하였다. 다시 말해서 인류는 여러 차례 부동한 역사 중에서 겁난을 거쳐 휘멸되었던 것이고 그런 다음 또 새롭게 생겨났는데, 이런 부동한 주기적 변화를 거쳐 온 것이다. 무엇 때문인가? 수련계에서는 모두 이런 현상을 발견하였다. 즉 매년 인류가 위험한 경지에 처했거나 혹은 역사에 따라 도태될 때는 모두 인류도덕이 극단적으로 부패했을 때였다. 사람들이 말하기를 희랍문화가 어떠한가 좋았다고 하는데, 사람들은 어디로 갔나? 지금 희랍문화에 한 가지 문제가 발견되었는데, 즉 그 희랍문화가 남겨놓은 문화는 틀림없이 그것이 발전한 최후시기의 것으로서, 우리는 그 속에 동성애와 무슨 성적으로 난잡한 것이 있고, 게다가 생활이 몹시 사치스럽고 부패하여, 몹시 타락한 것을 발견할 수 있는

데, 그 인류가 이미 몹시 부패했음을 볼 수 있다. 왜 그
 것이 소실되었는가? 바로 그것의 도덕이 안 되었기 때문
 이다. 사람이란 단지 인류의 외형만 있다고 하여 그를
 사람이라고 할 수 없다. 왜 그 귀신, 그것을 사람이라고
 하지 않는가? 그것은 당신보다 한 층의 입자가 적을 뿐
 이다. 왜 그 원숭이, 오랑우탄, 그것을 사람이라고 부르
 지 않는가? 왜냐하면, 사람은 단지 사람의 사지 몸통만
 갖추고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사람의 도덕규범, 도덕관
 념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사람이 사람의 도덕관념을
 잃고, 사람의 도덕규범을 저버리고, 사람으로서 준칙을
 저버린다면, 그는 사람이 아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인류
 사회를 내가 솔직하게 여러분에게 알려주자면, 신(神)
 은 이미 그를 사람으로 보지 않는다. 당신이 생각해 보
 라. 그래도 사람이 위험하지 않단 말인가? 정부가 허용
 하고, 국가가 허용하며 민족이 허용하고, 심지어 당신의
 이 사상 경지 중에서 당신의 의식 중에서 당신이 인가한
 다 해서 그가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당신
 은 오늘 이 사회를 보라. 마약 흡입·마약 판매·마약 제
 조·성 전환·동성애·성 해방·마피아 등이 끊임없이 나타
 난다. 이기적인 것과 욕망은 사람마다 적으로 대하게끔
 하며 정념(正念)이 조금도 없다. 인류사회를 부패시키

는 각종 현상이 곳곳에 다 있다. 각 업종 중의, 무슨 현대파 예술, 무슨 로큰롤 음악, 축구장의 마성(魔性) 대 폭발 등등이다. 사회 전반의 모든 분야를 관통하고 있다. 인심(人心)이 나쁘게 변하자 관념마저 모두 거꾸로 되어 좋은 것을 나쁜 것으로 간주하고, 나쁜 것을 좋은 것으로 간주하는데, 사람의 관념이 모두 거꾸로 되었다. 금전(金錢)과 명리(名利)를 강취(強取)하고, 투쟁철학을 선양하는바, 마피아의 우두머리가 우아한 자리에 올라앉았다. 당신들이 말해 보라. 이것이 그래도 사람인가?

요즘 중학생이 입은 바지를 보면, 허리띠는 엉덩이에 매고, 아래쪽 바짓가랑이는 마치 한 뭉치 창자와도 같이 너털너털하다. 허리띠는 혈렁혈렁하고, 머리는 양쪽을 박박 깎아버려 위가 마치 집의 처마 같다. 또 어떤 것은 중간에 단지 한 줄 머리카락만 남겨 귀신같지만, 그는 오히려 보기 좋다고 여긴다. 그러나 그는 보기가 좋은가 좋지 않은가? 자세히 살펴보면 그는 어떠한 미(美)적 개념도 없다. 여인은 검은색 복장에 마성적인 머리 모양으로 무뚝뚝한 표정을 짓고 있는데, 꼭 저승(陰間)의 귀신 같다. 바로 사람의 관념이 거꾸로 되었으며 마의 장난으로 말미암아 인류는 음침하고 어두운(陰暗) 것을

아름다움으로 간주하고 있다.

내가 그날 말했듯이, 요마귀괴(妖魔鬼怪) 형상을 한 장난감은 추악할수록, 흉할수록 더욱 잘 팔리고 그 예쁜 인형은 누구도 사가지 않는다. 사람의 관념은 전부 다 변했다. 여러분 생각해 보라. 그것이 두렵지 않단 말인가? 인류의 발전은 확실하고도 확실하게 주기적이다. 인류가 이런 일의 발생을 피하려고 한다면 오로지 한 가지 방법뿐인데, 바로 사람의 도덕을 수호해야 한다. 여러분이 보았지만, 지금 사회문제는 끝이 없으나 어느 정부에서도 해결하지 못한다. 민족문제, 국가와 국가의 문제, 민족 간의 갈등, 민족 내부의 갈등, 많고도 많은 사회적 범죄, 여러 면의 원인을 어느 정부에서도 모두 골치를 앓지만, 누구도 해결하지 못한다. 왜 해결하지 못하는가? 그들의 방법은 모두 단지 이 현상 중에서 이 현상을 해결하려 하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이 현상은 억제되었지만, 이어서 그것은 또 더욱 좋지 못한 현상으로 나타난다. 당신이 다시 그것을 제약하면 그것은 또 더욱 좋지 못한 현상으로 나타난다. 인류가 제정(制定)한 법률은 바로 기계적으로 사람을 제한하고 사람을 봉쇄시키는데, 법률을 제정한 사람을 포함한다. 사람이 끊임없이 자신을 봉쇄하고, 봉쇄하고, 봉쇄함으로써 최후에는 사

람이 봉쇄되어 아무런 출로도 없다. 이 법률로 정한 것이 너무나도 많아 사람은 모두 마치 동물처럼 통제되고 있으며 출로가 없는데, 누구도 방법을 생각해 내지 못한다.

그러나 내가 당신들에게 알려주겠다. 사실 인류의 일절 좋지 않은 근원은 바로 사람의 도덕이 부패했기 때문이다. 만일 이에서 시작하지 않으면 인류의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없으며, 만일 이 문제에서부터 시작한다면 인류의 어떠한 문제든지 다 해결할 수 있다. 이 문제인가 아닌가? 여러분 생각해 보라. 사람마다 모두 내심에서 스스로 좋은 사람이 되려 하고, 모두 자신을 단속하며, 무슨 일을 하든지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해치지 않으며, 다른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지를 생각한다면 그 사회가 어떠한 모양이겠는지 당신이 생각해 보라. 무슨 법률이 필요하겠는가? 경찰이 필요하겠는가? 사람들이 모두 자신을 단속하고 자신이 자신을 책임지고 있는데. 하지만 정치 선전이나 강권 통치는 마찬가지로 도덕을 승화하지 못 하게 하고, 반대로 졸렬하게 할 것이다. 세계가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발전해 오며 사람들은 모두 법치가 아주 좋다고 생각한다. 사실 그것은 방법이 없는 방법이다. 몇 천 년을 발전해 온 인류이지만, 과거

에는 사람을 관리하는 것처럼 많은 법률이 없었다. 다만 간단한 왕법(王法)이 있었으며 좋고 나쁨을 가늠하는 표준은 德(덕)였다. 그러나 옛사람의 도덕은 오히려 지금보다 훨씬 고상했다. 지금 사람은 옛사람이 좋지 않다고 여기는데, 사실은 당신이 지금 사람의 부패한 관념으로 옛사람을 보기 때문이다. 과거의 사람이 지금 사람보다 총명하지 않은 것이 아니다. 사람의 대뇌 중 쓸 수 있는 부분은 여태껏 확대된 적이 없다. 다만 우리 지금의 사람이 자신을 대단하게 여길 뿐이며 자신이 총명하다고 여길 뿐이다.

사회의 발전도 신(神)이 배치한 것으로서, 당신이 이 일보까지 발전됨을 허용했기 때문에 현대화된 기계, 현대화된 설비, 현대화된 생활도구가 나타났다. 옛날 사람들이라고 그것을 만들 생각을 하지 못했겠는가? 다만 신이 그 일보에 배치하지 않았을 뿐이다. 현대인은 옛사람보다 조금도 총명하지 않다. 하지만 이 물질이 발전할수록 흔히 사람은 이 물질 현실 속으로 더욱 빠져들게 된다.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가. 옛날 사람들은 만들어 내지 못하였는데 우리 현대인은 신선도 따라잡았다.’라고 생각한다. 비행기를 타고 어제 유럽에서 미주에 도착하는데, 이는 신선과도 같다. 내가 여러분에게 알려주겠다.

이 호한(浩瀚)한 우주 중에 이 일체는 일찍이 있었다. 다른 세계 중에 일찍이 있었다. 사람이 좋지 않게 되었기 때문에 아래로 떨어졌으며 인류 여기까지 떨어져 왔고 이 지구로 떨어져 왔다. 사람의 사상 중에는 모두 선천적인 의식이 존재하는데, 다만 자신이 모를 뿐이다. 무슨 과학기술 수단을 거친 것이라든가, 무슨 자신의 과학기술이 어떻게 선진적이라든가, 무슨 비행기, 자동차를 만들어 냈다든가, 무슨 현대화된 물건 등이다. 사실 내가 여러분에게 알려주겠다. 다만 당신의 의식 중에 예전의 것이 있었을 뿐, 이 쓰레기더미 속에서 당신은 또 쓰레기를 쓰며 가장 표면적인 거친 물질을 또 만들어 내고는 사람이 그래도 괜찮다고 여긴다. 물론 인류는 바로 이렇게 떨어져 내려온 것으로 그가 좋지 않게 되었기 때문에 이 한 지경까지 떨어져 온 것이므로, 사람은 고생을 감당해야 한다. 그렇다면 인류의 발전은 사람 자신이 어떻게 발전하려고 생각한다 해서 곧 어떻게 발전하고 마음대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 편안하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절대 안 된다. 그러므로 사람은 위험하다. 이 사람이 겁난(劫難)을 말하고 저 사람이 겁난을 말하지만, 나는 여태껏 이런 일을 말하지 않았으며 또 소용도 없다. 있든지 없든

지, 나는 그것을 말하지도 않는다. 있다 해도 우리 연공하는 사람, 좋은 사람과는 상관이 없다. 하지만 우리는, 사람이 오늘날까지 발전되어 왔음에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때 번거로움에 부딪혀 인류에게 출로가 없어지는 것을 확실하게 보았는데, 이는 틀림없이 인류 도덕의 부패로 말미암아 조성된 것이다. 방금 생명의 구성을 말하고 공간을 말했다기 때문에 우리는 거꾸로 인류를 말한 것이다. 물질로 사람을 구성할 수 있음은 입자가 부동(不同)한 물질로 조합될 때 그것이 사람의 부동한 표면 물질로 조합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분자의 배열순서가 뼈의 입자 배열 그러한 표면물질이면 곧 뼈이다. 살(肉)의 분자 배열순서로 배열되었다면 그것은 곧 살이다. 무엇으로 배열되면 그것은 바로 그것이다. 이는 곧 당신의 생명을 구성할 수 있는데, 설명하자면 아주 간단하다.

방금 나는 또 한 가지 문제를 말했다. 많고도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신(神)이 사람을 만들었다고 한다. 어떤 사람은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고 어떠한가하다고 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만든 것인지 구체적인 현상은 말하지 않겠다. 사실 어떻게 만든 것도 다 있다. 더욱 큰 신(神)은 생각만으로도 당신을 만들어낼 수 있다. 어떠한 물체든지 모두 살아있는 것으로 당신의 외형을 만들어 낸 다음

다시 내장을 만들어 낸다. 사람의 인체는 몹시 복잡하다고 여기지만, 대지대각(大智大覺)한 신(神)으로 말하면, 작고도 작은 한 가지 일에 불과하다. 부처는 생각만으로 극히 미시적인 데에서, 물질로써 당신의 내장을 만들어 주는데 아주 빨리 만들어 낼 수 있다. 한 가지 물체가 형성될 때마다 한 생명이 주입해 들어가게 된다. 물론 사람은 또 副元神(푸웬션)이 있으며 많고도 많은 생명이 모두 와서 사람을 구성한다. 말하자면 바로 이런 상황이다.

예전에 과학계 사람들은 늘 쇠뿔을 파고들기를 즐기는데,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를 말한다. 내가 말한다면 닭도 없고 달걀도 없다. 바로 미시적인 물질이 거시적인 물질을 조성하였다. 작은 입자가 더욱 큰 입자를 조성하였다. 그런, 아직 물질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으로 물질을 조성하였다. 더욱 큰 생명과 우리 이 생명은 비록 체적에서 볼 때 신체를 구성하는 입자가 같지 않으며 외형을 구성하는 크기가 같지 않으나, 생명 존재를 구성하는 그 물질은 아무리 커도 아무리 작아도 그의 표면 입자 배열순서는 같다. 예를 들어 말하면 더욱 큰 한 층의 그 사람, 그의 신체의 개개 입자가 만약 바로 별이 층의 입자로 구성된 것이라면, 그의 살과 우리 사람

신체의 분자배열은 같다. 다시 말해서 별의 배열순서와 살을 구성하는 우리 분자의 배열순서는 마땅히 같아야 한다. 그러므로 더욱 작은 한 층의 사람 역시 이렇게 구성된 것으로 더욱 작은 데까지이다. 이 문제를 나는 이만큼 말하겠다.

오늘을 끝으로 이 우주의 구조를 이미 다 말했다. 물론 상세한 상황은 말할 수 없다. 어떤 사람이 나에게, “스승님, 저희는 부처님이 어떻게 생활하시는지 알고 싶습니다.”라고 물었다. 나는, 그럼 당신은 부처로 수련 성취하도록 하라고 했다. 사람은 부처가 어떻게 생활하는지 모르기 때문이다. 사람은 절대 그 개념이 있을 수 없다. 당신에게 말한다 해도 당신은 역시 사람의 환희심, 사람의 사상, 사유논리로 그를 대할 것인바, 그를 욕하고 그를 존경하지 않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체적으로 말할 수 없다. 나는 다만 제한된 인류의 언어로 개괄적으로 말할 수 있을 뿐이다. 사실 우리가 오늘이 중국어를 선택하여 말함이 가장 적합하다. 왜냐하면, 중국어는 세계에서 표현력이 가장 강하고 내포가 가장 큰 언어이기 때문이다. 만약 영어, 혹은 다른 문자로 말한다면 아무것도 말할 수 없다. 나는 그것을 분명하게 말하기 위해 일부 방언을 썼다. 규범적인 현대 중국어도

그것을 똑똑히 말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아마 나의 말 중에 지방의 그런 언어가 있는 것을 들었을 것인데 아주 적합하게 그것을 형용할 수 있다. 게다가 단어 사용도 규범적이지 않다. 신팔고(新八股)도 더욱 깊은 내포가 없으며 그렇지 않을 경우 표현할 방법이 없다.

또 한 가지 문제를 말하겠는데, 바로 여러분이 줄곧 아주 관심을 두고 있는 문제이다. 어떤 사람이 “스승님, 저는 연공하지만, 아무것도 보지 못합니다.”라고 한다. 우리는 이 볼 수 있고 볼 수 없는 것이 어찌 된 영문인지 말해 보자. 사실 내가 천목을 말할 때 이미 언급하였다. 사람에게 대한 요구는 비교적 높으며 이치는 끊임없이 승화하는 것이다. 내가 더 말한다면 곧 인식을 초월하게 된다. 하지만 나는 될 수 있는 한 나의 지난번 이야기와 통하도록 하겠다. 나는 더 진일보로 여러분에게 이 문제를 말하겠다.

우리 이 자리에 앉은 절대다수 사람은 모두 근기가 매우 좋다. 사실 당신이 수련하기 시작해서부터 오늘까지 시간이 짧더라도 당신 역시 마땅히 일부 것을 볼 수 있어야 하지만, 우리가 『전법륜(轉法輪)』 중에서 사람의 집착심을 제거할 것을 강조하고 요구함이 아주 엄격하

므로 많은 사람이 보지 못한다. 많은 사람이 정말로 어렵듯이 무엇을 보았는데도 그는 감히 믿지 못한다. 이 속에 있는 몇 가지 원인이 당신으로 하여금 보지 못하게 하고 볼 수 없음을 조성한다. 첫째, 바로 어떤 사람은 자신이 무슨 물건을 보든지 마치 자신이, 이 물질세계를 보듯이 똑똑해야만 비로소 보았다고 인정한다. 이것은 몹시 강한 장애이다. 그는 늘 사람의 사상개념으로 이 문제를 인식한다. 이런 것이 아니다. 당신이 만일 정말로 것처럼 똑똑하게 볼 수 있다면 당신은 이미 개오(開悟)한 것이며 100% 개오한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그 때에 신(神)을 보면 사람을 보는 것보다도 더 똑똑하다. 왜냐하면, 그 세계의 입체감은 우리보다 강하고 공기는 우리보다 투명하며 물질은 우리보다 확실하기 때문인데, 더욱 똑똑하게 보인다. 바로 우리에게 이런 관념이 있기 때문에 똑똑히 볼 수 있어야 비로소 정말로 봤다고 여기는데, 이런 것이 아니다. 당신이 수련과정 중에서 보는 것도 당신으로 하여금 것처럼 똑똑히 볼 수 없게 한다. 그러므로 보아도 다만 흐릿할 뿐이다. 또한, 일부 특정한 사람은 비교적 똑똑히 보았으나 그가 본 것은 국부적이며 시각이 아주 좁다. 똑똑히 보는 부분은 다만 한 조각일 뿐이다. 시각이 매우 넓다면 본 것은 틀림없이 비

교적 흐릿하다. 그렇게 똑똑하게 볼 수 없거나 혹은 다만 아주 낮게 아주 좁은 공간을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의 이른바 현실적인 그 물질적 개념으로 자신에게 장애를 만들지 말아야 하는데, 이것이 한 가지 원인이다. 하지만 예외적인 것도 있는데, 날 때부터 아주 똑똑하게 보는 사람이 소수 있다. 더 말하지 않겠다.

또 하나 원인이 있다. 우리 많고도 많은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볼 수 있다. 그러나 그는 늘 그것을 환각으로 간주하며 그는 늘 그것을 상상으로 간주한다. 초기에 이런 것도 있었다. 내가 특별히 『전법륜(轉法輪)』 중에서 여러분에게 말했다. 생각하지 말아야 하며 마음에 따라 변화하기에 당신이 생각만 하면 그것은 곧 변하며 당신의 마음에 따라 변한다고 알려주었는데, 우리 일부 사람은 이 관계를 바로잡지 못한다. 당신의 집착심, 환희심에 따라 조성하게 되는 그 원인 외에 또 한 가지 장애가 있다. 무슨 장애인가? 바로 당신의 이 사상이 무엇을 생각하는 것과 당신이 본 물체형상은 대뇌의 같은 구역에서 반영되어 나온다. 작용을 일으키는 것이 대뇌의 같은 부분이다. 사람이 보는 물체 형상은 당신의 눈이 분석해 낸 것이 아니며 시신경(視神經)을 통해 대뇌의 송과체 그 구역에서 보는 것이다. 그러

나 당신이 무슨 문제를 생각하여 형상을 생각해 냈을 때에도 역시 그 구역에서 작용을 일으킨다. 그럼 곧 일종 착각이 일어난다. 당신이 정말로 무엇을 보았을 때에도 워낙 흐릿하기에 당신은 생각한 것으로 인정하지만, 사실 생각한 것이 아니고 정말로 본 것이다.

과거의 많은 소도(小道) 수련이 그의 제자를 훈련할 때 그에게 일부러 생각하게 했는데, 당신이 보지 못해도 당신에게 생각하라고 한다. 최후에 생각할수록 더욱 분명해지고 생각할수록 더욱 분명해지는데, 그는 이렇게 그를 훈련한다. 소도 수련은 정과를 이루기 어렵다. 바로 누락이 있기 때문인데 이 자체가 바로 집착이다. 그는 그에게 한 물체를 보라고 하며 보지 못하면 당신이 생각하고 자세하게 그것을 보고 눈을 감고 더 생각하라고 한다. 생각할수록 분명해져서 곧 서서히, 마치 현실 속으로 온 것같이 상상하게 된다. 과거 소도(小道), 그것은 이렇게 훈련하였다. 소도이기 때문에 이런 집착을 그들은 집착으로 느끼지 못했다. 왜냐하면, 그는 원만을 말하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러한 문제를 아주 중하게 본다. 어떠한 집착이든 다 원만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내가 여러분에게 알려주겠는데 이 문제를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

당신이 본 것을 상상으로 간주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렇게 연마할 수 없다. 예를 들어 말하면 이法輪(파룬)을 만약 어떤 사람이 어렵듯이 보았으나 자신이 생각한 것이라고 느낀다. 그가 운동하고 돌고 있는 것을 본다. 내가 당신에게 알려주겠다. 그것은 당신이 본 것이다. 여러분이 한번 시험해 봐도 괜찮다. 내가 말한 것에 따라 한 번 보라. 나는 다만 이미 본 것을 생각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자에게 말한 것이다. 이런 감각이 없는 사람은 억지로 생각하지 말라. 그것은 집착이다. 내가 방금 여러분에게 말한 것은 여러분에게 심리적 장애를 배제하도록 하려는 데 있으므로 절대 집착하지 말라. 여러분은 절대 그것에 집착하지 말라.

紐約座談會講法

뉴욕좌담회설법

李洪志

1997년 3월 22일

뉴욕좌담회설법

李洪志

(1997년 3월 22일)

내일 보고회 전에 오늘 여러분이 무슨 일이 있다면 나에게 말해도 된다.

제자: 남편의 돈을 쓰는 것은 德(더)를 잃는 것으로 여깁니까?

사부: 부부는 바로 이런 관계로서, 이런 문제가 존재하지 않는다. 당신은 왜 지금 이 문제를 제출하는가. 현재 바로 이렇게 인위적으로 사람의 윤리가 부패했기 때문이다. 지금 일부 사람은 여성해방을 말한다. 이 문제는 아주 민감하다.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우리 여성은 너무나도 고생스럽다고 한다. 여성은 마땅히 해방되어야 하며 남녀는 마땅히 평등해야 하고 우리 여성은 마땅히 더 강해져야 한다는 것이다. 왜 이러한가? 바로 어떤 남자들이 여인을 너무나도 업신여기며 괘시하기 때문이다. 내가 여러분에게 알려주겠다. 이 사회에 부패가 발생할

때, 사람들은 그것이 부패하게 된 요소와 부패하게 된 상태가 어떻게 조성되었는지를 잘 알아보지 못한다. 모두 다 이 일 가운데서 이 일을 논하기를 즐긴다.

사실 내가 여러분에게 알려주겠다. 이 여성해방이란 이런 선전 역시 인류가 부패한 이후에 출현한 것이다. 여자가 남자의 멸시를 받는다고만 말할 수는 없다. 남자도 남자를 업신여기고 여자도 여자를 업신여기는가 하면 남자도 여자를 업신여긴다. 하지만 남자가 여자를 업신여기는 것이 비교적 명확하게 나타난다. 사실 득세한 여자가 남자를 업신여기는 것도 있다. 이는 전반 사회도덕이 모두 부패하여 조성된 것이다. 사실 남녀 사이는 강(剛)과 유(柔)의 관계이므로 여자가 남자한테 억압받음이 비교적 선명하게 나타난다. 그러나 내가 여러분에게 알려주겠다. 내가 왜 이 현상,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말하는가? 무슨 여성의 자립자강(自立自強)을 선전함이 잘못된 것이라고 말하는가? 지금의 사람은 늘 현대인의 부패한 관념으로 고대인을 가늠하며 옛날에는 여성이 억압당했다고 여기는데, 사실 현대인이 생각하는 그런 일이 전혀 아니다. 중국 고대에는, 전 세계를 포함하여 서양사회 역시 이러한 것으로 남자 그는 어떻게 자신의 아내를 대하여 자신의 아내를 보살피고 애호해야

하는지 알고, 그 아내 역시 남편을 보살필 줄 아는데, 음양은 바로 이렇게 병존하는 것이다. 두 양(陽)이 함께 만나면 곧바로 싸움하며, 두 음(陰)이 만나도 안 된다. 음양은 바로 이렇게 서로 보완하고 서로 이루어지며 서로 의존하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 여러분이 생각해 보라. 여성해방을 제창하기만 하면 여자는 억압을 당하기 때문에 마땅히 일어서야 한다고 여긴다. 그러나 곧바로 따라오는 것은 무엇인가? 이혼, 투쟁, 자식을 버리는 등등 사회문제가 다 나온다. 근본 원인은 여성이 해방되고 해방되지 않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인류사회의 도덕이 부패하였기 때문이다. 이 원인 때문이 아닌가? 이것이 근본 원인이다. 문제를 해결함에 근본을 해결하지 않고 현상 중에서 현상을 해결하기 때문에, 다만 낡은 모순을 해결하면 또 새로운 모순이 와서 사회는 갈수록 더 기형적으로 발전한다. 오늘날 사회의 많은 사람이 모두 이 구체적인 문제 중에서 문제를 생각한다. 투쟁의 방법으로는 위기를 영원히 해결하지 못한다. 인류는 그가 왜 근대에 이렇게 변하게 되었는지 모르고 있다. 모두 이 일 속에서 이 일을 말할 때에 곧 각종 법률을 제정하여 제약을 가한다. 그러나 사람의 마음이 좋지 않으면 또 새롭고 변이(變異)된,

더욱 좋지 않은 문제가 나타난다. 그렇다면 무슨 법을 더 제정하는데 인류는 곧 이렇게 자신을 붕괴시키며 최후에는 자신을 붕괴하여 아무런 길도 다 없게 한다. 게다가 이런 일은 많고도 많은 사회문제가 따라 나오게 한다.

음양 학설에 따르면 여성은 마땅히 유(柔)해야 하며 강(剛)해서는 안 된다. 남자는 양강(陽剛)에 속하고 여자는 음유(陰柔)에 속한다. 강유(剛柔)가 함께 결합하면 보증하고 매우 조화롭다. 지금은 남자가 여자를 업신여기길 즐기는 것이 아니라 이 사회가 부패한 것이며, 남자거나 여자거나 모두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는 동시에 근대의 음양반배(陰陽反背)가 나타났다. 중국에서 표현됨이 가장 뚜렷하다. 당신이 운동선수를 보면 모두 여자가 상을 많이 타며 남자가 상을 타는 것이 적은데 바로 이런 뜻을 말한다. 왜 이런가? 일체는 모두 음이 아주 성(盛)하고 양이 아주 쇠(衰)하다. 이런 요소는 음양반배(陰陽反背)가 조성한 것이다. 게다가 무슨 여성 해방을 선전하는 부작용으로 말미암아 사회도덕의 부패가 사회적으로 인심의 변화를 재촉하였다. 사실 그 여자가 내심으로는 자신의 남편이 면양(綿羊)과 같고 여자 같음을 좋아하지 않는데, 이렇지 않은가? 자신의

남편이 사내답지 못하고 강하지 못함을 한스러워하지만, 그가 정말로 강해지면 여자는 또 받아들이지 못하는 데 이 이치가 아닌가?

인류는 모든 현상의 부패에 대하여, 일체에 대하여 그의 근본 원인을 찾을 줄 모른다. 구체적인 문제 중에서 구체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때문에, 이쪽에 문제가 나타나면 법률을 제정하고, 저쪽에 문제가 나타나면 또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최후에는 당신을 붕괴함이 마치 조롱 속에 갇힌 것처럼 움직일 수 없게 만든다. 법률은 최후에 출로가 없으며 법률을 제정한 사람은 모두 다른 사람을 다스리려고 생각했지만, 그는 법률이 되돌아 그를 다스리려는 것은 생각하지 못한다. 사람은 바로 자신이 자신에게 조성한 일체를 감당하고 있는데, 이 이치가 아닌가?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 사회 관념이 변이하는 조류에 따라 파도에 물결치듯이 하지 말아야 하며, 속인이 이렇게 하려 한다 해서 우리 역시 따라 하지 말아야 한다. 나는 왜 우리가 속인과 같을 수 없다고 말하는가. 속인은 이러한 것을 보지 못한다.

인류의 근본적 출로는 어떤 법으로 사람을 단속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천하에 덕(德)을 닦는 것이다. 사람의 도덕이 모두 제고되면 사람이 사람을 업신여기는 일

이 없어지고 사람이 사람을 만나면 서로 존경하는데, 어디 그런 나쁜 사람이 있겠는가? 경찰도 필요하지 않다. 내가 당신 경찰이 단속할 때보다 더 잘하는데, 경찰이 왜 필요하겠는가? 사람마다 덕(德)을 중하게 여기는데, 법률이 있으면 뭘 하겠는가? 여러분 모두 알다시피 중국 고대에는, 세계 다른 지역 역시 이리했는데, 사람의 도덕 수준이 아주 높았던 때에는 그런 법률이 없었다. 어디 법률이 있었는가? 다만, 아주 간단한 왕법(王法)이 있을 뿐이었다. 사람들은 좋고 나쁨을 다 이 도덕 표준으로 가늠하였으며, 당신이 이 일을 잘하고 잘못함에는 당신의 도덕관념이 어떠한지를 보았다. 이 사람은 덕(德)이 없군, 이 한마디 말로 그를 가늠하였다. 그 현령(縣官)이 안건을 판결함에도 역시 이렇게 하였다. 덕(德)이 없는 자는 곤장을 치고, 그래도 안 되면 머리를 자르는데, 이 사람은 사람이 아니기에 머리를 자르고, 인륜(人倫)을 부패시키므로 필요치 않다는 것이다.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사람으로서의 도덕규범이 있고, 사람의 도덕행위의 준칙이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것을 잃어버렸다면 동물과 같은바, 그럼 또 그가 있어야 할 필요가 있겠는가. 곧 도태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지금 인류의 사상을 되돌려 세우려면 몹시 어렵

다. 당신들은 오늘 나타난 여성 현상을 보았다. 다른 면에서도 어찌 이리함에 그치겠는가? 인류의 사회문제는 너무나도 많은데, 유일한 출로는 바로 사람의 마음을 바로잡는 것이다.

제자: 젊은이가 결혼하고자 하는데, 이는 집착심입니까?

사부: 내가 만약 출가하여 절에 가서 이 법을 전한다면, 백인은 물론, 기타 민족의 사람, 바로 우리 중국 대륙도 절에 가는 사람이 얼마 되지 않으므로, 그런 더욱 많은 국민, 진정하게 법을 얻을 수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법을 얻게 하기가 불가능하다. 기왕 내가 사회에서 전했고, 이런 일종 형식을 취하여 여러분에게 법을 얻게 했다면, 우리는 곧 이 사회의 형식에 부합되어야 하고 정상적인 사람의 생활에 부합되어야 하며, 또 사람이 수련할 수 있는 이런 방식이어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가 법을 전하는 이런 형식과 여러 가지 사소한 부분에서 모두 자세한 배치를 하였다.

내가 만약 절에 간다면 나는 결혼하지 않아도 된다. 나는 또한, 장래는 이 법을 배우는 사람이 특별히 많고, 장래의 사람들은 사람마다 다 알게 되며 백인이든 황인

이든 또는 어떤 사람이든 틀림없이 다 알게 될 것임을 안다. 그렇다면 곧 한 가지 아주 큰 문제가 나타날 것인데, 사람들이 모두 결혼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는가? 사람들은 나를 따라 배우려고 하지 않는가. 왜냐하면, 내가 설법을 하는 것 역시 몸소 가르치고 있기 때문이다. 나에게 그런 조그마한 거동이 있으면, 심지어 내가 옷을 입고 모자를 써도 어떤 사람은 다 배우려고 하므로, 나는 이러한 크고 작은 일을 매우 중시한다. 정법을 전할 뿐만 아니라, 나 사람으로 해야 할 처신도 발라야 한다. 여러분이 본 그 가사를 입은 사진, 그것은 장래에 전업으로 수련하는 제자(專修弟子)들을 위해 남겨놓은 것이다. 내가 양복을 입고 속인 사회에서 불법을 전하는 이것은 천지개벽 이래 처음이며 여태껏 없었다. 법을 이렇게 전할 이상, 우리의 수련은 곧 사회의 이 형식에 부합되어야 한다.

만약 내가 한 것이 어디에 문제가 있다면 장래의 인류에 곧 아주 큰 변화가 발생할 수 있다. 여러분이 다 알다시피, 그 부처 그는 고기를 먹지 않는다. 수련하는 법문이 아주 많은데, 모두 불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고기를 먹는 것에 대하여 그렇게 절대적인 것은 아니지만, 수련이라면 고기를 먹는 것에 집착하지 않는다. 만약 내가

속인 중에서 이 법을 전하고자 수련인으로 하여금 속인 중에서 수련하도록 한다면, 배우는 사람 또한 것처럼 많은데, 내가 고기를 먹지 않으면 장래의 사람도 먹지 않을 것이므로, 인류의 생활 습관, 음식물은 모두 변화가 발생할 것이다. 그러나 육식은 확실히 인체에 대해 신체를 튼튼하게 하는 매우 충분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신(神)은 다 알고 있다. 이것은 채식(素食)으로 대체할 수 없으며, 이 점은 확실하다. 물론 우리 수련하는 사람은 다르다. 수련하는 사람은 고기를 먹지 않아도 신체는 오히려 더욱 좋다. 그것은 수련하기 때문이다. 만약 속인으로서 그가 수련하지 않으면서 고기를 먹지 않는다면 틀림없이 그는 영양부족에 빠질 것이다. 이 점은 확실하다.

결혼하지 않는다고 말하는데, 만일 인류에게 후대가 없다면 곧 끝장이 아닌가? 우리는 다 고려하였다. 불문(佛門)에서 출가하여 수련하는 사람은 결혼하지 못한다는 이런 규칙이 있다. 하지만 부동(不同)한 수련방법 중이라면 그것은 절대적이지 않다. 과거에 부동한 역사 시기, 인류의 부동한 역사 시기, 인류의 부동한 문명 시기의 사람에 대한 수련의 요구 역시 같지 않았다.

결혼하지 않는 목적은 사람의 욕망과 색심(色心) 두

가지 것을 제거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속인 중의 수련은 시작함에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인류는 아직도 번성하여 퍼져 나가야 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속인 중에서 수련하는 사람이 또한 많다. 그러면 당신은 수련인으로서 속인 사회 중에서 수련해야 하는데, 여러분이 모두 속인 사회생활과 결별한다면 정말로 인류사회가 없어지는데 절대로 안 되는 것이다! 당신이 볼 때 인류가 좋지 않지만, 그것은 우리 이 우주가 위에서 아래로 관통되어 내려온 일부분이며 역시 이 법의 가장 낮은 층차의 일부분인 것으로서, 인류가 없으면 안 된다. 하지만 개별적인 사람으로 말한다면 당신들이 결혼할 생각을 하지 않아도 그것은 괜찮으며, 그것은 당신들 개인 문제로서 역시 잘못이 아니다. 다만 한 가지, 그가 결혼하지 않는다는데, 그가 집착해서가 아니다. 우리는 반드시 출가해야만 비로소 원만에 이를 수 있다는 다른 일종 착오적인 장애 속에 빠져들지 말아야 한다.

예를 들어 말하면, 몇천 년 남겨온 수련, 불가의 것이든 도가의 것이든 원시 천주교든 기독교와 산속에서 수련하는 것이든 간에 이러한 사람은 다 결혼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사람에게는 인식 상에서 수련하면 곧 결혼할 수 없다는 이런 한 가지 관념이 조성될 것이다. 이는 오

늘날 우리 이 대법이 세간에서 유전하는 데 가장 큰 교란이 될 것이다. 절대 이런 장애로 인해 집에서 수련하는 우리 제자들이 결혼하지 않아서는 안 된다. 우리 오늘의 수련형식은 바로 이 가장 복잡한 사람들 속에서 당신 자신을 제고하는 것이지, 단지 副元神(푸웬션)을 제고하거나 다른 어떤 것을 수련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반드시 가장 복잡한, 속인 중에서 당신의 이마음을 연마(魔煉)해야 한다. 재가제자(在家弟子)는 반드시 속인의 사회 상태에 부합해야 하는바, 이는 이 법의 엄격한 일부분이다. 내가 말한 이 뜻을 알았는가? 하지만 욕과 색은 반드시 제거해야 할 집착이다. 과거 그런 옛적의 수련 혹은 그런 옛적 종교 중의 수련 방법에 따른 착각을 일으키지 말아야 한다. 마치 우리가 수련하려면 바로 이러해야 한다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 우리 오늘날 수련의 형식은 바로 내가 여러분에게 남겨 놓은 수련방법으로서, 우리 오늘날 이 법이 사회에서 유전되고 있는 각종 요구와 방식을 포함하여 모두 후세사람에게 남겨 놓는 것이다.

우리가 명문(明文)으로 규정한 것을 여러분은 다 알고 있다. 예컨대 우리는 정치에 간여하지 않고, 유형적인 조직을 관리하지 않으며, 우리는 등급을 나누지 않고

돈을 만지지 않는다. 이 법은 절대로 사람에게 벼슬을 줄 수 없다. 사회에서 당신이 어떠한 일을 하고 얼마나 큰 벼슬을 하든지 다 문제가 없으며 또 당신의 수련에 영향 주지 않는다. 그것은 속인 사회 중의 일이고, 수련은 곧 수련이라, 당신이 속인 중에서 하는 일과 수련, 그것을 갈라놓아야 한다. 그것은 별개의 일이다. 예컨대 당신의 이 속인 중의 사업이 속인 사회, 인류에게 좋은 점이 있다면, 이것은 당신이 德(덕)을 쌓는 것이지 수련이 아니다. 이는 별개의 일로서, 절대 함께 말하지 말아야 한다. 어떤 사람은 나의 직업은 德(덕)을 쌓고 선(善)을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장래에 원만할 수 있다고 말한다. 사람이 실제로 수련하지 않으면 종교의 회장, 지도자가 되거나, 절을 짓고 불상을 만들었다 해도 원만할 수 없다. 그것은 자신이 그럴듯하게 하는 말이다. 직업은 곧 직업일 뿐, 영원히 수련을 대체하지 못한다. 수련은 곧 수련이고 속인 중의 일은 곧 속인 중의 일이며, 종교를 위해 일을 하는 것 역시 속인을 위해 하는 일로서, 출가인이 부처는 아니다. 부처는 사람의 마음을 인정하지 교(敎)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다. 이는 별개의 일로서 한테 섞지 말아야 한다.

제자: 사부님, 저는 선전(深圳)과 광저우(廣州)의 수련생들을 대표하여 사부님께 문안드립니다. 제가 올 때 그들은 제게 꼭 전해달라고 했습니다.

사부: 사부가 늘 마음속으로 모든 제자를 생각하고 있음을 당신이 그들에게 전해주도록 하라.

제자: 고등학교 학생이 대학입시에 직면하고 있기 때문에 학습이 매우 긴박하여 연공이 좀 적어지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부: 이걸 문제가 없다. 우리 수련의 동작은 원만을 이루는 보조적 수단이다. 비록 그것이 아주 중요하지만, 우리에게 더욱 중요한 것은 사람의 이 마음을 닦는 것이다. 내 말은, 마음속으로 줄곧 자신을 연공인으로 간주한다면, 얼마 동안 심지어 아주 긴 시간 동안 당신이 그야말로 바빠서 확실히 연공할 수 없었어도, 마음속으로 줄곧 자신을 연공인으로 간주하고 자신에게 요구했다면 당신은 공이 자라 오를 수 있다는 말이다. 하지만 한 점이 있다. 사부님께서 기왕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우리는 연공을 하지 않겠다고 한다면 그것은 안 되며, 이는 또 다른 극단으로 나간 것이다.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특별하게 고려할 것이다. 불법은 끝이 없기(佛法無邊)

때문이다. 불법은 끝이 없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 그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어서, 얼마든지 때 사람의 상황을 참작하여 사람을 제도할 수 있다.

제자: 사부님, 내일 녹화하는 것을 허용하십니까?

사부: 여러분은 아마 다 들었을 것이다. 중국 대륙에 우리가 전한 이 법을 배우는 사람이 아주 많아졌다. 나는 지금 강의도 전혀 하지 않는다. 대륙에서 수련생과도 만나지 않는다. 사실 나는 3년간 중국 대륙 수련생과는 만나지도 못했다. 하지만 배우는 사람이 갈수록 더욱 많아져 사회에서 중시를 받게 되었다. 것처럼 많은 사람이 모두 배울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일단 배운 후에 모두 좋다고 느끼는 것을 볼 수 있다. 당신들의 말로 바꾼다면, 여러 사람이 배운 다음 수련함에 모두 아주 확고하다. 그런 사람이 많아지면 아마 중국이란 이 사회의 일부 사람은 뭔가를 생각할 것이다. 많은 사람이 속인의 생각으로 나와 법을 가늠하므로 사람을 위하여 좋은 일을 하기도 몹시 어렵다. 인심이 바르지 못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런 불필요한 번거로움을 피하도록 하자. 그래서 나는 최근 한 시기에 일부 국가의 수련생들과 만날 때 모두 녹음을 하지 못 하게 했으며 녹화를 하지 못

하게 했다. 무슨 뜻인가? 바로 이러한 것을 국내에 적게 전하기 위함이다. 우리가 정치에 간여하지 않으므로 물론 정치문제가 없지만, 나쁜 사람들이 단장취의(斷章取義) 하여 파괴하며 세상을 혼란케 하지 않을까 걱정스럽다. 주요하게는 번거로움을 일으키지 않으려는 것이며, 우리 이 법이 정확하고 틀림없이 조금이라도 편차가 없이 인류에게, 미래에 남겨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만약 우리가 무슨 불필요한 손실을 당한다면 장래에 모두 몹시 유감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만 일시적인 것만 고려할 수는 없다.

녹음이나, 비디오나, 장래에는 틀림없이 모두 보존해 내려가지 못한다. 이는 확실하다. 여러분이 다 알다시피 어떤 것은 지금부터 이미 지워버리기 시작했다. 바로 이전의 어떤 비디오는 지금 이미 형상이 없으며 녹음테이프도 소리가 사라졌는데 점차 지워버린다. 어떤 것은 이렇게 보존할 수 없다. 내가 당신들의 상황에 대하여 말한 것을 다른 사람이 들으면 그는 또 다른 상태가 나타나는데 이해가 같지 않다. 『전법륜(轉法輪)』은 모두가 보기에 적합한데, 이런 한 가지 상황이다. 당신들 자신이 알아서 하라. 나는 이 일을 절대적이라고는 말하지 않는다.

제자: 사부님, 저는 상하이(上海)에서 왔습니다. 상하이의 제자들은 정말로 사부님을 몹시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 국제교류회에서 돌아간 후 그들에게 사부님과 만난 말을 해주자 그들은 모두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들은 저에게 대표로 사부님께 문안을 전해달라고 하였습니다.

사부: 당신이 그들에게 알려 주라. 나는 몹시 유감스럽다. 그 해에 공을 전할 때 상하이로 가지 못했다. 왜냐하면, 나는 당시 이 법에 한 갈래 정확한 길을 남겨놓기 위해서인데, 나는 다른 기공사들이 시장에서 약을 팔 듯이 하거나 혹은 붓짐장수처럼 하지 않았으며 모두 현지의 기공조직, 기공과학연구회 혹은 정부단체에서 나를 초청해야만 가곤 했다. 상하이에서는 내내 초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일은 곧 시기를 놓쳐버렸다. 후기에 초청했을 때는 공을 전함을 이미 그쳤다. 하지만 중국의 이 대도시에 가서 법을 전하지 못한 것이 나는 몹시 유감스럽다. 베이징(北京)을 제외하고 중국에서 가장 큰 도시가 바로 상하이이다. 물론 나는 알고 있다. 지금 법을 배우는 상하이 사람이 아주 많다. 내가 비록 가지는 못했지만, 전반 상하이의 대법 확산과 발전과정은 매우

건강하며 배운 것도 역시 아주 착실하여 나는 아주 기쁘다. 이 점은 아주 좋다.

제자: 리 사부님, 저는 베이징(北京)에서 온 제자입니다. 베이징의 전체 제자들이 사부님께 문안드립니다.

사부: 베이징은, 사실 베이징뿐만 아니라 많은 곳의 수련생들도 마찬가지로인데, 나 역시 여러분을 많이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나는 감히 여러분과 만나지 못한다. 왜냐하면, 내가 일단 여러분과 만났을 때, 한 사람이 나를 보면 몇 시간 내에 곧 몇십 명, 하루에 아마 몇천 명이 올 수 있으며, 이튿날에는 아마 만여 명이 넘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외지에서도 몇십 명이 오는데 마치 오늘 외지에서 많이 온 것처럼 말이다. 그렇다면 곧 사회에서 일부 비난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과 만날 방법이 없다. 하지만 나도 생각한다. 하나의 엄격한 사회제도하에서 우리는 이 법이 편차가 생기지 않게 전해 내려가도록 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역사적으로 아주 엄격한 시기의 검증을 거친 것이다. 그러므로 장래 어떤 역사 시기에도 우리는 모두 파괴당하지 않는 자리에 설 수 있다. 그렇지 않은가?

제자: 저희 어떤 수련생이 홍콩과 중국에서 『전법륜(轉法輪)』을 가지고 왔는데 회의장에서 팔아도 됩니까?

사부: 만약 우리 손에 『전법륜(轉法輪)』이 있어서, 회의에서 여러분을 위해 좋은 일을 하여 책임 없는 수련생에게 편리를 좀 제공한다면 잘못이 없으며, 할 수 있다. 여러분이 명예를 도모하거나 이익을 도모하지도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문제가 없다. 하지만 이런 일을 하기 전에 우리가 다른 방면의 부작용을 일으키지 않기 위하여 미국의 우리 책임자와 협의를 하면, 내 생각에 문제가 없다.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은 지난번에 나와 만난 이후 이미 한동안 수련하였으므로, 내가 생각하건대 법에 대하여 다 일정한 이해가 있어서 함부로 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왜 이처럼 안심하는가? 왜냐하면, 당신들은 내가 전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아무것도 가지지 않으며 오직 사람의 마음만 가질 뿐이다. 만약 이 사람의 마음마저도 개변하지 못한다면 이 법은 아무 소용도 없다. 어떠한 강화(強化) 형식도 인심을 개변할 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조항, 저런 조항의 규정을 정하지 않았고 여러분에게 어찌어찌 하라

고 요구하지 않았다. 이 법이 그로 하여금 건강하게 발전하게 하고 배우는 사람이 더욱 많아질 수 있으며, 사회에서 것처럼 좋은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미 이 법이 있으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있기 때문이다. 누가 더 알려줄 필요가 없으며 내가 어떻게 하라고 알려줄 필요도 없다. 그러므로 나 역시 안심이다. 만약 우리 이 자리에 앉은 누군가가 잘하지 못한다면 우리 다른 사람은 즉시 보아낸다. 법이 있기 때문에 법으로 가늠하는데, 틀림없이 이리하다.

제자: 사부님께서 저희 중국 사람에게 이 법을 전하는 외에 또 기타 인종(人種)에게도 전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이 법을 다른 사람들에게 널리 전해야 하는지 사부님께서 가르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부: 이것에 대해서도 우리는 특수한 규정을 내리지 않았다. 왜냐하면, 법을 전함은 바로 사람에게 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 책이 이미 번역되어 나와 있는 것은 독일어, 일어, 한국어, 프랑스어, 영어가 있으며 또 러시아어 등등이 있다. 어쨌든 아주 많다. 또 이탈리아어로도 곧장 번역하고 있는 것 같고, 다른 언어 역시 다 그쳐 번역하고 있다.

이 면의 사업은 그들 번역팀에서 하였다. 자료가 있어야만 사람들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어떻게 전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어떠한가하게 하라는 무슨 규정이 없다. 내 생각에 우리가 이 법을 전할 때, 역시 이 법이 좋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여러분은 비로소 소중히 여기게 되었다. 바로 좋으므로 당신은 비로소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고자 한다. 그렇다면 전반, 이 법의 전파는 모두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하고 사람에서 사람으로 전하는 것인데, 기본적으로 이런 형식을 취하여 전한 것이다. 중국에서는 이미 2천여만 명이 착실하게 수련하고 있고, 수련하다 말다 하는 사람을 합하면 현재 1억 명이 있다. 그러나 사회적으로, 표면적으로 마치 평온하고도 조용해서, 아는 사람이 없는 것 같지만, 바로 여러분은 모두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하고, 입으로 전하고 마음으로 받아들여 그는 이미 상당히 큰 추세를 이루었다. 어떤 특별 규정이 없으며 모두 여러분 스스로 하고 있다. 내가 말한 이 뜻을 알겠는가? 우리는 어떤 형식적인 것을 규정하지 않았다. 불가에서는 중생을 널리 제도함을 이야기하기 때문이다. 사람을 제도함이라, 당신이 가서 사람을 제도하라는 말이 아니다. 당신은 아직도 수련 중이기 때문에 당신은 틀림없이 사람을 제도하지 못한다.

그렇다면 당신이 다른 사람에게 법을 소개해 주는 것이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법을 얻게 하는 가장 좋은 도움이다. 장래 사람들은 얼마나 진귀한가를 알 것이다. 당신이 그에게 얼마나 많은 돈을 주든지, 당신이 그에게 얼마나 좋은 물건을 주든지 모두 그에게 이 법을 주는 것만 못하다. 그는 한 지역, 한 민족, 한 나라에서 인류에 이르기까지, 도덕이 되돌아 승화하여 행복하고 상화(祥和)롭게 할 수 있다. 이런 것이 있어야 비로소 인류는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다.

제자: 저는 법륜불법(法輪佛法)를 배운 후, 저는 우선 일을 잘하려고 합니다. 근무를 잘하고, 정말로 한가하여 할 일이 없으면 책을 보려고 합니다.

사부: 그것이 가장 좋은 것이 아닌가. 당신이 생활하는 가운데 부딪히고 직업상 혹은 사회에서 부딪히는 일부 일은 아마 자신의 어떤 마음을 제고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 당신이 부딪히는 그 한 가지 일은 어쩌면 당신의 집착심을 제거하기 위해서거나, 어쩌면 당신의 무슨 일을 돕기 위한 것일 수도 있다. 일단 사람이 수련이란 이 길을 걸으면 그의 앞날에는 우연한 일이 없다. 왜냐하면, 수련은 순서 있게 배치한 것이고 시간은 그렇게

아주 충족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무슨 우연한 일이 있을 수 없으며, 모두 아주 긴박하게 배치된 것이다. 당신들이 평소에 부딪히는, 마치 우연하게 나타난 것 같은 그런 작은 일을 우연한 것으로 간주하지 말라. 너무 많은 기괴한 일이 나타날 수 없고, 또 다른 어떤 공간 속으로 가서 수련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당신은 이런 사람 마음을 제고할 수 없다. 여전히 이런 평범한 일 속의 상태이며 역시 속인의 모순이고 역시 속인의 생활방식인바, 부딪히는 일은 원래와 비슷하다. 하지만 당신이 자세히 살펴보면 역시 같지 않은 것으로, 모두 당신으로 하여금 수련하여 제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나타난 것이다.

제자: 당신께서는 眞(쩐)·善(싼)·忍(런)을 말씀하셨지만, 어떤 상황에서는 누군가 남을 배반할 수도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남을 도와 그 나쁜 놈을 혼내 주겠다고 승낙할 수 있는데요.

사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한다. 그 책에도 다 있다. 바로 일반적인 일, 당신이 화가 나서 견디지 못하는 일에 부딪혔을 때 그 일을 상관하려 하면 안 된다는 말이 아니며, 당신이 부딪혀서 두어 마디 하는 것은 괜찮다. 당

신이 한 말이 작용을 일으키지 못할 수도 있고 당신의 말이 결코 그런 일이 아닐 수도 있다. 왜냐하면, 당신은 그들 둘의 모순의 배후(背後)가 무엇인지, 바로 그의 인연관계가 무엇인지를 보아내지 못하기 때문이다. 예컨대 두 사람을 말한다면, 그가 저 사람을 한방 쳤다. 당신이 속인 중에서 보면, 때린 사람이 잘못이다. 왜 사람을 때리는가? 그러나 시간을 과거로 밀어보면 당신은 그의 전반생 혹은 그의 전생에 저 사람이 그를 한방 친 적이 있는 것을 발견할 것이다. 우리 수련하는 사람이 사람을 보는 것은 사람의 일생만을 볼 수 없으며 그의 생명 전반을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저 사람은 그에게 빚을 졌다.

이러한 일은 경찰이 상관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속인이 속인을 상관하는 것은 세간의 이치에 부합된다. 이것은 무슨 도리에 어긋나지 않는다. 그러나 수련하는 사람으로서는 이런 일을 보면 적게 상관하거나, 되도록 상관하지 말라고 나는 말한다. 무엇 때문인가? 당신이 상관하면 잘못 상관하기가 쉬운데, 그런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당신이 수련인으로서 꼭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한다면, 당신은 아마 업을 지을 것이다. 당신은 이 한 가지 일을 그르쳤으며 파괴했다. 원래 그 신(神)이

그에게 금생에서 업을 갚도록 배치했는데 그는 갚지 못하였으므로 시간을 찾아서 그들 둘은 또 한 번 해야 한다. 내가 한 말은 바로 이 뜻이다. 그러나 만약 정말로 살인 방화하는 것을 보고도 당신이 상관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心性(썌썌) 문제이다. 당신은 수련하는 사람이다. 한 신(神)으로서도 이 일을 상관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가? 그러나 다시 말하자면 이런 일은 우리 일반 수련생이 부딪히기가 몹시 어려우며 심지어는 부딪히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당신의 생활 중에 당신에게 배치해 주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것이 반드시 당신의 心性(썌썌)을 제고하는 데에 좋은 점이 있어야 하는데, 소용없는 이런 일에는 우리 수련생들로 하여금 매우 적게 부딪히거나 거의 부딪히지 못 하게 하기 때문이다.

누구를 배반했다거나 속인에게 무엇을 승낙했다면 그것은 모두 속인의 일이다. 수련한다면 곧 법으로 가늠해야 하며 수련인의 표준을 자신에게 요구해야 한다. 무엇이든 다 속인의 표준으로 가늠하면서 무슨 배반, 무슨 속인에게 무엇을 승낙했던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속인이 아닌가?

제자: 미국에 있는 유학생들은 모두 일종 집착심을 품

고 아주 무미건조한 자연과학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사부: 나는 내일 이 문제를 이야기할 것이다. 나는 이러한 이치를 말하는데, 인류의 역사와 인류의 과학은 사실 착오이다. 그것은 발전하는 기점, 인류에 대한, 자연에 대한, 물질에 대한 인식의 기점이 그릇된 것이기 때문에 오늘날 인류사회 도덕의 파괴를 조성하였다. 이 문제는 아주 큰 것으로, 내가 내일 말하겠다. 하지만 한 점이 있다. 인류가 만일 지식이 없다면 그는 오늘날 『전법륜(轉法輪)』을 보지 못하며, 최소한 더욱 높고 더욱 깊은 내포가 그 속에 있음을 그는 보아내지 못한다. 그렇다면 당신이 배운 지식도 우연한 것이 아닐 수 있다. 미래의 인류는 새로운 과학 기점에서 그것을 발전시킬 것이므로 역시 지식이 있어야 한다.

내가 생각하건대 대법제자로서 그때에 가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연스럽게 알게 될 것이다. 다 우연한 일이 아니므로 지금 당신이 배워야 할 것을 당신은 배워야 하며 당신은 그것을 집착으로 간주하지 말아야 한다. 내가 듣기에 어떤 수련생은 당초 미국에 왔을 때 자신이 어떤 것을 잘못하여 퇴학하고 말았다. 내가 말한다면, 아마 시작에 잘못했을 수 있지만, 지금은 잘못에 잘못을 더한 것이다. 기왕 또 이러하다면 자신의 앞으로의 생활에 인

위적으로 곤란을 조성하지 말아야 한다. 즉 일부 잘못된 일을 모두 똑같은 방식으로 고칠 수는 없으며 자신의 마음속으로 잘못을 알고 앞으로 이렇게 하지 않을 것을 알며, 이 일에 대하여 나중에 더욱 잘하여 성적(成績)으로 잘못을 보상하는 것은 괜찮다. 내 생각에 이렇게 함은 문제가 없다. 이런 문제에서 우리는 당신이 잘못했기 때문에 당신이 이러한 일에 되돌아가서 과거를 갚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이 한 가지 일을 이렇게 할 수 없다. 다시 말해서 수련에 곤란을 조성하지 말아야 하며 생활에 곤란을 조성하지 말아야 한다. 학생으로서 우리는 지금 다만 당신에게 잘 배우라고 할 뿐이다. 왜냐하면, 당신은 학생으로서 마땅히 잘 배워야 하기 때문이다.

설령 당신이 어떤 다른 일을 하더라도 그것은 속인 사회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는 속인 사회의 이 이치로 그가 이 한 층 공간 속의 인류사회를 위해 일하는 것으로 본다. 그렇다면 당신은 그것을 마땅히 잘해야 한다. 왜냐하면, 인류 역시 우주 대법의 가장 낮은 층의 생명 표현이기 때문이다.

제자: 사부님, 저는 독일 제자들을 대표하여 사부님께

문안드립니다.

사부: 독일의 요청을 나도 보았다. 작년 11월 날씨가 찬 그때에 러시아에서도 요청했다. 날씨가 따뜻해지면 시간을 봐서 내가 갈 것이다.

제자: 사부님, 저는 원래 일본에 이민을 왔습니다. 우리는 줄곧 사부님께서 일본에 오시게 하고자 생각했습니다. 만약 사부님께서 장래에 기회가 있으시다면 말입니다.

사부: 내가 광저우(廣州)에서 수련반을 열 때 어떤 일본사람이 강의를 들었다. 강의를 들은 후에 그는 일본에 돌아가 일부 사람을 조직했는데 모두 일본사람이며 다 노인들이 배우고 있는 것 같았다. 한동안 배웠어도 그는 여전히 그의 원래 기공을 내려놓지 못했으므로 우리는 줄곧 그와 연락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가 가르친 사람들 역시 모두 불순(不純)했기 때문인데, 우리는 줄곧 그와 연락하지 않았다.

제자: 제 남편은 일본사람이지만, 그는 대법을 아주 좋아하며 아주 좋다고 여깁니다.

사부: 아마도 문화적인 차이일 것이다. 하지만 내 생

각에 일본사람이 정말로 배울 수 있다면 백인이 배우는 것보다 쉬울 것이다. 왜냐하면, 동양인의 사유방법은 모두 같기 때문이다. 서양인의 사유방법은 같지 않다. 하지만 서양인이 배웠다 해도 괜찮다. 일본에는 내가 한번 갔었다. 단지 일본사람이 어떠한지를 보았을 뿐이다.

제자: 만약 이 대법이 장래에 사람들의 심법(心法)이 된다면 사회과학 방면에서 철학이나, 문학, 이러한 것은 어떻게 됩니까.

사부: 모두 변화가 발생할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또한 전부 새로워질 것이다. 이 사회에 대한, 사람에 대한, 일체에 대한 사람의 인식이 모두 바로잡힐 것이다. 우리 지금 베이징(北京)의 많은 수련생, 그들은 자신이 다른 사람과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들은 한마디 말을 유전(流傳)하고 있다. 즉 “우리는 신인류(新人類)이다.” 물론 나는 그들의 논법을 긍정하지는 않는데, 바로 이 뜻을 말한다. 확실히 지금 사람의 사유방법, 인식방법과는 모두 다르다. 확실히 이리하다. 당신이 끊임없이 깊이 파고들어 이 법을 배우면 당신은 무엇이든 새로운 인식이 있을 수 있다.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사람은 모두 직함이 비교적 높으며 많은 사람이 유학생이다. 당신들

은 차츰 체득할 것인데, 인류의 매 한 가지 일과 당신의 인식에 모두 변화가 생기고 있음을 발견할 것이다. 왜냐 하면, 방금 내가 말했듯이 인류의 발전, 인류의 기원과 그것의 기원에 대한 인류의 인식, 그 진화론은 전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물질에 대한 인식, 우주에 대한 인식, 생명에 대한 인식, 우리 현실 세계에 대한 인식과 이 우주공간에 대한 인식은, 전부 다 그릇된 기점에 서서 발전한 것이다.

제자: 主元神(주웬선)은 언제 들어가는지요……

사부: 主元神(주웬선)이 들어가는 때를 말하자면, 일반적으로 모두 출생하기 전야의 길지 않은 시간이다. 하지만 구체적인 시간은 고정적이지 않다. 어찌면 그가 출생하기 직전일 수도 있고 어찌면 그가 출생하기 전 아주 일찍, 반 달, 한 달, 혹은 더 빠를 수도 있는데, 모두 다 가능하다.

제자: 인류가 사람을 복제함을 보는 사부님의 관점은 어떠하신지요.

사부: 인류가 도덕규범이 없을 때는 무슨 일이든 다 해낼 수 있다. 이런 사람은 출생해도 부모의 관념이 없

으며 인류도덕의 관념이 없으므로 아주 무섭다. 그는 심지어 같은 한 사람을 복제하여 이 사람을 대체하고 그 사람을 죽여 버릴 수 있다. 인류의 도덕이 부패한 후에야 비로소 이런 일이 나타날 수 있다. 하지만 내 생각에, 당신들의 복제인간은 출현하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신(神)이 허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가 정말로 복제해 낸다 해도 그것은 사람이 아닌바, 그에게는 다만 마(魔)만이 올라갈 수 있는 것으로서, 신(神)은 그에게 元神(웬선)을 주지 않을 것이다.

제자: 혼혈아 그들이 수련한다면 그들은 어느 세계로 들어갑니까?

사부: 혼혈아를 한 사람으로서 말하자면, 그는 이미 천상(天上) 인종과 대응을 잃어버렸다. 수련하는 사람으로서 말하자면, 그의 표면을 중시하지 않는바, 그럼 곧 그의 元神(웬선)을 보아야 한다. 그의 元神(웬선)이 백인이면 바로 백인이고, 元神(웬선)이 황인이면 그는 바로 황인이며, 元神(웬선)이 흑인이면 그는 바로 흑인이다. 그가 수련하면 곧 이야기는 달라진다.

제자: 혼혈아가 수련에 성공할 수 있습니까?

사부: 수련할 수 있는지 없는지, 수련 성취하는가 수련 성취하지 못하는가는 모두 사람 자신을 보아야 한다. 혼혈아도 수련하면 마찬가지로 원만을 이룰 수 있다. 수련 성취하여 그 元神(웬선)이 어디에 있으면 수련 성취하여 곧 거기로 귀속하게 된다.

제자: 사부님께서서는 지난번에 혼혈아는 이미 무엇을 잃어버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부: 그는 그가 위에서부터 관통해 내려오는 신체(身體)를 잃어버렸다. 이렇게 말하자. 황인종의 위에는 황인종이 있으며, 백인종의 위에는 백인종이 있는데, 그는 이 한 갈래 선을 잃어버렸다.

제자: 사부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영아(嬰兒)는 출생해야 비로소 그 元神(웬선)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임신했을 때는 생명이 없는 것이 아닙니까. 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부: 아니다. 어떠한 물체든지, 나는 이런 한마디 말을 한 적이 있는데, ……어떠한 물체든지 생겨날 때 곧 생명이 주입된다. 공장에서 만들어낸 제품, 어떤 물건이라도 당신이 그를 볼 때는 이러하지만, 모두 생명이 있

다. 그 영아가 모체 속의 아주 작은 태아일 때, 그 자그마한 살점이 생겼을 때, 그는 이미 살아있는 것이다. 그럼 그가 元神(웬선)이 없는데 그가 어떻게 사는가? 元神(웬선)이 없다 해도 그 자신은 역시 생명력이 있다. 왜냐하면, 사람에게는 자신 외에, 예전의 수련에서는 모두 삼혼칠백(三魂七魄)을 말하지 않았는가? 물론 그렇게 구체적이지는 않으며 단지 이런 뜻을 말할 뿐이다. 다시 말해서 당신의 主元神(주웬선) 외에, 당신의 신체 속에는 또 한 사람의 생명을 구성하는 요소가 있고, 육체 자체는 또 부모의 형상을 한 생명이 있으며, 부친, 모친의 그 형상 역시 살아있는 것이다. 인체는 본래 몹시 복잡한 것이다.

제자: 그럼 낙태 역시 살생으로 인정합니까?

사부: 그건 틀림없다. 임신한 후 낙태는 바로 살생이다. 당신들 인류의 도덕이 어떠한지, 인류와 법률에서 승인하거나 승인하지 않거나 법률은 신(神)을 대신할 수 없다. 당신이 살생하였으면 바로 살생이다. 당신은 법률상 살생하지 않았다고 말하는데, 그것은 사람이 말한 것이다. 우리는 산부인과 병원에 많은 영아가 있고, 그 주위 공간 속에 팔다리가 완전하지 않거나 혹은 팔다

리가 매우 완전한 아주 어린 아이의 생명이 그 속에서 갈 곳이 없어 하는 것을 발견한다. 원래 이 생명 그가 전생(轉生)했다면 그에게는 그의 앞날이 있을 것이며, 그는 수많은 해를 산 다음 또다시 새롭게 윤회에 진입했을 것이다. 그러나 아직 출생하기 전에 당신이 그를 죽여 버렸다. 그렇다면 그는 이 오랜 세월 속에 고통스럽게 발버둥 치고 있는데, 것처럼 작은 생명이 홀로 쓸쓸하게 있는 것이 너무나도 가련하다! 그는 줄곧 그가 하늘에서 정한 인간 세상의 연령이 전부 다 지나가기를 기다린 후에야 비로소 다음번 윤회로 진입할 수 있다. 그러므로 당신이 말해 보라. 당신이 단번에 그를 그렇게 고통스러운 경지에 처하게 했으니, 그것이 살생이 아닌가? 아울러 업력이 또한 아주 크다.

제자: 이런 업력으로도 수련할 수 있습니까?

사부: 수련할 수 있으며 당연히 수련할 수 있다. 하지만 내가 말했다. 우주 대법은 원용(圓容)하기 때문에 어떤 고정된 층차 중에서 보는 관점은 곧 절대적이다. 부동(不同)한 층차에 부동한 법이 있으며, 층차가 더욱 높을수록 이치에 대한 인식이 더욱 명확하다. 만약 당신이 정말로 수련 원만에 이를 수 있다면 그들은 반드시

당신 우주 중의 중생이 될 것이다. 그럼 어떤 사람은 생각할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살생하자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 수련 성취하지 못한다. 당신이 수련 성취하지 못하면 당신이 죽인 그런 생명을 갚으려 해도 다 갚지 못한다. 내가 말한 이 뜻을 알겠는가? 수련은 가히 이러한 것을 보완할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은 진정으로 수련해야 하며 원만한 후에 인과(因果)를 보아야 한다.

제자: 20년 전에 낙태했는데 그때는 몰랐고, 낙태를 모두 허용했습니다. 만일 지금 수련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업력이 이렇게 중한데요?

사부: 당신은 오로지 수련만 해라. 사실 우리 많은 사람이 생생세세에 어느 세(世)에서 무엇을 했는지도 모르며, 어느 세에 얼마나 큰 업력을 빚졌을지도 모른다. 오늘의 사람은 모두 업이 구르고 굴러서 온 것으로서 업이 없는 사람은 이미 없다. 생명을 살해하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 같은데, 살생이란 꼭 사람의 생명이 아닐 수도 있다. 우리가 기왕 당신을 제도할 수 있고, 기왕에 수련할 수 있으며 법을 얻었으니 당신은 이런 문제들을 생각하지 말라. 당신이 오로지 수련만 하면 내가

다 배치할 것이며 당신이 원만에 이르면 이런 일들을 다 아주 잘할 수 있을 것이다.

제자: 독일의 몇몇法輪大法(파룬따파) 수련생은 사냥꾼입니다. 그들은 여우 부체가 좋지 않다고 말하는데 저는 지금 아직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부: 여우 자체, 그것을 우리는 말하지 않겠다. 장래에는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수련하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이런 살생하는 일을 되도록 하지 말아야 하며 우리는 또 자비가 있어야 한다. 그 밖에 그 여우 부체, 많은 여우는 영기(靈氣)를 얻은 것이다. 어떤 여우는 그것이 영기가 없으면 몸에 붙을 수 없다.

제자: 장래의 인류는 여전히 위로 수련해야 합니까?

사부: 장래의 인류 그때가 되면 당신들의 수련은 거의 다 끝났을 것이다. 하지만 그것도 아주 빨리 올 것이다. 장래에는 녹음, 비디오를 미래의 사람에게 남겨놓지 않을 것이며, 미래의 사람은 나의 형상을 모를 것이다. 어떤 사람은 내가 아주 많은 천기를 누설했다고 말하는데, 사실 미래의 사람들은 나의 설법을 듣지 못한다. 지금 거리의 사람들은 모르고 있으며 법을 듣지 못했다. 당연

히 당신들이 진정으로 수련 원만에 이르러 다 간다면 나는 신(神)에게 설법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천기를 사람에게 누설하지 않았다. 미래의 사람은 매우 아름다운 시기로 들어가며 미래의 사람은 모두 복이 있다. 상대적으로 말하면 수련은 좀 곤란해진다. 환경이 좋아지면 그렇게 많은 고생이 없으므로 수련하자면 몹시 어렵다. 하지만 거꾸로 말하면 그것 또한 정상적이다. 인간도 그렇게 고통스럽고 그렇게 나쁘지 않으며 정상적인 수련 시기로 들어간다.

수련은 몹시 고생스럽다. 당신이 겪은 고생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나는 이전에 한마디 말을 한 적이 있다. 높은 곳은 춥게 마련(高處不勝寒)이라고. 내가 한 말은 속인의 말과 같지 않다. 다시 말하면 당신의 경지가 제고되었고 당신의 공이 제고되었으며 당신의 일체가 다 따라서 제고되었고 당신의 사유방법도 변하였기에 당신은 당신과 공동 언어가 있는 사람이 아주 적음을 발견할 것이다. 바로 이 점에서 당신은 아주 쓸쓸함을 느끼며 마음속으로도 일종의 고달픔을 느낄 수 있다. 그렇다면 이어서 일종 상태를 가져올 수 있다. 즉 속인과 언어가 적어지며 접촉이 적어지는 것 같고, 심지어 가족까지도 그런데, 보증하고 이럴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다 정상

적인 것에 속하는 것으로 우리는 이 관계를 되도록 바로 잡아야 한다. 왜냐하면, 당신들은 확실하고도 확실하게 한 속인으로 여길 수 없기 때문이다. 이미 신(神)이고 이미 속인이 아니다. 예전에는 수련하는 화상(和尚)이 출가만 하면 바로 절반은 신(半神)이라고 했다. 지금의 화상(和尚), 그는 물론 아니다. 그는 이런 소질을 갖추지도 못했다. 왜 출가하기만 하면 그를 절반 신이라고 말했는가? 과거의 수련은 출가하기만 하면 세상 인연을 단절하는데 당신이 생각해 보라. 그가 아직도 사람이겠는가? 당연히 사람과 같을 수 없는 것으로, 사람은 이런 인지상정(人之常情)에서 벗어날 수 없다. 당신들이 수련을 거친 후 진정으로 제고하여 올라오면 당신들은 사람들이 집착하는 것을 당신은 집착하지 않으며, 사람들이 흥미진진하게 담론하는 것을 당신들은 너무나도 재미없다고 느끼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그럼 당신들은 필연코 사람과 거리가 있으며 이 격차가 갈수록 커질 것이다. 하지만 당신들도 이 면에서 그것을 지나치게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 왜냐하면, 당신들이 일단 이 상태로 들어갔을 때, 당신들은 점차 당신들이 마땅히 접촉해야 할 것을 접촉하게 되며 당신들은 곧 점차 개공, 개오하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당신은 당신

들의 즐거움이 있고, 사람은 사람의 즐거움이 있으며, 물론 신(神), 그에게는 신의 즐거움이 있다.

제자: 미국에서 자란 어린이는 중국어를 그리 잘하지 못하는데 장래에 중국으로 돌려보내야 합니까?

사부: 내가 당신들에게 알려주겠다. 나는 국외의 많은 곳에 갔는데 모두 이 문제를 발견하였다. 그러므로 나는 흔히 우리 제자를 보면 그에게 알려준다. 나는, 반드시 아이에게 중국어를 배우게 해야 하며 당신 황인종의 그런 특점을 잃어버릴 수 없다고 말해 준다. 왜냐하면, 백인 세계에는 당신이 없으며, 당신은 여전히 황인종의 세계로 돌아와야 하기 때문이다. 당신이 만일 법을 배움에 법의 진정한 함의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큰일이다. 오늘날 이 번역한 책 역시 과도(過渡) 시기에 사람으로 하여금 인식하게 하는 한 과정이다. 마치 우리의 『파룬궁(法輪功)』 그 책, 그는 다만 인식과정 중의 것이며 진정으로 수련하는 것은 『전법륜(轉法輪)』인 것과 같다. 외국어로 번역되어 나온 책, 그 역시 한 인식과정이다. 당신이 진정으로 수련하려 한다면 원문(原文)을 보아야 한다. 원문 중에서 당신은 비로소 무엇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 당신이 번역을 아무리

잘했다 하더라도 그는 모두 몹시 천박하며 내포가 없다. 우리 많은 사람이 책을 볼 때 매번 봄이 다 같지 않은데, 같은 말이라도 당신이 부동한 경지에서 보면 완전히 다르다.

제자: 일부 노(老) 수련생들은 신(新) 수련생들과 함께 교류하기 싫어하는데 이 현상이 올바릅니까?

사부: 우리는 여러분이 반드시 연공장에 와서 연공하라고 엄격히 규정하지 않았다. 나는 단지 여러분에게 알려줄 뿐이다. 즉 연공장에서 단체로 연공하고 서로 탐구하면 제고가 빠르고 수련생의 제고에 좋은 점이 있다. 그 사람이 집에서 연마하려고 생각한다면 그는 곧 집에서 연마해도 되는데 이것은 괜찮다. 우리 어떤 사람은 수련이 괜찮게 되었는데, 확실히 집에서 연마하는 이 부류 속에도 적지 않게 있다. 하지만 일부는 정진(精進)하지 못하는데, 집에서 나오지 않는 사람 중에 역시 적지 않게 있다. 그러므로 당신은 일률적으로 논할 수 없으며 또 그에게 강제로 요구할 수 없다. 수련은 사람 마음의 문제로서, 본인의 마음이 수련하지 않겠다는데, 당신이 기어코 그로 하여금 나오게 해서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그렇지 않은가? 그가 부처가 되려 하지 않으면 부

처도 방법이 없다. 자신이 뭔가를 원하고 자신이 뭔가를 하려고 해야만 되는 것이다. 하지만 당신은, 그가 나옴으로써 우리를 도와 법을 널리 전할 수 있다고 여기며, 이렇게 함이 좋다고 여겨 여러분을 도와주라고 그에게 권하지만, 사실 꼭 이런 것이 아닐 수도 있다. 집에서 수련하든 밖에서 수련하든, 모두 마찬가지다.

지금 나는 또 한 가지 문제를 발견하였다. 물론 당신이 말한 이 문제가 아니다. 우리는 중국 대륙에서 초기의 많은 노수련생이 나와서 연마하지 않는 것을 발견했다. 밖에서 연마하는 사람 대부분이 나의 설법을 들은 적이 없었는데, 대단히 많았다. 이는 우리 대법의 유전형식이기 때문에 이 형식을 여러분에게 남겨놓았으며 후세사람 역시 모두 이렇게 할 것인바, 대단히 좋다. 들어간 이런 사람들이 안 된다는 말이 아니며 많은 사람이 이미 수련을 아주 잘했다. 그는 자신과 새로 입문(入門)한, 법 인식이 높지 않은 수련생 사이에 공동의 언어가 없음을 발견하는데 이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 수련생 사이에 흥미진진하게 담론하는 그런 일을 그는 집착으로 여기며 마음속으로 괴로워하는데, 그가 오지 않는 이유일 수도 있다. 이런 상황이 있다. 사람이 무슨 일을 할 때 흔히 모두 한 가지 마음을 갖고 있으며 목적이 있

다. 만약 이 사람이 대단히 잘 수련하여 그에게 속인이 집착하는 어떠한 마음도 없으면, 그는 사람과 함께 있지 못한다. 사람의 매 한마디 말을 그는 다 견디기 어려워 하는데, 매 한마디 말, 매 일념(一念), 그 사상 속의 염두, 그는 모두 목적이 있는 것이다. 사람의 사상이 아주 청정(淸淨)하여 아무것도 없을 때, 다른 사람이 무엇을 생각하는지 당신은 다 알 수 있다. 그렇다면 다른 사람의 일념, 일거일동, 한마디 말을 당신은 견뎌내기 어려워하며 마음속으로 몹시 번거롭다. 당신은 또 그와 똑똑히 말할 방법이 없다고 여기므로 나오지 않는데 이런 것도 있다. 다 이런 것은 아니지만, 내가 생각하건대 우리 신수련생들은 나와서 연마함이 가장 좋다. 무엇 때문인가? 왜냐하면, 당신들의 제고에 확실하고도 확실하게 좋은 점이 있기 때문이다. 만약 당신이 나와서 연마하지 않고 당신이 집에서 연마하면서 당신 자신의 깨달음에 의한다면, 물론 깨달을 수 있지만, 아주 느리다. 누가 정진(精進)하려고 생각하지 않겠는가? 누가 재빨리 제고하여 올라오려고 생각하지 않겠는가?

제자: 저희가 일을 할 때 이 일을 마땅히 해야 하는지, 또는 마땅히 하지 말아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眞(眞)·善(善)·忍(忍)을 우리의 지도로 삼아야 합니까?

사부: 사실 일을 마땅히 해야 하는지 하지 말아야 하는지가 아니다. 당신은 모르고 있다. 흔히 사람은 모두 구체적인 사물 중에 빠져 좋고 나쁨을 가늠하는데, 당신은 가늠해 낼 수 없다. 왜 나는 인류가 오늘날 발전한 일체 상황을 볼 수 있는가? 어떤 일이든 내가 모두 그에게 똑똑히 말해 줄 수 있는 것은 내가 그 속에 있지 않기 때문이다. 당신이 문제를 볼 때, 당신은 다시는 그것 속에 빠져서 보지 말아야 하며 당신은 이 구체적인 문제 속에서 그 일을 논하지 말아야 한다. 당신은 이 문제에서 뛰어나와 관찰하고 관찰해야 하며 그것이 眞(眞)·善(善)·忍(忍)에 부합하는지 부합하지 않는지를 보아야 한다. 만약 수련을 잘한 사람 혹은 신(神), 보살이 와서 이 일을 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당신이 이처럼 생각하고 정념(正念)이 나오면 당신은 곧 알 수 있다.

제자: 복잡한 환경에서 고인(高人)이 나오는데 대륙의 환경은 분명히 미국보다 많이 복잡하므로 대륙에서 수련함이 좀 빠를 것입니다.

사부: 모두 복잡한데 복잡한 방식이 같지 않다. 대륙

사람들은 서로 간에 인심(人心)의 마찰이 아주 심하다. 아귀다툼하는 이것이 아주 심하다. 그러나 미국은 표면 문화의 파괴가 대단히 심하며 마성(魔性)이 아주 크다. 그러므로 모두 수련할 수 있다.

제자: 대기오염이 아주 큰데 수련에 몹시 나쁜 점이 있습니까?

사부: 없다. 우리 수련인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 왜냐하면, 당신의 신체는 점차 고에너지물질로 대체되는 데, 이러한 것이 당신을 오염시키지 못하기 때문이다.

제자: 수련은, 자연환경, 사회 환경을 포함하는 외부 환경, 혹은 수련자 본인의 교제환경과 생활환경이 양성(良性)을 향한, 眞(쩐)·善(싼)·忍(런)을 향한 이 방향으로 발전하도록 이끌 수 있습니까.

사부: 이 역할을 한다. 다만, 아주 미묘하며 관찰하기가 쉽지 않다. 당신과 관계가 있는 일체에 모두 미묘한 변화가 발생하고 있다. 양 방면의 변화이다. 즉 하나는 갈수록 당신과 더욱 멀어지고 하나는 갈수록 당신과 더욱 가까워진다. 변할수록 더욱 좋다. 어떤 것은 아예 당신과 갈라지게 되는데, 쓸모없는 것은 갈라지게 된다.

그는 이럴 수 있다. 변화가 아주 미묘하다.

제자: 스승님, 연공할 때 반가부좌와 결가부좌는 최종 어떤 영향이 있습니까?

사부: 그는 하나의 수련하는 기인(基因)이 안에 있으며 하나의 기제(機制)가 안에 있다. 우리 이 한 세트 공의 결가부좌는 이런 기제인 것으로, 마치 한 대의 기계와도 같다. 이 기계의 기어는 이렇게 설치된 것으로서 당신이 기어이 그렇게 설치한다면 그는 물건을 만들어 내지 못한다. 그러나 그것은 그렇게 절대적인 것이 아닐 수도 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 그는 점차 제고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이다. 틀지 못하면 천천히 틀도록 하라. 우리는 여전히 방법이 있기 때문이다. 당신은 되도록 따라와야 한다.

제자: 다리를 들고 입정(入靜)할 수 없다면 ‘定(땡)’에도 도달할 수 없습니다. 말하자면 자신의 층차가 아주 낮으며 고층차로 올라갈 수 없음을 설명합니다.

사부: 당신이 거기에 앉아 定(땡)할 수 있다면 지금의 층차는 이미 아주 높다. 그 책 속에 이미 다 써 놓았다. 당신이 실로 定(땡)할 수 없으면 당신은 당신의 그

내리누를 수 없는 사상 그것을 다른 사람으로 간주하라. 사실 내가 당신에게 알려주겠다. 원래 그것은 당신이 아니다. 그것은 후천적으로 형성된 관념과 사상업력이 조합되어 이루어진 것이다. 당신이 원래 가부좌하고 입정(入靜)하려고 하나 그것은 왜 조용해지지 않는가? 그것이 당신의 말을 듣지 않는데, 그것이 당신일 수 있겠는가? 그것은 업력이 위로 뒤집히는 것이므로 당신은 그것을 다른 사람으로 간주하라. 집착을 담담하게 내려놓음에 따라 서서히, 갈수록 조용해질 수 있으며 층차도 제거될 수 있다.

제자: 연공함에 늘 피곤하다면 잠을 자는 것입니까? 아니면 마입니까? 아니면 그것과 투쟁해야 합니까? 스승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사부: 잠 자체는 마가 아니다. 그것은 사람이 휴식하는 필수적인 일종 요소로서 이 역시 우주를 구성하는 일종의 것, 일종의 요소이다. 하지만 수련인으로 말한다면, 당신이 수련 중에서 잠을 잔다면 그것은 일종 마의 작용을 일으킬 수 있으며 당신으로 하여금 수련하지 못하게 한다. 그것 자체는 마가 아니지만, 그것은 이런 일종의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러나 거꾸로 말한다면 또 당신의

의지를 강화하기 위하여 작용을 일으키는 것이다. 그 의지를 당신 자신이 가서 닦아야 하지 않는가? 자신의 의지를 강화하고 그것을 억제함이 바로 의지를 강화하는 것이고 역시 수련이다. 연공할 때 피곤하다는 자체 역시 사상업력이 작용을 일으킨 것이다.

제자: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氣機(치지)란 도대체 어찌 된 영문입니까?

사부: 氣機(치지)란 바로 공의 아주 미시적인 물질로서 사람이 볼 수 없는 물질로 구성된 일종 운동의 기제(機制)이다. 이런 기제는 유형적이다. 하지만 사람은 보지 못하며 장래에 일정한 정도로 수련되었을 때 천목이 비교적 잘 열려야만 볼 수 있다. 그는 마치 한 갈래의 띠와도 같은데 백색의 띠로서 당신의 신체 밖에서 돌고 있다. 하지만 그는 오히려 단전 속의法輪(파륜)과 이어져 있으며 그것은 당신이 연공할 때 끊임없이 강화하고 있다. 이것이 더욱 강할수록 그것은 당신이 자동으로 연공함을 더욱 이끌 수 있다. 바로 당신이 연공하지 않을 때에도 그것은 돌고 있으며 그것은 당신을 도와 자동으로 연공한다. 우리가 전한 다섯 가지 공법 속에는 모두 이런 기제가 운동하고 있다. 그러므로 당신이 볼 때

당신 자신은 여기에 서서 움직이지 않지만, 당신 신체의 기제(機制)는 반복하여 운동하면서 당신 신체의 전면적인 연화(演化)를 이끈다.

제자:法輪世界(파룬쓰제)에는 파룬가(法輪歌)가 있습니까?

사부: 그것은 광고하는 것이며 일종의 인정화(人情化)를 하고 있다. 불법(佛法)이 어찌 이처럼 엄숙하지 않을 수가 있겠는가?! 지금 사람은 부처를 모두 인화(人化)하였다. 그러나 부처는 오히려 비교할 바 없는 위대한 신(神)이다. 과거에 부처를 담론할 때는 모두 끝없이 우러러보는 마음이 일어났다. 지금은 제멋대로 말한다. 그 묘지 속에도 부처, 보살, 마리아의 초상을 새겨 놓는데, 그것은 그야말로 부처, 보살과 마리아를 짓밟는 짓이다. 주위는 모두 죽은 사람의 묘비이다. 사람은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도 모르며 사람은 아주 좋다고 여긴다. 그는 부처, 보살과 마리아에게 그런 죽은 사람을 지키게 하려고 하는데, 그야말로 신(神)을 지휘하고 있다. 이런 것이 아닌가? 이는 사실 모두 사람이 최악의 사상으로 생각해 낸 것이다. 많은 공법에서 무슨 춤을 추거나, 무슨 노래를 하거나 하는 이런 것들이 수련과 무슨

관계가 있다고 하는데, 사람의 정(情)에 대한 집착을 조장할 뿐이다. 사람의 사상으로, 사람의 사유방법으로 불(佛)·도(道)·신(神)을 대하지만, 사실 사람의 사유방법으로는 전혀 생각할 수 없다. 당신이 아주 잘 수련했을 때, 마찬가지로 사람의 이런 사상이 없을 때 당신은 비로소 원만할 수 있다.

제자: 저희는 일종의 유위적인 상태 속에서 생활하고 있는데 마땅히 그런 정상적인 생활 속에서 욕망을 제거해야 합니다. 저는 어떤 때 또렷하지 못하여 자신을 몹시 긴장하게 합니다.

사부: 당신의 말은 우리가 수련할 때 자신이 마치 법에 대하여 일정한 인식이 있으며 마땅히 제고하고 마땅히 일부 사상을 제거해야 한다고 여긴다. 그러나 어떤 사상은 아직도 있으며, 마치 우리를 몹시 난처하게 만드는 것 같음을 발견하게 되는데, ‘나는 어찌하여 아직도 이러한 사상이 있는가?’라고 하며 자신이 아주 모순된다고 느낀다는 것이잖은가. 그렇지 않은가? 내가 여러분에게 알려주겠다. 지난번에 내가 말할 때 이 문제를 이미 담론하였다. 우리가 만일 당신이 속인 중에서 속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의 사상을 모두 제거해 버

린다면 당신은 하루도 속인 중에서 있을 수 없다. 사람이 무엇을 하든 모두 집착심의 지배하에 하는 것으로, 당신은 사람의 일사일념(一思一念)을 견뎌내지 못한다. 당신은 그 사상이 없을 때에 당신이 사람과 함께 있다는 것이 어떤 느낌(滋味)인지 모른다. 그러므로 당신으로 하여금 이 속인 중에서 수련하게 하려면, 사람이 원만할 때를 기다려야만 비로소 사람의 가장 표면까지 전화(轉化)될 수 있으며 일체 집착을 제거하게 되는 것이다.

제자: 백인이 수련원만 하면 어느 세계로 갑니까?

사부: 이 문제를 이미 말하였다. 우리 어떤 사람은 아마 그 『전법륜(轉法輪)』 속에 모두 부처의 형상임을 볼 수 있다. 어떤 사람은 영어판 『전법륜(轉法輪)』 속에 모두 그 마리아와 예수와 같은 그런 옷차림을 한 신(神)이고 백인 형상을 한 신이며 글자마다 다 그러한 것을 볼 수 있다. 당신은 우리 대법을 수련한다고만 보지 말라. 나는 말하였다. 우리는 불가이지만, 내가 전하는 것은 전반 우주의 특성, 우주의 이치, 우주의 법이다. 그것은 물론 그의 신도 이 속에 포함되어 있다. 그렇다면 그는 백인이며 그가 원만했다면 그의 몸에서 수련되어 나

오는 공 역시 백인 형상인바, 원만한 후에는 그 백인세계로 간다. 그들이 수련해 낸 작은 영해(嬰孩)는 모두 날개가 달려 있다. 물론 도가(道家)의 것도 역시 이리하다.

제자: 살생한 업력은 어떻게 상환합니까?

사부: 우리 매우 많은 제자는 수련과정 중에서 일부 위험한 일에 부딪힌 적이 있는데, 자동차에 부딪히거나 높은 데서 떨어지는 등등 많은 일이 있다. 그런 후 우리 수련생은 스스로 마음속으로 아주 기뻐하는데, 기뻐할 만하다. 물론 내가 법에서 말하였다. 이는 이전에 빚진 몫시 큰 업력, 심지어 명(命)을 갚은 것과 같다고. 만약 정말로 그 명을 갚았다면 그럼 정말로 지옥에서 이름을 지워버린다. 왜냐하면, 당신이 그 명(命)을 이미 갚았기 때문이다.

사실 당신은 한번 부딪혀 당신이 아무 일도 없었다고 여기지 말라. 당신은 정말로 하나의 당신이 죽어버렸는데, 업력으로 구성된 당신이다. 그뿐만 아니라 신체에도 당신의 좋지 않은 업력으로 구성된 사상이 있고 마음이 있으며 사지가 있는데, 부딪혀 죽었다. 그러나 그는 전부 업력으로 구성된 것이다. 우리는 당신에게 이처럼 큰

좋은 일을 해주었으며 이처럼 큰 업력을 제거하여 그것으로 명(命)을 갹게 했는데, 이 일을 하는 사람이 없었다. 곧바로 당신이 수련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비로소 이렇게 하였다. 당신들이 알게 되었을 때 당신들은 나에게 감격할 방법이 없다.

제자: 저희는 어떻게 원만에 이르게 됩니까?

사부: 우리 이 한 세트의 법을 전함에 바로 사람의 本體(번티)를 불체(佛體)로 전화한다. 우리는 곧 이런 한 갈래의 길을 걸으며 열반으로 가지 않고, 또 홍화(虹化)로 가지 않으며, 또 도가의 그런 대나무 막대기를 사람으로 변화시켜 관 속에 넣는 시해(屍解) 방법으로 가지 않는다. 바로 정정당당하게 사람들로 하여금 당신이 원만을 이루는 것을 보게 한다. 왜냐하면, 당신의 신체는 이미 전변(轉變)되었기 때문이다.

제자: 스승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속인 중에서 하는 수련은 속인 중의 일을 잘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시간을 적게 들여도 잘할 수 있는 일을 찾고, 그런 다음 시간을 들여 수련하려고 생각합니다.

사부: 우리는 모두 이런 생각이 있다. 여러분은 모두

좀 여유 있는 직업을 찾아 많은 시간을 수련할 수 있고 또 일도 괜찮게 할 수 있게 하려고 생각한다. 생각은 어디까지나 생각이요 동기는 아마 모두 내가 수련해야 하겠다는 것을 고려했을 수 있다. 하지만 흔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모두 실현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때 사람의 상황이 다르므로 오로지 당신 자신이 강렬하게 집착하지 않고 꼭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는다면, 나의 법신은 모두 당신에게 아주 좋게 배치해 줄 것이므로 정상적인 직업에서 마찬가지로 수련할 수 있다.

제자: 어떤 사람은 정자체와 간자체로 된 『전법륜(轉法輪)』을 보면 같지 않고, 감각도 같지 않다고 합니다.

사부: 그렇지 않은 것 같다. 마땅히 같아야 한다. 한 가지가 있다면 중국 대륙에서는 ‘문화대혁명’을 거친 이후 사람의 사상이 아주 크게 바뀌었다. 대만 사람과 동남아 기타 지역의 화교, 화인(華人)의 사상은 이 방면에서 조그마한 차이가 있다. 당신은 정자체 『전법륜(轉法輪)』을 볼 때 쉽게 당신의 이 원래 관념을 가지는 것이 아닌가? 일단 간자체를 보면 중국의 이 부적합한 것과 한데 섞여진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당신 자신의 일종 심리장애이다.

제자: 어떤 때 『전법륜(轉法輪)』을 보면 손을 떼기가 싫습니다. 또 연공하려고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부: 『전법륜(轉法輪)』을 보아 손을 떼기 싫다면 당신은 많이 보도록 하라. 그것은 상관없다. 시간을 더 뒤로 미루어도 되며 책을 많이 보는 것은 좋은 일이며 법을 배우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